

# 돌아온 탕자 이야기

김 치 진 지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겔33:11)



저자 김치진

안양교도소 보안과 근무

청송교도소 교무과 근무

수원구치소 교육교화과 근무

현재

수원구치소 사회복귀과 근무 중

영남사이버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 목 차

들어가는 말

## Chapter 01 회심시키시는 하나님..... 1

죽음이 나를 사로잡다  
아들 동건, 친구를 때리다  
아들 동건, 자전거에 손을 대다  
술과 한판 하다  
아버지를 토하게 하시다  
회심하다  
성경을 읽게 하시다  
자살하려는 마음을 마귀가 심어 주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돌이키라고 신호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 나중이 더욱 곤고해 지리라  
서원 기도

## Chapter 02 찾게 하시는 하나님..... 40

한줄기 빛, 개인 회생  
사람을 붙여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알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유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다  
한빛 법률사무소에 다녀오다

내가 만난 작은 예수  
아내의 간증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출소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최 집사님  
최 집사님의 신앙 간증  
한빛 법률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키시다

### Chapter 03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83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  
나를 가로막고 있던 가식의 벽을 허물다  
교정 사역의 밑그림을 보여주시다  
은수가 울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다  
지금은 잠행 중  
필요를 또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개인 회생, 사건 번호 나오다  
자살을 고백하게 하시다  
중보 기도를 하다  
두려워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노정수 강도사님께 기도 받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다  
기도한 즉 받은 줄 알라  
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최 주임님 힘드시죠! 주님께 맡기세요!  
소장님을 통해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게으름을 책망하시다  
처음으로 내게 맡겨 주신 일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나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 Chapter 04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157

김주형 수용자를 만져 주시는 성령님  
찬송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를 주시다  
김 목사 사건  
나를 통하여 당신이 살아 계심을 알리소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박소원 씨를 만나게 하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께서 간증을 시키시다  
수용자를 통해 전해 주신 책  
안인구 목사님을 품고 기도하다  
문서 사역의 소명을 보여주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여름휴가에서 생긴 일  
드디어 개인 회생 인가 결정 나다  
예지의 깜짝 이벤트

## Chapter 05 인도하시는 하나님..... 218

채워 주시는 하나님  
기독교 업무를 맡기시다  
말씀 인도할 분을 보내 주시다  
내게 주신 교정 사역  
안인구 목사님과의 만남  
말씀을 갈급해 하는 수용자  
프린터 사건  
인도하시는 성령님  
처음으로 회중 앞에서 간증하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간증 수기를 오픈하게 하시다  
회심 후 살인 사건을 자수하게 하시다  
유용해 수용자가 보낸 편지  
동두천 살인 사건과 나비 효과  
김양재 목사님을 처음 만나다  
김양재 목사님을 통하여 책을 주신 하나님  
청함을 받는 자보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 주시다  
방언으로 통성기도 하다  
신학에의 꿈을 꾸게 하다

나가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시66:16)

## 들어가는 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셨던 분이 내게 한분 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학비를 벌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계셨던 분이 한분 있다.

그 분은 내가 아내를 만나 연애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애가 들어서지 않아 마음 고생할 때도, 동건이와 예지를 가졌을 때도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 분이시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방황할 때도,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번화가에서 술로 취청거릴 때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지난 11월 주식으로 진 빚 2억 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할 때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계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 분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눈이 팔려 그분의 얼굴에 먹칠을 할 때도, 그분이 싫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도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분은 내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 주신 참 고마우신 분이시다. 나는 교회에 나간 지 18년 정도 되었다. 그 기간 중 16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 온 세월이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닌 빈껍데기 교인이었다. 속이 빈 깡통 교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0년 11월 이후, 2여 년 동안은 내게 큰 기쁨이요 행복의 시간이었다. 16년 동안 교회에 나간 것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의 손을 빌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글은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증언하는 글이다.

이 글이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도, 사건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만든 사건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나처럼 주식투자를 하다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그로 인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직장 동료 때문이다. 그 동료의 아픔을 조금 더 일찍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주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그가 알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이 글을 세상으로 내 보내야 할 것 같다.

또 다른 한 사건은 나도 놀랐지 않을 수 없었고 꼭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다. 그 사건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영혼의 회심 때문이다. 그 회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은 얼마 전 2012년 6월 하순경,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동두천 보험사기, 연쇄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어 세상에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15여 년 전에 있었던 살인 사건을 자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돈 때문에 자신의 아내, 친동생, 처남을 살해하고, 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거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이곳에 수용된 한 수용자의 회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 간증 수기를 읽고 회심하여 15여 년 전에 있었던 살인 사건을 자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한 형제를 회심시킴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15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살인 사건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까지 해결하게 해 주신 것이다.

2여 년 전 자살하려고 몸부림치던 나를 하나님은 살려 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곳에 갇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처럼 깨지고 찌그러지고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불러 주신 것이다. 지금 이 글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글이 많은 영혼들의 가슴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으면 한다. 이곳 교도소, 구치소에 갇힌 영혼뿐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높은 벽을 쌓고 감옥에 갇힌 영혼들의 거짓된 벽을 허무는데 사용되어졌으면 한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식의 벽을 허물고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이 글을 통하여 내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하였는지를 깨닫고 자유를 찾기 바란다.

끝으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한마음교회 임달수 목사님, 교정 사역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수원구치소 기독교 분과 위원장이신 유용원 목사님, 인생의 모든 것을 이곳 갇힌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진석 목사님, 스데바나처럼 사역자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조명제 장로님 그리고 교정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정위원과 사역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받은 것을 그쳐 주시는 나의 스승 안인구 목사님, 내게 치유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최돈명 집사님, 나의 롤 모델이신 노정수 강도사님, 김재학 장로님을 비롯한 수원구치소 기독교교회 직원들, 그리고 이곳 교정 사역에 애정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목회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사랑과 기도의 본이 되어 준 내 사랑 아내 은수와 든든한 아들 동건, 예쁜 내 딸 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지금도 열심인 큰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내 지체들, 가난하였지만 부유한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 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이곳에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나와 울고 웃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눈물 흘리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마라나타!

# Chapter 01 회심시키시는 하나님

## 죽음이 나를 사로잡다

2010.11.03.

어제 저녁, 죽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한치 앞을 내 다 볼 수 없는 짙은 어둠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머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다. 현재 내 힘으로는 머리털 한 올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아온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 봐도 지금 내게 남은 것은 고통과 좌절뿐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보겠다고 대출을 받아 손을 댄 주식이 이제는 내게 큰 덩어리가 되어 돌아왔다. 대출하여 시작한 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주식을 통해 이익을 내서 빚도 갚고자 한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다.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장 폐지되고 휴지조각이 되자 이것을 만회해 보고자 또 빚을 내고 그 빚의 빚을 갚느라고 또 다시 빚을 내고……。눈에 뭔가 단단히 썬 것이 틀림없었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뭔가가 나의 온 몸을 칭칭 동여매어 움푹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1:2)

평생 빚을 갚다가 가야 할 나, 그로 인하여 아무 죄 없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은수, 동건, 예지 그리고 부모 형제들……。모두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았다. 다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가입해 둔 보험이 몇 개 있다. 내가 죽으면 사망 보험금이 나올 것

이다. 이 보험금이면 남은 가족들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자살하면 보험금도 적게 나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자살이 아닌 사고로 가장할 수 있을까? 목을 매? 투신하여? 약을 먹고 죽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자살로 처리되어 보험금을 탈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사고로 죽었다고 위장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온통 죽는 것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온 몸과 마음이 죽음의 그림자로 짓눌려 왔다.

그 순간,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이 사고로 위장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되겠구나! 이 방법이면 자살이 아닌 사고로 죽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고속도로에서 죽을까? 벼랑길에서 떨어져 죽을까? 지하 차도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죽을까? 그렇다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이다가 잠이 들었다.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삼상16:14)

## 아들 동건, 친구를 때리다

2010.11.04.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데 아들 동건,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건이가 옆 반 친구를 아무 이유도 없이 때렸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잠시 학교에 오라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얼마나 때렸으면 학교에 까지 나오라고 할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몹시 놀라고 당황하는 것 같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점심시간에 학교 교무실로 찾아 갔다. 담임선생님은 점심 식사 하러 가 자리에 없었다. 교무실 한편에 있는 대기실 소파에 잠깐 앉아 기다

리고 있는데 원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잠시 후 담임선생님이 오셨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다. 어제 동건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핸드폰으로 상대방 친구에게 욕을 하고 내일 학교 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냥 욕만 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동건이가 다음날 학교에 와서 그 친구를 때렸다는 것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그 친구 엄마가 시각 장애인이라 더더욱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평소 약자를 돌봐 주고 친구들을 먼저 배려해 주었던 동건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조금 후 동건이가 교무실에 왔다.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동건이 뒤로, 한 친구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동건이에게 한대 맞은 친구 같아 보였다.

담임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내게 동건이 아빠라면서 인사하라고 했다. 그 친구는 내게 인사를 하고 동건이 옆에 섰다. 얼굴을 한 대 맞았다는데 다행히 상처는 없어 보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를 소파에 앉히고는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다. 동건이를 대신해서 내가 사죄하니 동건이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 친구를 보고 있자니 애처로운 느낌이 들었다. 장애인 엄마를 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저려와 눈물이 났다. 그 순간 다른 어떤 말도 내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있던 동건이가 우는 것이다. 옆에 계시는 선생님도 눈이 축축해 지면서 고개를 돌리신다.

그 친구는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더니 조금은 당황했던 것 같았다. 자기는 괜찮으니까 울지 말라는 것이다. 그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그 친구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어머니께서 지금은 몹시 흥분해 있으니 전화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잘 말씀드리겠다는 것이다. 울고 있는 동건이를 뒤

로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동건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만이 자꾸 드는 것이다.

저녁에 동건이와 은수, 예지, 나 모두 모였다. 주눅이 들어 있는 동건, 울고 있는 은수, 그런 모습을 보고 풀이 죽어 있는 딸 예지, 모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

조금 후 동건이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앞으로 약자를 사랑하고 돌봐 주자, 차라리 한 대 맞고, 화가 나도 참으라고 말해 주었다. 화를 낼 마음조차도 내게는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곳에 모인 사람 중에 죄의 경중을 가리자면 내가 제일 중한 죄인인데 말이다. 지금 울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인데 누굴 훈계하고 탓하겠는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여 그들을 제대로 쳐다 볼 수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갑자기 울음이 복받쳐 올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아직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뺨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들어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 댔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시102:5~7)

어제 동건이가 그 친구와 통화할 때가 내가 집에서 죽고 싶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대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 아들 동건, 자전거에 손을 대다

2010.11.08.

퇴근 후 저녁,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또 아

파 왔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어떻게 죽을까하는 생각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벌써 벽시계가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순간 동건이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이 시간까지 아무 말 없이 안 들어 온 적이 없는 애다. 순간 정신이 버쩍 들어 동건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동건이가 받았다.

너무 늦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했더니 지금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받는 것이다. 월드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이었다. 동건이 하고 친구, 둘이서 다른 사람 자전거를 훔쳐서 놀다 걸려 이곳 사무실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사무실로 나오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동건이가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동건이가 자전거를 훔치다가 잡혀서 지금 월드 메르디앙 보안 사무실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다. 얼마 후 아내를 메르디앙 아파트 정문에서 만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월드 아파트 언덕배기에 위치한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무실 앞에 한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조금 후 그 사람이 내게 “동건이 아버지 되세요?” 라고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했더니 자신이 그 자전거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 말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도 함께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이런 우리들에게 관찮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건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 동건이는 사무실에 있는데 잠깐 내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찾았는데 세워둔 자전거가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보안 사무실에 와서 CCTV로 확인해봤더니 동건이하고 친구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옆 동에다 세워 두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훔칠 의도는 없어 보여 그만 둘까 했는데 마침 동건이가 지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을 좀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동건이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 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기 아들도 동건이처럼 남의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자신은 파출소까지 갔다 왔다는 것이다.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했다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혼낼 테니까 우리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그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동건이 하고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전거 주인이 동건이와 친구에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면서 호통을 쳤다. 동건이와 그 친구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도 자식 잘못 키워 이렇게 되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함께 무릎 꿇고 빌었다. 그 주인은 동건이와 친구에게 “이렇게 빌고 있는 부모님을 봐서 용서해 주는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부모님 속 썩이지 말라!”면서 다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서라고 했다.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였다.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니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요!” 하면서 웃으시며 그냥 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 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산33:29)

메르디앙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동건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 왔다. 은수, 동건, 예지, 나 모두 붙들고 울었다. 착하고 순한 동건이가 왜 요즘 이렇게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지 모르겠다면서 붙들고 울었다.

동건이가 친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 뒀던 시간이 바로 내가 집에서 죽



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 시간대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 술과 한판 하다

2010.11.11.

퇴근 무렵 김 계장님이 술 한 잔할 사람 없냐고 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자꾸 한 잔할 사람 없냐고 묻는 것이다.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도 술 먹을 생각은 없었지만 얼마나 한잔하고 싶었으면 저럴까 싶어 간단하게 하는 조건으로 응했다.

퇴근 후 김 계장님과 함께 회사 근처 음식점을 향했다. 음식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마침 그곳에 분류심사와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문을 나서려는데 분류 과장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인사를 하고 우린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을 테니까 편히 드시라고 말하고 나가려 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한잔하고 나중에 합석하자는 것이다. 하는 수없이 뒷좌석에서 김 계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주를 먹었다. 얼마 후 분류과 직원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2차로 호프집에서 호프 몇 잔을 더 먹었다. 사실 2차 호프집에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분류과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다. 1차 음식점에서 일어나 2차 호프집에 갔을 때는 이미 나는 테이프가 끊겨 있었던 상태였다. 일명 블랙아웃(Blackout,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현상)된 상태였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2차 호프집에서 맥주를 시켜 먹다가 내가 잔을 떨어트려 맥주잔이 깨졌다는 것이다. 맥주잔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나를 김 계장님과 함께 먼저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호프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난 벽에 기대어 있고 김 계장님은 전봇대에 기대 있더라는 것이다. 방송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장 주임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다. 집까지 내려다주려고 했더니 괜찮다면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는 수없이 장 주임은 우리들에게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고는 집을 향해 걸어갔다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던 동건이를 만난 장 주임은 아빠가 술 많이 드셨는데 집 근처에 있으니 빨리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건이는 집 앞까지 뛰어 갔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겁먹은 동건이는 집에 도착하여 아내에게 아빠가 길에 누워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데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내는 겁이 덜컥 나서 부리나케 나가 보았으나 역시 나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추위에 길바닥에 누워 얼어 죽지나 않을까 싶어 찾아 헤맸다는 것이다. 한참을 찾았는데도 보이지 않자 혹시나 싶어 이번에는 집 주차장으로 갔다고 한다. 그런데 차량 곁에서 고양이 같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평소 아내는 고양이를 무척 무서워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동건이와 함께 가 봤더니 내가 차에 기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앞으로 꼬꾸라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더라는 것이다.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수원 구치소 외정문에 근무하는 경비교도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나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 며칠간 앓아누워 있는 동안에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또 나를 사로잡아 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8:6)

## 아버지를 토하게 하시다

2010.11.14.

주일날 아침, 몸이 너무 아파 교회에 갈 수 없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예지가 받았다. 할머니에게 전화 왔다면서 나를 바꾸어 주는 것이다. 수화기를 받아 들었더니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가시던 아버지께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지하철 안에서 계속 토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 와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는 환자시다. 어제 토요일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병원에서 새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시면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런 증세가 있었는지 물으셨다. 현재까지는 그런 증상은 없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약의 강도를 조금 높여 보겠다고 내게 말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혹시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제 타 온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계속 증세가 심해지면 병원에 가 보자고 말씀드렸다. 다시 전화가 왔다. 이제 안정이 되었고 저녁에는 식사를 하셨다고 한다. 다행이다. 혹시 그 약 때문에 그런 증세가 올 수 있으니, 어머니께 새로 타 온 두 개의 하얀 알약 중 한 알은 빼고 드시게 하라고 말씀드렸다.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아버지의 증세를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 체력이 약을 견디지 못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두 알 중 한 알만 드시게 하라고 하셨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약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온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있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몰라 머리가 아파왔다.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감싸 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3:15~16)

## 회심하다

2010.11.16.

다음날, 동건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또 전화가 걸려 왔다. 동건 담임선생님이 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도 하기 전에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불길한 예감이 적중이라도 한 듯 선생님은 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다. 동건이가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상대방 친구의 앞니가 3대 나갔고 그 다친 친구는 지금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 왔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금 후 점심시간에 치과로 향했다. 차를 타고 치과를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걸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앞친 데 뒤편 격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왜 갑자기 한꺼번에 연속으로 일어난단 말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치과에 도착하였더니 그 친구와 엄마는 치료를 받고 이미 가 버리고 없었다. 원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그 친구 상태는 어떤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등. 앞니 한 개는 부러 지고 두 개는 금이 갔다고 한다.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약 오백에서 육백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 친구 엄마 전화번호를 병원에서 알려 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다. “치과에 도착했더니 금방 가셨다고 하시 길래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면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셨다.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저녁에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전화해 주었다. 치과에 다녀온 이야기와 저녁에 다친 친구의 집에 함께 찾아가자고 말해 주었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동건, 예지는 학원에 가고 없었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최근 며칠 동안 일

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첫 번째 죽고 싶다고 했을 때 동건이가 애를 때려 학교에 갔었고, 두 번째 죽고 싶다고 했을 땐 동건이가 다른 사람 자전거에 손을 대 월드 메르디앙에 갔었고, 세 번째 죽고 싶다고 했을 땐, 아버지가 교회 가시다가 지하철에서 토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죽고 싶다고 했을 때는 동건이가 친구하고 장난치다 친구의 치아 3대를 부러트렸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말이다. 소파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네가 죽고 이 세상에 없어도 동건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없어도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행복해 할 것 같니? 네가 없어도 네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니?’ 라고 누군가 내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이어서, ‘네가 죽고 그 보험금만 있으면 동건이가 올바르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니? 동건, 예지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니? 보험금만 있으면 그 돈으로 가족들이 춤이라도 추면서 네게 고맙다고 할 것 같니?’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였다.

순간 겁이 덜컥 났다. 나도 모르게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내가 죽는다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없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는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내 것인 양 함부로 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죽고 싶어 차를 타고 지하 차도 기둥에 부딪히려고 할 때마다 뭔가의 힘에 의해서 죽지 못하고 돌아왔었다.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동건,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왜 갑자기 10여 일 사이에 4번씩이나 일어나는 것일까? 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었고, 성경의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내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있는 것일까? 그런 걸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에 나

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헛살아 온 것인데 이게 정말일까? 머리가 아파 왔다. 가슴이 떨려 왔다. 심장이 멎는 듯 숨이 막혀 왔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분명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그 순간 주체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냥 흘러 내렸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는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아내, 동건, 예지, 부모님,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 머리를 뭔가가 둔탁하게 때리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가 내 몸에 와 닿는 듯하였다.

그리고 미련하고 욕심 많은 내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지만 몸뚱이만 가고 마음은 가지 못한 빈껍데기 교인, 무늬만 교인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인 돈, 명예, 지위, 오락, 술 등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하나님 뜻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나는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 왔던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교만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셨던 것이다. 돌아오라고 손짓을 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어도 영적인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껏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 주고 계셨다.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도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다. 내가 잘하면 박수를 쳐주시고 내가 잘못을 하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해서 손을 붙들어 주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본적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적인 쾌락보다는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알지 못하는 나는 없어질 쾌락을 쫓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을 잡아 주고 품어 주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 낭떠러지로 가고 있

는 나를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긴급 처방을 내리신 것이다.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내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내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동건,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그 사건을 통해 깨닫도록 하신 것이다. 마치 말과 노쇠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내게도 그 말과 같은 재갈과 굴레를 씌우신 것이다.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사32:9)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서 나 혼자만 벗어나 목적으로 자살하려고 했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다. 가족들을 위해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다.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눈물, 콧물이 뒤통이 되어 흘러 내렸다.

지금은 물질만 잃어버렸지만 만약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소중한 은수, 동건, 예지를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10:5)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다가 이렇게 막장까지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됨을 용서 하십시오.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사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을 읽게 하시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어졌다. 뭔가에 이끌려 성경책을 찾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듯 하여 성경책을 찾았다. 작은 방 한편에 먼지가 희뿌옇게 쌓여 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집어 들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 말씀이 눈에 들어 왔다. 전에 본적이 있던 구절이다. 하지만 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만을 봤을 뿐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온 몸이 감전된 듯 하였고 앞이마에서 시작된 바람은 머리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온 몸을 타고 번져 가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현상에 나도 소스라쳐 놀랐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느  
다.”(시147:18)

그 순간 지나온 과거가 영상처럼 떠올랐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살아온 내 삶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한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내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적인 우상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 지금까지 나는 웅고집을 부리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다. 속된 말로 내 주먹만을 믿으며 살아 온 고집불통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집불통인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격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가능하다(마12:29).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던 나를 이렇게 꾀꾀 묶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난 후,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는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12:29)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고 있었다. 교만함,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 등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알려 주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다. 그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려 주고 계셨다. 나의 죄악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더욱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내 마음의 거짓된 것을 가리기 위해 내 스스로 높은 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바벨탑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그 속에 나의 가식적인 것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본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 왔던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후3:5)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마6:24)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재물을 더 바라고 섬기며 살아 왔던 것이다.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지배의 대상인데(창1:28)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섬기며 쫓아갔던 것이다. 주객(主客)이 전도(顛倒)된 삶을 살아 온 것이다. 돈만 많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내게 남겨진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얻은 것은 뭔가? 빛, 망가진 몸뚱이뿐 아닌가? 교회에 나가면서도 항상 한쪽 다리는 세상적인 것에 발을 들여놓고, 주중에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녔던 것이다. 주일이면 몸뚱이만 교회에 가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간구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일체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어찌나 하고, 두려워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약4:2~3)

## 자살하려는 마음을 마귀가 심어 주다

마태복음 4장 1절~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4:1~11)

내가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게 한 것도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자살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줄 것이라고 유혹하여 자살할 충동을 내게 심어 준 것이다. 즉, 내가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실 것이라고 유혹한 것이다. 보험금을 타면 남은 가족들이 그 돈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과 2억이란 빛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심어 준 것이다. 사실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차를 타고 지하 차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바라는 대로 즉사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면 가족

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 되돌아오곤 했었다. 죽으려면 한 번에 죽게 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 내리면 예수를 위하여 천사들이 손으로 예수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뛰어 내리게 유혹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사단이 유혹을 하여 나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 한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사탄은 나를 재물로써 유혹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유혹하였던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없더라도 가족들은 그 보험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유혹하였던 것이다. 내가 죽으면 2억이란 부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 이런 생각이 잘못이란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 내가 죽어 없어지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겠냐고 되묻고 계셨다. 진정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되묻고 계셨다. 내가 죽고 없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동건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는지를 되묻고 계셨다. 돈만 있으면 예지가, 은수가, 부모님, 형제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계셨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내가 죽으면 2억이란 부채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묻고 계셨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설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2억이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셨다. 그렇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흘린 피 값을 지불하고 산 귀한 생명을 내가 내 것인 양 함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꿈쩍달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귀가 어두워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 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6:9~10)

그런 나를 동건이, 아버지를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이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동건이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를 토하게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두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다. 내 속에 있는 치부를 보면 볼수록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흘러내리는 눈물과 콧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빠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겔33:11)

저녁에 은행에서 200만원을 찾아 다친 친구 집에 은수, 동건이 하고 함께 갔다. 다친 친구와 부모님이 함께 있었다. 그 친구는 전에 우리 집에서 가끔 놀러 와서 동건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다. 부모님과 그 친구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다.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그 부모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다. 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200만원 드리겠다고 했다. 차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선 저희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부모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지금 들어간 치료비만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치료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란 생각에 그냥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 왔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다**

2010.11.17.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후 정신없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다. 새벽 2시에 깨어 아침 출근 전까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였다. 틈만 나면 성경을 붙들고 살았다. 매일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통곡하였다. 말씀 묵상할 때도, 주님께 찬송을 올릴 때도, 기도할 때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내렸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 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가고 있었다. 남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경을 붙들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마치 철쭉 같은 어둠이 깔려 있던 곳에 천둥번개가 멎고 비바람도 잠잠해지면서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땅 아래로 내려 비치는 것 같았다. 비온 뒤에 맛보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푸른 하늘 위를 날개 짓을 하며 마치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나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는 듯하였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말씀의 나라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서 날고 있었다.

앞이마와 머릿속에서 바람이 맴돌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감싸 도는 듯했다. 어제 저녁, 처음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불어온 같은 바람이 온몸을 감싸 돌면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도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마6:19~34)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보물, 즉 돈, 명예, 권력욕 등 세상적인 것이 내 보물이었다. 내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그 돈이 주는 권세에 맛이 들려 살아 왔던 것이다. 한순간에 사라질 그것을 좇아 살아 온 것이다. 이것이면 모든 행복이 주어지는 줄 알고, 참 기쁨과 만족이 오는 줄 알고 좇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 어떠했는가? 돈 뿐이겠는가?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보물이 돈 뿐이었겠는가? 아니다. 돈 말고도 명예, 권력욕, 섹스욕 등 많은 것이 지금까지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쫓아 가면 갈수록 항상 내 주변을 맴돌 뿐 잡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 손에 잡은 것 같아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그것은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였다. 진정으로 내게 기쁨은 주지 못했다.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을 내 인생의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 왔던 것이다.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신세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내게 가장 필요한 보물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물이요 기쁨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 비록 내가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백이요, 보호자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지금 이 짧은 순간이 내게 가장 길고 큰 기쁨이요 보람이다. 내 마음이 편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한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다. 아내와 만나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하였다. 그것이 서러워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인 것이다. 기댈 백그라운드도, 지위도 없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것이 내게 힘이고, 그것이 내게 위안이 되는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내게 위안이 되는 것도, 힘이 되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물론 작은 위안과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나처럼 세상적인 것을 탐하다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님을 알았다. 돈이 많다고 항상 기쁘고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명



예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엔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돈, 지위, 명예, 섹스, 마약 등 세상적인 것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신기루였다. 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좇아 살아 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좇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 갈 것이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물며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고 말씀하고 계셨다. 그렇다. 지금까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두운 것(세상적인 것)으로 온통 나를 채웠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어두웠겠는가? 그 어두운 마음을 잠깐이면 사라질 세상적인 빛으로 채우려고 했으니 그 빛이 꺼질 때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또 어둠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세상적인 빛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바라본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진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도 그것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었다. 빛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빛이 아닌 찰나의 빛이었던 것이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나는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사라질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찰나의 빛이 어두운 내 마음을 밝히면 좋아하고 그 빛이 사라질 때 다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울해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쉬었던 것이다. 화려해 보이고 빛으로 가득 차 보이는 돈, 명예, 탐욕, 섹스 등 세상적인 것에 심취하여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늪은 한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 헤쳐 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그 늪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느낀 순간에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그 때는 이미 늦는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게 되는 곳이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영원한 빛이시오 생명이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4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9~12)

그 45년 동안,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어두웠겠는가? 진정한 기쁨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 얼마나 목마름이 심했겠는가? 그렇다. 지금까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으니 암울하고 황폐해진 지금의 내 모습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살아 왔던 것이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 왔다. 속이 아려 왔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 보려고 했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4)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재물에만 마음을 두었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정욕만을 위해

기도했음을 회개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갈 때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교회에 나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나를 구속하였던, 나를 지배하였던 귀신이 떠나간다(마12:28).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드리면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되어 그곳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교회 나간 지 16년 되었지만 실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아내 손에 이끌려 나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세상적인 것이 주인이었던 것이다. 설사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는가? 인격적인 성령께서 얼마나 외로워했겠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창2:16~17).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시기를 원하셨다.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대로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시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것이다(창3:1~19).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속성을 가슴에 품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 죄악은 가만히 두면 부패하여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건방지고 교만해지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해지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게 된다(롬1:28~32).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다. 이 추악한 죄악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1:28~32)

주님은 이처럼 일그러져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다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놓고 세상 밖으로 나가 음탕한 짓을 하고 다녔던 것이다. 마치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볼일이 있다면서 그분을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 버린 격이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속에 있던 귀신은 떠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못하여 다시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적인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엡4:13~14)

사자 새끼는 사자지만 장성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 사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포식자의 먹잇감으로 전

락하여 죽을 수도 있다.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의 요새요 방패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있지 않고(삼하22:3),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게 된다면 먹잇감이 없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영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5:8)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나뭇가지다(요15:5).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뭇가지는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버린다(요15:6).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나뭇가지처럼 말라,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여 매일매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엡4:13), 내 몸에서 떠나간 귀신이 내게로 다시 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떠난 귀신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돌아와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12:44~45)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구주로 받아들인 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사단의 유혹에 다시 빠지게 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곤고해진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마26:24)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난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던가? 내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던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의 온갖 악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버려지 같은 나를 위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당신의 품을 떠나 사탄의 굴레에서 살았던 것이다. 헛되고 헛된,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부터 나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와 같고,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돼지와 같은 모습이 지금까지의 진짜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벧후2:20~22). 그렇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 들였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겠다고 하여도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인 것을 다시 바라본 결과, 내게서 떠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와 내 삶이 더욱더 곤고케 된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삶을 돌이켜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21:6~8)

##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다

나는 땅 끝 시골 마을에서 미신과 우상으로 얼룩진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1950년경에 일본으로 밀항하여 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부에 입학할 정도로 삶의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셨다. 비록 불의의 사고로 졸업은 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오르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분이셨다.

한국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는 대학의 전공을 살려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셨지만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셨다. 늘어나는 빚으로 인하여 사업을 접고 서울로 올라와 건축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힘든 일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우리 5남매를 키우신 분이시다. 자식들에게 힘들다는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시며 살아오신 분이시다. 어머니 또한 18세에 시집와서 아버지의 일본 유학 시절과 연속되는 사업 실패 때에도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하신 지극히 한국적인 어머니시다. 하지만 어머니는 갖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셨고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신장 한 개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 받기 전, 어머니는 곁을 하여 나아 보시려고 한 적도 있었다. 지금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너무 아프셔서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던 어머니께서 곁을 하는데 대나무를 잡고 방안을 빙빙 돌아다니는 것이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아마도 그 때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았다.

이처럼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자란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신이라는 존재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아내를 만나면서부터다. 기독교 집안인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교회에 함께 나가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라는 곳에 나갔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 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몸만 교회라는 곳에 나갔던 것이다.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기에 어떤 곳인가 하고 함께 나가 본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 나갔지만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몸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되지도 않았다. 간혹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것은 그냥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 들였던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 설교 말씀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갇힌 교인이었던 것이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겔33:30~33)

1999년 안양 교도소에 근무하던 10월경 7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안양 교도소를 퇴직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아내는 흔쾌히 퇴직을 승낙을 해주었고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내의 배려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음해에 있을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전도사(현재 한마음교회 목사님)였던 큰 처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의 힘을 빌려 합격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쑥스럽고 미안해서, 만약 내년에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나이 34세, 한창 공부할 나이가 아닌지라 마음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해 합격할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던지 아내와 그날 저녁 부둥켜안고 울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지, 처남의 기도 덕분인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에 의해서인지는 그 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여 다음해 3월에 청송교도소로 발령 받고 경북 청송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에 내려 가서 교회를 정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 드렸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 믿음도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시험 전에 전도사였던 큰처남과 했던 ‘합격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술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낸 후 다시 수원 구치소로 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하는 이곳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수원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교회조차 나가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과의 사귄다는 미명하에 술자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지게 됨으로써 차츰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4:10~11)

##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던 어느 날, 큰 처남댁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 때 당시, 목사님은 방학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시어 목회를 하고 계셨다. 하지만 폐가 좋지 못하여 많이 아프신 상태였다. 그 분이 많이 아프다고 전화가 온 것이다. 얼마나 많이 아프셨으면 전화를 했나 싶어 걱정이 되었다. 전화를 받고 아내와 나는 방학동을 향해 출발하였다. 도착하여 집에 들어 간 순간 몹시 당황스럽고 놀랐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말기 암 환자처럼, 가끔 TV에서 나오는 굶주려서 해골만 남은 아프리카 어린아이처럼 뼈만 앙상한 채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렇게 목사님이 아파 누워 계시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 때 그런

생각이 스쳐지나 갔는지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 때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손짓하고 계셨던 것이다. 기쁨을 머리에 이고서 불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적인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8:30)

수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다음 주부터 한마음교회로 나가자고 말했다. 왕복 130km되는 거리지만 뭔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도 그렇게 하자고 말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한발은 교회에, 한발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늬만 교인이지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기도도 할 줄 몰랐다. 토요일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나면 교회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싫은지 온갖 핑계를 대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그 횃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설사 교회에 나가게 되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정죄하는듯하여 교회 나가는 것이 더 싫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4:12)

이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로 인하여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 허구한 날 술 먹고 다니면서 여자에, 노름에 온갖 세상적인 일에 빠져 있었으니 아내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아내 몰래 대출을 하여 흥청망청 돈을 뿌려 대다가 대출 받은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내는 공황 장애까지 오게 되었다. 결혼 당시 월세로 시작한 것이 그 때 당시에는 반듯한 아파트도 분양받아 살고 있었던 때였다. 하지만 나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로 전셋집을 얻어 살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전세로 들어간 집마저 경매 처분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간 집이라 믿고 전세 확정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경매 처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고 결국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길거리로 나 있게 생겼지만 다행히 관사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을 꼬집고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운이 좋지 않아 그런 것뿐이라면서 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23:27~35)

이렇게 온갖 죄를 저지른 나지만 오히려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화만 내는 파렴치한이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잔인하고 못난 사람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아내의 희생과 기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 돌이키라고 신호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을 무렵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 왔다.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피를 한 동이 정도 토해 금방 숨이 넘어 갈 것 같다면서 지금 상계 백병원에 119구급차를 타고 왔다는 것이다. 지금 혼수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고 난 후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부리나케 올라갔다. 병원에 가보니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상태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 피가 기도를 막아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이 보통인데 목사님의 경우엔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고비만 넘기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쪽 폐가 너무 안 좋아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한 고비 넘긴 것을 확인하고 병원 문을 나섰다. 수원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이 깨어 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수술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 한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오신 목사님이 수술을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버티고 계신다는 것이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두신 것인데 이러시면 어떻게 하느냐!” 고 설득하였다. 하지만 한 발짝도 양보를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수술 여부에 관하여 기도해 보자고 하고선 내려왔다. 다음날,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 통화 후 난생 처음으로 작은 방에서 주님께 골방 기도드렸다. 수술이 잘 되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다.

드디어 수술 날자가 잡혔다. 수술 당일 나는 가보지 못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는 혹시 모르니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화하라

는 것이다. 아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고 있었다. 공황 장애가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오후에 휴가를 내고 상계동 백병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목사님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기도하였다. 운전대를 부어 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 눈물, 콧물을 쏟아 가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이 깨어 나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마14:36)

## 내 나중이 더욱 곤고해 지리라

목사님은 차츰 건강을 회복하면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당분간 목회를 쉬면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적인 것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하였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잠21:17)

그 무렵, 미국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시흥에 있던 아파트도 팔리고 약간의 돈에 대한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900대까지 내려가면 나도 주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 900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겠다고 난리들이다. 나도 그 무렵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되었다. 처음엔 하루에 수 백 만원 씩 수익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달콤한 미끼인 줄도 모르고 흥분하면서 더 많은 대출을 하여 투자하기 시작한다. 몇 개월 동안은 수익률이 좋았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 가는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덮이 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만 갔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한 달 이자만 200만 원 정도 내면서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내가 가진 주식 일부가 상장 폐지되자, 그 잃어버린 돈을 만회해 보려고 또 대출을 내서 투자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한 달 이자만 350만원이 넘게 되자 수익은 나지 않고 이자만을 원금에서 까먹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결국 사채 빚까지 손을 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채 빚을 내면서부터 빚 독촉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 생활은 엉망이 되어 갔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다. 온몸이 뭉뭉뭉여 있는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돈하였고 마음은 공허해져 갔고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은 점차 미쳐 가고 있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이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벧후2:20)

## 서원 기도

시험공부를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시기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비록 이것이 목사님과의 약속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서원 기도였던 것이다. 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이다. 이것도 모른 채 내가 열심히 하여 시험에 합격한 줄로만 알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2009년 목사님이 수술을 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목사님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눈물로써 서원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잊고 또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것이다. 이처럼 주님은 내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영적인 귀와 눈이 멀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사탄이 주는 달콤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내게 독약인지, 양약인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길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타고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데도 말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14:12)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하였다면 갇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빨리 이행해야 한다(전5:4; 신23:23). 만약에 서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설사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더디게 이행하면 그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신23: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갇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신 23:21)

하지만 나는 어땠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도 못했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중이라도 순종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서원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마음속에 담아 두지도 않았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된 것이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땐 무시하였던 결과로 말이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

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5:34~37)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깨지고 다리뭉둥이 뿌려져서라도 이렇게 당신 품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사탄의 사슬에 얽매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식이 대박이 터져 많은 돈을 벌었다면 영원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을 것이라면서 사탄이 울아매는 뒷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고 보니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비록 앞이 깜깜하지만 당신의 빛이 내게 비치므로 평안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살아가는지는 알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사탄의 그늘에서 놀아나는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망의 급행열차를 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고 돌이켜서 당신의 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감사하겠나이다. 이제 인도하소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Chapter 02 찾게 하시는 하나님

### 한줄기 빛, 개인 회생

2010. 12. 18.

폭풍 전야 같다. 너무나 고요하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주변 상황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조차 마비되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 저 멀리 보이는 한줄기 빛만을 의지한 채 나아가고 있지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살려 주어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알겠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확신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지는 확신할 수 없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차츰 연체가 늘어만 가고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 문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조금씩 나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고 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있다. 다리엔 힘이 없어 주저앉을 정도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쓰러졌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시69:1~3)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눈만 뜨면 미친 듯이 말씀을 좇아 온지도 벌써 한 달 가량 흘러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 치우고 있었다. 마치 배가 고파 게걸스럽게 먹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책을 먹어 치우고 있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밤을 새워 가며 읽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다. 거의 미쳐 가고 있었다. 굶주려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올린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는지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미친 사자처럼 말씀을 먹게 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당신께 드릴 것은 몸뚱이와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만져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10여 년 전 IMF때 수용자들을 위해 워크아웃 구제팀이 수원 구치소에 온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신용을 회복해 주었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렇지!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지금껏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순간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였다. 신용 회복과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았다. 개인 회생, 워크아웃, 파산 등 모든 관련된 것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직장인인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개인 회생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7:7~8)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이렇게 끔찍 못하게 만드시고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조여 들어오는 2억이란 빚에 대한 중압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제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 빛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 둘씩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땅을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 질서 있게 재창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느낌, 이 만지시는 손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요?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한 손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지금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억이란 빛이 나를 올라미처럼 감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올라미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한 결과 지금 개인 회생이라는 것을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가오니 한발 두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간난 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것처럼 저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의지할 사람도, 돈도, 물질도, 권력도 없었다. 나를 이처럼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듦으로써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 주고 계셨던 것이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24:7)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의지할 곳은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제 당신이 일을 하고자 하였으니 이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용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빚듯이 나를 빚으소서.

당신이 빚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몇 군데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았다. 내일 낮에 통화해 보기로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에 전화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전화했다는 것이다. 한빛 법률사무소였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는지 내게 묻는 것이다. 이에 지금 내가 처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전화상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최근 1년 동안 빚이 많으신 경우엔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정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닌가!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내 경우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순간 앞이 깜깜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7:7-8)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사19:2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당신을 무시한 죄인입니다. 지금껏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탄 권세가 주는 정욕에서 벗어나 당신에게로 가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저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지만 한줄기 빛이신 당신만을 바라보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개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 당신께서 응답하여 주신 개인 회생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지금 믿사옵니다. 저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곤고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당신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제게 필요하옵니다. 제게도 그 같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한빛 법률사무소였다. 나의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면서 일단 사무실로 나와 상담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경우에도 나처럼 주식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고 했다. 비록 그 교도관의 경우엔 나처럼 빚이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으로 휩싸여 있던 내

삶에 한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1:3~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희미한 빛이지만 그래도 한줄기 빛이 비쳐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나보다는 빛의 액수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닥 서광이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길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조건 감사하다고 기도하였다. 지금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 뿐이기 때문에 한 가닥 가능성만 있어도 주님을 의지해 보기로 했다. 아니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 보기로 했다.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살려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임에 틀림없었다. 반드시 살려 주셨으니 길도 열어 주시리라 믿고 가 보기로 했다.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였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로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4)

## 사람을 붙여 주시는 하나님

2010. 12. 21.

마음이 곤고하여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한 사람을 내게 붙여 주셨다. 지치고 쓰러질 때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려고 한 사람을 붙여 주신 것이다. 수용자들에게, 직원들에게 문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돈명 집사님이다. 아무에게도 내 사정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내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된 책을 공급해 주시고 계셨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 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 집사님이 처음으로 내게 보내 주신 책은 멀린 캐로더스(군목)가 저술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이란 책이었다.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책이다. 힘이 들 때도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라는 내용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자신을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 단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내용이다.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최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도 기댈 힘조차 없는 내게 당신의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써 나에게 힘을 붙여 넣어 주고 위로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30)

## 필요를 알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2010. 12. 23.

한빛 법률사무소에서 한통의 문자가 왔다.

“행복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해 하는 사람입니다”

문자를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각종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만을 남겨 두고 있었다. 눈이 몹시 피로했다. 서류를 준비하면 서도 혹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안절부절못하는 내 모습,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 왔다. 언제쯤 온전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마음 속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죄란 죄는 모두 저질러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한 달 전에 동건이와 친구가 장난치다가 친구의 앞니 3대가 나간 일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와 초진 차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과에 전화를 해서 퇴근 후 찾으러 가겠으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사무소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인데 오늘은 나갈 수 없고 월요일에 조퇴하고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이창용 주임이 나한테 우체국에 등기 부치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체국에 등기

부치러 가면 정식으로 출장이 허가되어 근무시간에도 외출이 가능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 입가엔 기쁨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 채워 주신 것이다. 우체국에 등기를 부치고 오는 길에 동사무소에 잠깐 들러 서류를 발급받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어 붙들고 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 또 다른 나와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6:31~32)

약속을 지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2010. 12. 28.

새벽에 꿈을 꾸었다. 꿈에 예지가 놀다가 무릎을 다쳐 그 부위가 아물면서 딱지가 저 있었다. 예지는 그 딱지가 가려웠는지 손톱으로 계속 끌고 있었다. 조금 후에는 예지가 책상 서랍에 있던 연필 깎는 카트 칼로 그 무릎의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 아닌가. 시퍼런 칼날로 무릎을 도려내는데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살 속에 있는 뼈까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났다. 그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온 몸에선 소름이 돋고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 왔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이 꿈은 무슨 꿈인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가슴 저리고 아픈 꿈을 꾸게 하시는지요?

그때 시간이 새벽 6시30분경이었다.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거실에서 자던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이 시간에 특별히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곳은 아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안산 유통상가 관리사무소였다. 배수관이 터져 아내 사무실 쪽으로 계속해서 역류하여 사무실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에 불길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곧 전화가 와 물난리가 났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 지난 11월,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위험하다며 돌아오라고 동건, 아버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 혹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자, 이번에는 꿈과 물난리를 통하여 일깨워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혹시 내가 어떤 무슨 잘못이라

도 저질러지 않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뿔사!

어제 과장님 인사 발령이 나서 환송식을 해 드렸다. 그 때, 술을 딱 한 잔 한 적 있다. 인사이동으로 ○○교도소로 발령이 나신 한 과장님과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술자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과장님이 마지막 가는 자리에서 내가 술을 먹지 않고 있자 조금은 서운했던 모양이었다. 술 한 잔을 주면서 마시라는 것이다. 도리 상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받아먹은 적이 있었다.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부터 술을 끊겠다고 주님과 약속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이런 일로 나에게 경고를 주신 것일까? 그렇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딱 한 잔의 술도 술인 만큼 약속을 지키시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 이제부터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나보고 지키시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셨던 것이다. 옛날에는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챙기시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30:2)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과장님 환송식이라서 제가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술을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딱 한잔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제는 당신과의 약속은 지키라고 주는 경고이신가요? 그런가요?

난 조금 먹으면 관찮을 거라 생각하고 먹은 건데 만약 이마저도 약속을 어겼다고 내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사소한 것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이지 않는가! 그 약속을 지키시라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

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눅12:7)

새벽에 아내를 태워다 주면서 꿈 이야기와 하나님께 술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회식 모임에서 그 약속을 어기고 술 한 잔 먹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다. 꿈에서 예지가 카트 칼로 자기 무릎을 도려내는 꿈과 사무실이 물바다가 된 것도 나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의 소리 같다고 말해 주었다.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바구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살려 내시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환란과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불순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는 죄의 늪에 빠져 드는 일이 없도록 붙들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인도하여 주신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기쁨이 샘솟았다. 평안이 몰려오고 있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그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빛장을 꺾으셨음이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시 107:16~21)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예지가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무릎을 도려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아내 사무실이 물난리가 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것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한 과장님께 도리라고 생각하고 한 잔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괘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술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은수 사무실에 물이 새어도, 예지가 다치는 꿈을 꿔어도 기분 나쁘거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빚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수, 동건, 예지에게 이 빚 문제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실을 고백했을 때 그들이 충격을 받지 않고 온전히 받아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산에 도착하여 아내가 운영하는 기프트마을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정말 대단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도관 파이프가 터져 온통 물바다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물이 다른 사무실에는 안 들어가고 기프트마을 사무실로만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곳에 있던 관리실 직원들도 이상하다고만 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차서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사무실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밖으로 집어내는 것을 보고선 나는 회사 출근 때문에 수원으로 되돌아 왔다.

출근 후 오후에 유용원 목사님께 전화 드렸다. 요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전화를 드린 것이다. 오늘 저녁 어떠시냐고? 시간되시면 교회로 찾아뵙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시간 괜찮으니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녁에 찾아뵙기로 했다.

## 하나님 아버지

최근 한 달 동안 제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목사님과 의논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수, 동건, 예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유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다

퇴근 후 한승교회 유용원 목사님을 찾아가 신앙 상담을 받았다. 현재 수원 구치소 기독교분과위원장으로 수용자의 교정 사역(교도소,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갇힌 수용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분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 도착하여 전화를 드렸더니 목양실에 있으니

올라오라 하신다. 아늑한 교회 한편에 목양실 툇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자리에 앉아 기도한 후, 한 달 가까이 내게 일어난 영적 체험 등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한 달 전 자살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아들, 아버지를 통해 나를 깨우치시고 회심하게 한 애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 드렸다.

유 목사님께서서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잘 오셨다면서 “김 주임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다” 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나와 이렇게 상담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이런 환상은 아무 때나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보여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김 주임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하신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김 주임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 주셨는데 김 주임이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자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다” 는 것이다. “김 주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스스로 당신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그 계획하신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모든 물질을 빼앗아 가셨다” 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땐 김 주임님을 통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룰 것” 이라고 하신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4:14)

동건이를 통해서 보여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려고 동건이를 통해 신호를 보내 주셨다는 것이다. 육적인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하면 눈물로써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 방황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 하셨겠냐 면서 동건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알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토하신 것은 내가 방황하고 자살하려고 몸을 확대하려 하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아파하고 토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방황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를 통해 신호를 보내 주신 거라고 한다. 소름이 돋았다. 나와 상담하는 환상을 보셨다는 것과 이번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란 말에 무섭고 두려웠다.

하나님은 내가 교정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다. 교정 선교의 경우엔 일반 사역자의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10%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복귀과에 근무하는 김 주임과 같은 직원들의 경우엔 모든 역량 동원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일하게 하시려고 그곳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나는 기질적으로 주위의 모든 역량을 십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교정 사역을 담당하게 하실 작정이라는 것이다. 목사님이 사회복귀과 사무실에 방문할 때마다 한쪽에서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왜 저렇게 있을까 싶어, 평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애길 말씀드렸다. 아내 몰래 주식을 하다 약 2억 원의 빚을 졌는데 이 사실을 언제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또 말했을 때에 아내, 동건, 예지가 충격을 받지 않고 평온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서는 아내에게 현재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힘내라고 하셨다. 두 시간 정도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2:17)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고 보잘 것 없는 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어떤 곳,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오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내일 한빛 법률사무소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개인 회생이 받아 들여져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곳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한빛 법률사무소에 다녀오다

2010.12.29.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서초동 한빛 법률사무소에 다녀왔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니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사무실로 향했다.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인지 정신이 없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다. 차를 주차시키고 사무장과 통화하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였더니 한 여자가

내게 인사를 했다. 그 분이 한빛법률 최○○ 사무장이었다. 나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 주면서 나를 상담실로 인도했다. 커피를 한잔 주면서 내가 가지고 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부채가 너무 많다고 고개를 설래 설래 흔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았다. 최근 1년 동안 빚이 너무 많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 회생, 개시 결정에 중요한 것은 최근 1년 동안의 채무 현황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재판부에서 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부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많은 채무를 어떻게 소명한단 말인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 막대한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인가? 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 일이었다. 또 몇 년 전에 누나에게 5천만 원을 꾸서 일부 빚을 청산한 적이 있는데 가족과의 돈거래는 재판부에서 인정 안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5천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으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인가 싶어 힘이 빠졌다.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왔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맥이 확 빠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한 이상 이곳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갈 수 밖에 없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가 보기로 마음 먹고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오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빠져 나왔다.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하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잠시 멈춰 계단 중간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저 하늘처럼 모든 것이 쾌청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전히 마음이 쓰리고 아파왔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힘을 내서 차 세워둔 주차장을 향하여 내려갔다. 수원으로 내려오면서 주님께 기도드렸다. 도와 달라고, 반드시 길을 열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와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 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인 회생을 생각나게 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빛 법률 사무실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내려오는데 딸 예지에게 문자가 왔다.

“아빠, 우린 스키장 안가요? 가고 싶은데……. 진주 네는 제주도 놀러 갔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왔다.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었다. 아빠가 현재 힘들어하는걸 아직 모르는 우리 예쁜 예지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뿐이었다.

‘사랑하는 예지야! 미안하구나. 이 아빠가 지금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상태란다. 몸도 마음도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 아빠가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다면 그 때 가자구나.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면 그때 우리 예지 가고 싶은데 가자구나. 정말 미안하다. 예지야.’

차를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못한 아빠 만나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저려 왔다. 못한 아빠로 인하여 함께 그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려 왔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지가 스키장 가고 싶다고 합니다.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못한 아빠로 인하여 마음 상처 받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만난 작은 예수

복음성가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 하고 계시는 김석균 전도사님이 쓰신 『내가 만난 작은 예수』란 책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었다. 그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잠깐 소개할까 한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28세의 아름다운 자매 이야기이다. 말 한마디 하려면 입술을 여러 번 움직여야 하고, 한 발짝을 걸으려면 온 몸을 비틀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 자매가 김석균 전도사님 앞으로 보내 온 내용 중의 한 대목이다.

그 자매님의 아버지는 매일 같이 매를 때린다고 한다. 병신이라고 때리고, 하루 빨리 죽으라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기도한다고 때리고, 재수 없다고 때리고, 또 목을 조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이 매 맞음 속에서, 이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무리 큰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통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님의 십자가 아픔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할 그녀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쏟아져 나온

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성공했고, 유식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 은혜 때문이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남들이 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보다 내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목 졸림을 당해도, 이 육체가 짓밟혀도, 내 부모가 던져 주시는 찬밥 한 덩이가 더 귀한 것은 이 땅위에 내 부모 내 형제가 살아 있어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다.

이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부모, 형제자매를 섬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인 것 같아 보였다. 자신을 때리고 확대하던 부모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자신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싫던 좋던 간에 가족이라는 것은 한 몸인 것이다.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고통을 받으면 그 지체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 어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그 한 지체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가 기쁜 일인 것이다. 이 진리를 이 자매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매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채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신저로 파송시키신 것 같았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12:25~27)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 (벧전2:23~25)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말 한마디 하려면 입술을 여러 번 움직여야 하고, 한 발짝을 걸으려면 온 몸을 비틀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매를 생각할 때 나는 초라해지고 있었다. 육신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던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네들,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품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네들, 이 자매를 통하여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확대하고 때리는 그 가정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자매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 한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한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입술을 여러 번 움직여야 하고, 한 발짝을 움직이려고 하면 온 몸을 비틀어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대소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비록 엄마, 아빠에게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매일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런 모습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맑고 맑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사 같은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가장 신령한 복으로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이 아름다운 한 영혼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선하신 일을 함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저 자매처럼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당신의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세상의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의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도 바칠 수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인도하는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아내의 간증

오늘 아내에게 간증을 들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때를 따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010. 12. 28. 간증일기 생각나실 겁니다. 전날 한 과장님이 ○○교도소로 발령이 나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술을 먹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날 저녁에 술을 딱 한잔 먹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꿈에서 예지가 카트 칼로 예지 무릎을 긋는 꿈을 꾸고선 바로 일어나 하나님께 “왜 이런 끔찍한 꿈을 꾸게 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때 아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직원이 전화하여 수도관이 터져 사무실이 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야할 것을 다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내가 간증해 주는 것이다. 그 때 당시 사무실 바닥에 물이 발목까지 찰 정도였는데 사무실에 있던 상품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닥 장판만 물로 인하여 다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모든 비용과 피해 본 상품 일체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바닥 공사를 새롭게 하면서 낡았던 전기 배선까지 모두 새롭게 교체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해 준 것이다.

원래 사무실 바닥 장판은 오래 된 것이라 새롭게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전기 배선도 낡아 화재의 우려도 있었던 것이다. 어차피 새롭게 공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돈을 들이지 않고 새롭게 교체 해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내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삼상12:16)

주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릴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 일을 내게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나를 동참시키시려고 불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따라 오기만 하라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다. 한 번 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으라고 오늘도 아내의 간증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

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1~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빈 강통처럼 존재감 없는 저를,

놓으면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빈 곳에 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담아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동참시켜 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나를 지명하여 불러 주셔서

물을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가슴이 떨리어 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인생 살겠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채권자들과의 전투가 시작될 듯합니다. 죄에서 저를 가려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멀린 캐로더스(군목)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를 두 번째 읽기 시작하였다. 살아가다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더 나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23:10~17)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이지만 이 또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계 상황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어둠

의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는 하였지만, 그 어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을 막지는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옴의 고백처럼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휘감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소망을 믿고 항상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고난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이겨 나가겠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의 거짓과 가식적인 허물을 벗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는 거짓의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담대히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싶었다.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에 총무과 인사 담당 김홍일 주임께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개인 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신분상의 변화는 없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신분상 변화는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물었다. 그런 내 물음에 김 주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개인 회생 신청했다고 해서 인사상, 신분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가 이런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물었다면서 걱정까지 주었다. 가식적인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니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거짓으로 내 인생을 포장하고 살아 왔는지 옛날의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이 과장님 부임 환영식을 하였다. 오늘은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회식 장소로 향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하여 소주잔에 술을 채워 건배를 하고 원샷을 김 계장님이 주문하는 것이다. 모두 술을 마시고 머리 위에다 먹은 잔을 거꾸로 세우고는 털었다. 술을 다 먹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일종의 확인 작업인 것이다. 모두들 머리에 올려 원샷 확인 작업을 하는데 나는 먹지 못하고 잔을 내려놓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원샷 작업을 하지 않은 나를 보고 김 계장님이 지금 뭐하는 거냐면서 먹으라고 구박한다. 하지만 이제 술을 끊었다고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한다고 했다. 대신 사이다로 대신 원샷 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나를 보고 김 계장이 또 구박했다. 조금 서글퍼졌지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김 계장님을 미워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말이다. 다만 김 계장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어 다시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좋겠다고 기도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5:44~45)

다행히 아무 문제없이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하던 때의 모습보다 이제 한 잔의 술도 먹지 않고, 끝난 후에 직원들을 위해 운전대를 잡아 줄 수 있는 것도 내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직원들은 2차 하러 가고 일부 직원들은 내가 운전하여 데려다 주고 회식을 마무리하였다.

김 계장님 술 먹는 모습을 보면 옛날 내가 술을 먹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술자리를 하면 천천히 술을 음미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어야 하는데 너무 급히 마신다는 것이다. 그것도 안주를 먹지 않고 술만을 계속해서 먹는 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데 유독 나와

김 계장님처럼 먹는 사람들은 그날 저녁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명, 테이프가 끊기는 현상, 즉 블랙아웃 현상(Blackout,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술을 먹을 때 분위기 메이커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술로 인하여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누군가 옆에서 집에까지 내려다주지 않으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한참 술을 잘 먹던 시절에는 새벽 5시까지 먹고 바로 출근해도 건강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차츰 전날 술 먹었던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날 함께 술 먹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런 곳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곤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다른 직원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간다고 술집을 나왔는데 술이 깨고 보니 ○○파 조직 폭력배 5명과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집으로 간다고 간 내가 어떻게 그곳 인계동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정신이 들어 보니까 건장한 청년들 5명에 둘러싸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다. 정신을 차렸더니 내 핸드폰을 그들이 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교도관이라고 그들에게 말한 모양이다. 내가 그들의 두목을 알고 있다고 말한 모양이다. 그 중 한사람이 당신이 교도관이냐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선 핸드폰을 달라고 하고선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창용 주임께 전화를 했다. 이 친구가 ○○파 두목과는 어릴 적 친구였기 때문에 ○○파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직원이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 주임 생각이 났던 것이다. 이 주임과 통화를 하고 그들에게 바꾸어 주었다. 잠시 후 휴대폰을 내게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교도관이 아니었다면 어디로 데려가 물어 버리려고 했다”면서 이렇게 먹을 거면 술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이처럼 술로 인해 기억이 끊긴 사람은 그 끊긴 상태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또 어떤 일이 그에게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아내가 걱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혹시 한 겨울에 길거리에 쓰러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게 될까 봐 항상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술로 인한 많은 악영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김 계장님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술을 끊거나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다.

그 이후 매일 같이 김 계장님이 술을 조금 먹거나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김 계장님이 전날 술을 먹고 출근하였는데 아직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면서 속이 많이 아프다고 끙끙 앓고 있었다.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다. 제발 술 좀 끊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보았다. 조금 후 보안과에서 전화가 왔다. 이곳에 수용된 수용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사회적 처우 업무를 맡고 있었던 김 계장님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술도 덜 갠 상태라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다. 수용자를 연출해 와서 상담을 하고,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장례식장, 발인일시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결재 서류를 준비하여 소장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일은 이 때부터 일어났다. 소장실로 올라갔다 오신 김 계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것이다. 원가에 한대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공황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어제 먹은 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김 계장님께 물어 보았다. “계장님, 무슨 일 있나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어제 먹은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쉬세요!” 라고 말했더니 김 계장이 술 때문이긴 한데 어제 먹은 술이 덜 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실에 올라가서 한방 먹고 왔다는 것이다. 귀휴(수용자 가족 중 누가 돌아가시면 일정 기간 집에 다녀오게 하는 사회적 처우의 일종) 때문에 소장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난 것이다. 술 냄새를 맡은 소장님이 10분 동안 세워 놓고 혼을 내더라는 것이다. “술을 먹었으면 휴가를 내던지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셔야지, 이렇게 입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수용자들과 대면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엄청 나무라셨다는 것이다. 마음 같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10분 동안 혼쫓이 나고 내려 와서는 앞으로는 술 먹는 것을 자제해야겠다는 말이 김 계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평소 술 먹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그 사람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기 시작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거의 매일 술 먹자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술을 먹자고 나서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회식 자리에서도 다음 날 근무 때문에

술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 계장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쾌재를 불렀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 났다. 다른 사람들은 김 계장이 왜 술 먹는 것을 겁을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왜 그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였다. 놀라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 술을 끊게 하거나 자제하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한 것이 소장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술을 먹는 것을 겁내고 몸을 사리는 사람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절로 머리가 숙여 진다. 앞으로 완전히 술을 끊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요15:16~2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라면 묵묵히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힘이 부칠 때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힘이 나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완수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살아온 나였습니다. 지난 시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많은 이에게 전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세상이 썩어 가는데 일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술 끊겠다고 약속한 것, 지켰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작은 약속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귀하고 큰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비록 작은 결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큰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난 소금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금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듯이, 소금이 없다면 부패하게 되듯이 저도 이 땅의 소금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막상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오는 그 때에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다시는 세상에 내버려져 밟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커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켜진 등불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 빛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당신의 등불이 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소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최 집사님

2011.01.04.

아침에 최 집사님이 책 3권과 이곳에서 출소한 어느 여인에게서 온 편지를 갖고 오셨다. 이곳 구치소에서 출소한 여자인데 안산에 있는 고시텔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날 형편이라는 것이다. 한겨울이라 이곳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 된다면 무슨 좋은 방도가 없는지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지금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다시 범죄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 번하다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다.

사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린 전과자들도 사람인지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사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도 처음부터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출소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자기와 이해타산이 맞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세상인심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세상에서 밀려 나고 정착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밀려 난 이

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범죄일 수밖에 없다. 하루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의 치료비를 위해서라도 이들은 어느 집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 집이 바로 내 집일 수도 있고 바로 내 형제의 집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밀려나서 이성을 잃은 이들은 또 다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독한 마음을 쏟아 낼 것이다. 그 독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범죄인 것이다. 절도, 강도, 강간, 납치, 폭력, 묻지마 살인 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만 잘 되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람들, 이들 모두를 향하여 칼을 들이댈 것이다. 이들을 세상 속으로 품어 주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왜 범죄를 선택하느냐고? 왜 노력은 해보지 않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뭐든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출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의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출소하여 열심히 살려고 온갖 것을 해보고 노력해 보아도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까? 십중팔구는 왕따를 시킬 것이요, 외면할 것이다.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그들을 꺼릴 것이다.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게 되면 그들이 갈 곳은, 그들이 설 곳은 어디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다시 자기들을 반겨 주는 곳으로, 즉 범죄자들의 소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을 반겨 주는 곳이 범죄자들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또다시 그들을 외면한 세상을 향해서 칼을 들이 댈 것이다.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이곳을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오히려 이곳 구치소, 교도소 안이 더 편하다면서 말이다.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해야 하지만 이곳 교정 시설(교도

소, 구치소)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탕 하다 잡히면 이곳에 들어오고, 아니면 그 한탕 한 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대다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포용하고 정착하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세상의 험난한 곳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도와주어야 결국에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을 방치해 버린다면, 이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내게로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다시 내게로 떨어지듯이 결국 우리가 저들을 외면할 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그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포용해 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어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며, 우리의 진심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출소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출소자를 돕고 있는 한 남자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전과자였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이곳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도 이들과 같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의 악으로 버림받은 몸이었지만 왜 자신이 다시 범법자의 길을 되풀이하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출소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전과자는 온전히 사회에 정착하기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공장에서, 유흥업소에서, 길거리에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보았지만 경쟁의 사회에서 한 가장으로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열심히 생활하더라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더라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해도 사회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범죄자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5년 전에 출소하던 날, 어느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출소 후 자신이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그는 이제는 옛날의 자

신처럼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곳 교정 시설에 수용된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처럼 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어 세상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정 사역을 위해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몇몇이 모여 현재 교정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송에 있는 교도소를 비롯한 몇 개 교정 시설에 직접 들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자매결연 맺어 격려해 주고, 출소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인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과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지도록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심과 헌신과 사랑이 아닐까 싶다. 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을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품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도 내 지체라고 생각하고 돌봐 주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바라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일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12:12~26)

이처럼 그 여인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최 집사님은 보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지 않아 내게 찾아온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출소자들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다시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어 답답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주님도 이들을 보시고는 많이 아파하실 것이다. 그 순간 김순이 사무국장이 떠올랐다. 교정협의회 사무국장이신 김순이 위원이면 이 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란 생각이 들었다. 평소 오갈 때 없는 출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집에서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재워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최 주임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김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를 받고 사정을 들은 김 국장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시는 것이다. 그 여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국장님에게 직접 전화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면 정착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데리고 있겠다는 것이다. 최 집사님에게 국장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저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 받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엾은 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만져 주라고 저를 부르신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출소자들과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저를 선택하셨는지요? 그래서 지난 45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던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회에 출소하여 다시 쉽게 세상적인 것에 굴복하는 것을 볼 땐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진정 그들을 영적으로 영글게 하고 싶다면 출소자를 위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온전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될 때까지라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해 줄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셨다.

## 최 집사님의 신앙 간증

내게 최 집사님이 신앙 간증을 해주셨다. 4년 전 오빠가 쓰러지고 자신도 뇌쪽에 병이 생겨 병원에서 진찰할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명이 나왔다고 한다. 그냥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것이다. 남편을 비롯한 모든 여건이 최 집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병까지 주시자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일었다고 한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쳐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까지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수술을 거부하고 한방병원에서 한방 치료를 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화병으로 인하여 생긴 병이라면서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다. 이후 병원에서 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병을 다스리던 그 무렵 내적 치유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 세미나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경책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차츰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열등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열등감도 죄란 걸 알고 차츰 치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곳에 수용된 그들을 달리 보게 되었다고 한다.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범죄를 짓고 왜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부터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저들이 무지하여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을 자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집사님은 저들을 인도해 줘야 할 사람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자신에게 이런 병을 주신 것도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교만하여 오로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가족만을 바라보고 살아 온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일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죄악 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저들을 교정교화 시켜야 할 교도관의 신분을 가진 자신조차도 이곳 교정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을 멸시하고 닭장의 닭 보듯이 한걸음 떨어져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최 주임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돌봐 주어야 할 내 지체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 문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출소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지만 이제는 교도관으로 불러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하신다. 자신이 현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은 곳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1:16)

하나님 아버지

최 집사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위의 모든 물질,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저들이 사회에 출소하여 다시는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 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적인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계교를 알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한빛 법률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키시다

유 목사님께 전화하여 지금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인데 현재 한빛 법률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법률 회사를 선택하여 맡겨야 할지 몰라 기도 중이라고 말하였다.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진작 개인 회생 신청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면서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작년까지 수원 법원에서 개인 회생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시고 작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신 분이 있다고 하셨다. 그 분이라면 내 개인 회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목사님이 전화하여 알아보주시겠다고 하였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만 붙

들고 기도하던 중 개인 회생을 하라고 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를 선택할지 기도하고 있는 나로서는 유 목사님의 이런 말은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기로 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여 개인 회생이라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끝낸 조금 후에 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변호사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회생 전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하는 회생, 워커 아웃, 파산 전문 판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개인 회생에 대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유 목사님과 통화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 주고 계셨다. 한빛 법률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개인 회생이란 것을 알려 주실 때 맨 처음으로 한빛 법률 사무소와 통화하게 하였고, 또 내게 “행복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해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위로의 문자를 보내 준 곳도 한빛 법률이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곳을 통하여 나의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순간 한빛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대로 맡겨 보기로 하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2:9~12)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자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한치 앞을 볼 수는 깜깜한 밤과 같았지만 한줄기 빛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한빛 법률에 전화를 하여 개인 회생을 위임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한 서류와 수임료를 준비하여 한빛 법률 사무소를 향해 갔다.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이 들자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디서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오는지는 몰라도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만이 나의 온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

## Chapter 03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

2011.1.5.

어제는 ○○저축은행 채권 담당자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다. 휴대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한 것이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 채권 담당은 연체되어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회사로 방문한다는 것이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실사 명분으로 온다는 것이다. 상담 후 월급 차압,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저의 죄를 가려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나의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혼자서 무엇이든 하면 될 수 있다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지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허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으니 그 길도 열어 주시라는 믿음이 나에게 한 가닥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눅5:4~6)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힘이 들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라고 하셨다. 그

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이 지고 있으시는 가벼운 멍에를 와서 메라는 것이다. 이 멍에는 그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힘들어지지도 않고 그저 누릴 수 있는 가벼운 멍에라는 것이다. 빛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나로서는 한 가닥 빛과도 같은 말씀이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즉 들어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죄를 지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가려 주어 이 곤고한 상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살후3:3)

아침에 출근하였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온통 채권 담당자가 오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회사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오늘은 안 올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근 무렵에 그 채권 담당자가 회사 정문에 왔다는 연락이 왔다. 할 수 없이 정문으로 나가 그 사람을 데리고 청사 앞 휴게실에서 만났다.

어제부터 오늘 퇴근 시간까지 온통 이 일로 마음을 졸이고 떨렸는데 이게 웬 일인가!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인 것을 그 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 채권 담당자에게서 나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처지를 보고는 측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덩치는 남산만큼 큰 사람이었는데 나를 보더니 나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회사로 추심이 들어 갈 것이라고 한다. 월급과 재산도 차압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지금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인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체되어 있는 이자만 갚아 주면 채권추심도, 재산압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회생하는데 있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채권추심을 하다 이곳 구치소에 들어 온 수형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들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면 인정사정없이 온갖 협박과 공갈을 서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그 채권 추심 담당자의 눈에 뭔가 씩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권자들의 눈을 멀게 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몰랐다. 그 채권 담당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해주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연체된 이자만큼은 갚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다. 할렐루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왕하6:18)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축은행에서 회사로 실사 방문을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많이 긴장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가려 주셔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채권 담당 직원이 퇴근 무렵 회사로 방문하였는데 특별한 말없이 연체금만 갚으면 이의 제기 않겠다고만 하였습니다.

혹 날 힘들게 하지 않을까

혹 협박하여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개인 회생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채권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어 저의 죄를 덮어 주시고 개인 회생 판사들과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어 하루빨리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법률 직원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시어 저의 개인 회생 일을 하는데 조금도 힘이 들지 않게 하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니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난 후 퇴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최 주임님한테 전화가 왔다. 잠시 사무실로 오겠다는 것이다. 퇴근을 미루고 최 주임님을 기다렸다. 조금 후 사무실로 찾아 오셨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고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출소하였던 그 여자를 어제 안산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내가 알려 준 김 국장님 전화번호도 알려 주고 당분간 그곳에 가 있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죽고 싶다면서 자기하고 함께 있자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매달리는 그 여자에게 약간은 당황했다는 것이다. 김 국장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떨겠냐고 권했더니 지금은 안산에 있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소하여 아직 이 험난한 세상에서 혼자 독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녀가 안쓰럽다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지만 현재 앓고 있는 우울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혹시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겁이 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옆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국장 집엔 가기 싫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더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어제 김 국장님의 전화번호 가르쳐 준 것도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 주임님께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자고 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보자고 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 때 순종하자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드리고 돌려보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 하옵소서.

이곳을 출소하여 거친 세상 속으로 내몰려 세상적인 것에 치여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들을 때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불쌍한 저들, 죄를 범하여 이곳에서도 회개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이곳에서 회개하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어도 아직 믿음이 제대로 영글지 못하여 출소하면 또 다시 세상적인 것에 물들고 깨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저들이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나라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 뜻을 깨닫도록 해주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혼자 외로움에 지쳐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불쌍한 영혼이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영혼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쌍한 영혼,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를 가로막고 있던 가식의 벽을 허물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가식을 벗어 버리는 마음이었다. 거짓말과 가식적인 행동은 하면 할수록 늘어만 가서 결국 그 거짓과 가식이란 올가미 때문에 스스로 죽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덩에 치이고 그의 몸은 울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덩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뿔리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향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밀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욥18:5~19)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결국엔 거짓과 가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가식을 벗어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주위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하여 오후에 소장님, 과장님께 개인 회생 신청한 사실을 말씀드렸다. 조금 있으면 월급 차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렸다. 모두 밝은 얼굴인 김 주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했다. 혼자 해결하려고 숨기고, 뭐 잘난 것 있다고, 달랑 있는 자존심 때문에 문을 꺾꺾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주위 사람들에게 벽만을 쌓아 왔는지 정말 한심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속에 있는 것 다 이야기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걸 월 그리 속이고 감추고 했는지 내 자신이 우습기까지 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갈 것이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힘을 내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자! 앞으로 은수, 동건, 예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남아 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3:1)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수, 동건, 예지, 저희 가족들 충격 받지 않도록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교정 사역의 밑그림을 보여주시다

2011.1.7.

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연체 중인 대출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였다. 지금 개인 회생 신청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알겠

다면서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 달라고 했다. 조금 후, 한빛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중으로 서류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한다.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사건 번호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월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차후 법원에서 조정할 것 같다고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위로의 말까지 덧붙여 주었다.

## 하나님 아버지

한빛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 개인 회생이 받아 들여져서 이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최돈명 주임님이 사무실에 다시 오셨다. 그 여자와 통화를 했는데 안산 근처 가까이 여성의 쉼터 같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최주임님은 그런 곳을 모른다면 나보고 알아 봐 달라는 것이다. 안산 시청 등 관계 기관에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안산 시청 사회복지과에 이 여성이 거기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담당 근무자가 전화를 받았다. 내 소개를 하고 이 여성의 딱한 사정에 대해 말해 주었다. 이곳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현재 고시텔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딱한 처지에 처해 있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도와 달라고 하였다. 사정을 들은 사회복지과 직원은 이것저것을 묻더니 그 여성이 갈 만한 곳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23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 성폭력 쉼터, 모자 쉼터의 경우엔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여성처럼 출소한 사람이나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쉼터는 없다는 것이다. 사정은 딱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답변을 듣고는 나도 약간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여성을 위한 쉼터가 주변에 없다니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여성을 구제해 줄 만한 단체가 없다면 이런 딱한 사정에 처한 여성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또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렇다면 혹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민간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엔 남성 쉼터는 다수 있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시설은 거의 없다고 했다. 도움이 못되어 미안하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곳 수용 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이곳에 출소자를 위해 상담을 하러 들어오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전화하여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 화성 시에 있는 ‘여성지원센터’에 전화하여 한순옥 차장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로 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안산 부근에 지낼 만한 쉼터가 있는지 물었다. 이 여성이 쉼 만한 곳은 수도권 내에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출소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지원센터’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곳도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여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 여성이 6개월 전에 출소하였다면 그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주임께 전화하여 안산 시청에 알아본 것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다행히 그 여성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김순이 사무국장 댁과 여성지원센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현재 그 여성의 상태로 봐선 여성지원센터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드렸다. 그 여성에게 전화해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것이다. 잠시 후 최 주임에게 전화가 왔다. 여성지원센터로 가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다. 출소 증명서를 가지고 그곳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알려 주었다. 최 주임이 구치소 민원과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여성을 직접 데려다주겠다는 것이다. 한 차장님께는 내가 미리 전화해서 부탁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라고 했다. 한 차장에게 전화하여 구치소 직원이 그 여성을 데리고 갈 테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는 것이다. 한 차장과 통화 직후 바로 최 주임에게 전화하여 여성지원센터에 전화해 두었으니 조심해서 다녀오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 저녁 9시 넘어서 최 주임께 전화가 왔다. 그 여인을 잘 넘겨주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3:16~17)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나간 출소자들이 힘들어하고 다시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세상의 풍파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혼자 독립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도 아버지께서 만드신 자녀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은수가 울다

최 주임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아내 은수에게 전화가 왔다. 울고 있었다. 집으로 오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냥 울음이 난다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다시 왜 그러는지 물었지만 여전히 그냥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혹시 지금 내 사정을 알고선 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조심해서 집에 오라고 하

고선 전화를 끊었다.

아직도 내 사정을 가족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엄청난 일을 듣고 받을 충격을 생각하여 아직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아보겠다고 알뜰살뜰 살아온 아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일을 시작한 이상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내 기도 제목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가족들에게 내 사정을 말할 적절한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내 사정을 들을 때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되어 버렸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5:14~15)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은수가 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 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따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족들에게 지금의 내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염치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내 처지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 놓으셨으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니 이 곤고함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내 개인 회생을 알게 되어 우는가 싶어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치아가 좋지 못하여 울었다고 한다. 며칠 전 은수가 치과 치료를 받았다. 많이 힘이 들었는지 입술이 뚱뚱 부어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았다. 너무 애처로웠다. 내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2시경 눈이 떠졌다.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 은수가 앓는 소리가 났다. 입술이 너무 아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하다 살아 온 인생인데 또 이렇게 더더욱 힘든 일을 감당하게끔 만들다니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이렇게 아파하는 은수를 위해서 내 손으로 고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내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어 내 손으로 은수를 치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능력을 주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은수의 병이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하고 있는 은수를 위해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앓고 있는 은수의 입술 부위에 손을 대고는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동안 못난 나를 만나 지금껏 고생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대학 다닐 무렵, 학비를 벌기 위하여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후배의 소개로 명동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

다. 후배와 여자친구, 아내와 나, 4명이서 명동의 한 생맥주 집에서 만났다. 맥주를 시켜 놓고 아내를 소개 받은 후 한 잔 하자고 건배를 제의했더니, 아내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내를 제외하고 몇 잔을 주고 받거나 하다, 잠시 후 후배가 자리를 비켜 주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곧장 그곳에서 나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술을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저녁 늦게 헤어졌다.

처음 만난 아내의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환한 얼굴로 내 말에 응해 주는 것이다. 첫 인상이 너무 맘에 들었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라도 받아 두었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 때가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던 무렵이었다. 아내를 만나고 일주일 후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후배에게 일하는 곳을 알려 달라고 하여 전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차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대학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5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때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나의 헛된 생각으로 인하여 차츰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전공이 전기공학과였지만 결국 들어 간 곳이 안양 교도소였다. 그 전까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벌이기도 했지만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없었다. 가진 것이 원래 없었던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9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안양 교도소에 교도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31살에 늦게 들어간 공무원 생활이라 적응도 잘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때 당시 안양 교도소 근무 여건이 너무 힘들어 전직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차츰 쌓여 가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술 먹는 자리가 늘어만 갔고, 술 먹는 자리가 늘어 가면 갈수록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도 차츰 늘어만 갔다. 술로 인하여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도 늘어만 갔다.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과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음은 집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술집으로 향해 가고 있



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롬7: 18~19)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내 나이 34세가 되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자식도 생기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7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무렵 기다리던 자녀도 생기고 다시 한 번 빛이 내 삶에 비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0월 경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아내와 상의를 하고 안양 교도소에 사표를 제출했다. 퇴직 후 바로 다음 해에 있을 7급 공채 시험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 결국 다음해에 합격하게 되었고 2001년 3월에 청송 교도소로 발령이 나 내려가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또다시 술과 세상적인 유혹이 나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진흙탕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5:8)

세상적인 것과 벗어나면서 또 다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망가져 갈 때 아내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내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인내하였다고 한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아내가 내게 고백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밖으로 나돌 때도 혼자서 애들과 눈물과 한숨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보냈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이다.

아내가 지금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아내에게 잘못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다. 지금 아내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갑

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아직도 내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수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내가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아직도 주님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먼저 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파 끄끄 앓고 있던 아내의 신음 소리가 그치면서 편히 잠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5~16)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해 놓고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직도 내가 앉아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모든 일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은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은수가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난 지 20여 년 동안 한 결 같이 내 곁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살아온 은수가 천사 같이 보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은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 많은 죄인이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죄인입니다. 너무나 죄가 커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될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은수와 동건, 예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소원하기 부끄럽사오나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 제게 보내 주신 천사 같은 은수, 동건, 예지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개인 회생이 오늘 재판부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가려 주시고 모든 이해관계인, 재판부가 개인 회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개인 회생이 받아 들여 지도록 하여주시고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빚 지은 몸으로 회개하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빛 법률 직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저의 일을 하는데 있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다

2011.01.08.

집에 도착하니까 예지가 없었다. 이틀 전에 4층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틀 동안 집을 비운 상태였다. 사랑하는 딸 예지를 본지도 며칠 되어서 오늘 따라 많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다. “사랑스런 예지! 아빠가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네! 얼굴 좀 보여 주셈!” 했더니 조금 더 놀다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경에 예지가 또 보고 싶어 전화했다. 그랬더니 통명스런 목소리로 알았다면 바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조금 후 예지가 현관문을 열더니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더니 방문을 잠그고 갑자기 우는 게 아닌가? “예지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어? 사랑스런 예지야 울지마! 무슨 일인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지! 무슨 일?” 하고 물었더니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울먹이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지가 보고 싶어 전화를 두 번째 했을 때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예지 땀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내가 두 번씩이나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하니, 내가 화가 나서 빨리 오라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먹고 조금 더 친구하고 놀고 싶었는데 내가 전화해서 내려왔다면서 우는 것이다. 울고 있는 예지를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다. 화가 나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예지가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한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우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난 며칠 예지를 못 봐서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오라 한 것인데 말이다. 함께 자다가 이틀 동안 함께 자지 못해 많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것인데 말이다. 이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지는 밥 먹다가 내려와서 그게 서운해서 울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예지를 도닥거리며 아빠의 마음을 전달하였더니 그 때서야 울음을 그치는 것이다. 내게로 와서 아빠를 한 번 안아 준다.

조금 후 거실에 잠자리를 깔고 누웠는데도 이런 저런 생각에 눈물이 또 앞을 가렸다. 지난 11월 이후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래서 울고,

저라서 울고, 기뻐서 울고, 서운해서 울고, 지난 45년 동안 흘렸던 눈물의 몇 십 배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데 고마운 아내 은수, 믿음직한 아들 동건, 예쁜 우리 딸 예지는 TV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 내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난 가슴이 많이 아픈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 아빠가 울고 있는 것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지금의 나처럼 슬퍼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나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계속 손짓하며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다닐 때도 나와 눈을 맞추고 교제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울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아버지는 가슴 아파 하셨던 것이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싶어 내게 손짓할 때 나는 그 손짓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돌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방종한 생활을 해 왔던 때도 항상 내 곁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자 가슴이 매여 왔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마음

을 주체할 수가 없어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제가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기 시작하였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회개인 것 같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은수, 동건, 예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 TV를 끈 채…….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24:7)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저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나요?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했는데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는 가슴 아프셨나요? 나를 계속해서 불러 되는데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 가슴 많이 아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품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손짓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절 십자가의 보혈로써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방황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6년 동안 교회에 나가는 무늬만 교인이었던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하면 살아왔던가? 얼마나 많은 가식과 위선으로 남들을 속였던가? 얼마나 많은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울렸던가? 남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나와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만이 옳바르고 나와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교회에 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나갔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 사랑, 사랑 타령을 하면서도 내 마음 속으로는 내 이익만을 생각한 사람이었다. 찬송과 찬양을 듣고 할 때도 내 귀에 좋게 들리기 때문에 들은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과 찬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을 때도 혹시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나 하고 귀를 쫓긋 세우고 내 이익과 관련이 없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이중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금껏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모두에 발을 담그고 살아온 기회주의자였던 것이다. 이런 나를 부르시고 옳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난 듣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길로 되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는 데도 나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믿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14:11~12)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서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나는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을 잃지 않고 잘 관리하였더라면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옳바르게 섬겼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남들은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은 내가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고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참 행복하다. 지금 내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 나고 있다. 비록 물질은 없지만 내 마음은 참 부자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참 축복인 것이

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주님께서 내게 참 평안을 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자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고 기쁨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다. 세상 것을 쫓아 살아 온 지난 45년 보다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축복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길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일 것이다.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나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세상적인 정욕만을 위해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이들도 또한 동일하게 나처럼 부르고 있으시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손짓에 응하지 않고 지난날의 나처럼 불행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저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저를 깨워 주시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 온 저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지요?

지금은 비록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보배를 품은 보석함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기쁨과 평강으로 이미 천국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어찌 갚을 수 있겠지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나처럼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전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지금은 잠행 중

2011.1.10.

최돈명 집사님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김 주임님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달려가는 걸 보니 제 마음이 행복하고 흐뭇합니다. 동역자가 생겨서 좋습니다. 교정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소 책이 참 시기적절하게 저에게 왔네요.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좀 더 상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읽진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유익하네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듯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듯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가르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교정 선교회 회원들을 통하여 수용자 선교와 직원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주님께 육체를 내어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입과 심장이 되어 드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교정 사역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김 주임님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비추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그 책을 통하여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아 가고 있다. 그 책을 통하여 내가 성경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정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 집사님께 감사의 답장을 보내 주었다.

“최 주임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최 주임님께서 보내 주신 책으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기 위해 최 주임을 보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잘 것 없고 죄 많은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흑암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하나님은 내게 품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하나님의 크고 심오한 사랑의 달콤함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맘이 편할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보혈 피로써 씻음 받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한치 앞도 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날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이제 걱정 없답니다. 날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날 살려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내 모든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따르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벰전5:6-9)

최 주임님, 저는 지금 잠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잠행 중입니다. 잠행에서 벗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절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신다는 말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 놓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다는 말씀을 믿고 전진하고 있습니다(히11:6).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신세계를 발견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렵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사45:3)

사랑하는 최 집사님

하나님이 제게 어떤 소명을 주실지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정 선교를 위해 보낸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뜻이 아닌가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주임님도 기도해주십시오. 저희들을 들어 써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최 주임님이 걱정하고 있는 그 여자분. 쉼터에서 다음날 새벽 나갔다고 사무실로 전화 왔습니다. 최 주임님이 마음 많이 아파하실 것 같네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김치진 올림 “

## 필요를 또 채워 주시는 하나님

2011.1.11.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 달 20일까지 연체이자를 입금시켜 달라고 한다. 개인 회생 시작될 때까지 연체이자만이라도 넣어 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20일이면 10일 정도 더 남았는데 독촉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한 것이니 마련해서 넣어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한 것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입금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입금시킬 돈이 당장 없으니 조금은 걱정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만은 해결해 주고 싶은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3~34)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축은행에서 연체 이자 넣어 달라고 독촉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의지할 곳은 당신뿐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인간,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부탁만 하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댈 곳은 하나님 아버지 한분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즉 들어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곤고함에서 제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퇴근 무렵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동건이 앞으로 들어 둔 보험이 있었는데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로 38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 얼마 전에 동건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깨진 이빨 3대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200만원은 우리 통장으로 180만원은 그 친구 부모님의 통장으로 바로 넣어 준다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할렐루야!! 그 전화를 받고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연체 이자 낼 수 있게 때를 따라 채워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금전적으로 궁핍한 이때에 또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에게 이자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내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했더니 어디에 쓸 것인지 묻지도 않고 넣어 주는 것이다. 아직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시145:15~16)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챙겨 주시고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이랑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생활하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렵니다.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 회생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내 죄를 가려 주시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고 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게 해 주시고 한빛 법률사무소 직원들을 인도하여 개인 회생 일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개인 회생, 사건 번호 나오다

2011.1.12.

오늘 개인 회생, 사건 번호가 나왔다. 1월 7일 자로 사건이 접수되어 드디어 사건 번호가 나온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드디어 개인 회생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림의 떡처럼 보였던 것이 이렇게 내 눈 앞에 떡이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1여 년 동안 채무가 많은 사람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를 구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준 것이다.

이처럼 개인 회생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은 구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다. 기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자 다음과 같은 공지 사항을 볼 수 있었다.

### “2011개회925, 회생 위원 김상○”

회생 위원으로 김상○ 사무관이 선정되어 있었다. 혹시 이 회생 위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인 회생이 받아 들여져서 사건 번호가 나왔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기각되지 않고 접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사건에 배당된 회생 위원이 김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저의 갈급한 문제

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급한 저의 소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드렸다. 정말 기분이 좋아 오후에 대법원 사이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사건 번호와 내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들어 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개인 회생 위원이 김상○에서 김주○ 사무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일이다. 하루도 되지 않아서 회생 위원이 바뀌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확인해 보았다. 틀림없이 김상○에서 김주○ 사무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에 회생 위원이 하나님의 사람이길 바란다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신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를 만져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렸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눅1:36~38)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회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제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갑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일 일은 나도 모릅니다. 오늘 일만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 회생 위원과 면담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재판 받을 때 할 말을 주시고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되어 개인 회생이 받아 들어

지도록 해주십시오. 채권자들의 눈을 가려 저의 죄를 덮어 주시고 개인 회생을 하는데 순순히 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이제 절 살려 주셨으니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달려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자살을 고백하게 하다

2011.1.15.

오늘 새벽에 일어나 말씀 묵상과 기도를 끝내고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그 빛을 바라보면서 온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혼돈하고 공허한 내 마음에 빛을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어둠을 한발 두발 함께 걸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어디로 정확하게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언제까지 어둠 속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혼자 어둠 속을 걸어 갈 때보다 내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하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에 앞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이 엄청난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큰 충격받지



않고 평온하게 이 사실을 받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 말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위안을 주고 있다. 또 앞이마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으니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들었다. 예배를 들이는데 새벽에 일었던 바람이 강하게 나를 감싸 돌고 있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은수, 동건, 예지의 기분도 좋아 보였다.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난후 아내, 동건, 예지에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내 입술을 성령께 맡기고 말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2억이란 빛과 자살, 그리고 일련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모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 아내의 얼굴은 원가에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보였다. 동건, 예지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서는 이들을 만져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

동건, 예지에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 왔는지를 알려 주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온 나의 교만과 무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2억이란 빛을 지고 지금 개인 회생을 신청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내 입에서 내뱉는 순간 모두 아연 실색하는 모습이였다. 성령의 인도 하에 입술을 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두를 감싸주고 이해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내, 동건, 예지 모두 힘들어하는 모습이였다. 허탈해 하는 아내의 모습에 미안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울고 있는 동건, 예지가 애처로워 볼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뺨속을 파고들었다. 차에 가서 기

도하기 시작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날 숨기고 있었던 아픔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라 많은 걱정을 하여 당신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손길이 느껴져 인도 하에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와 동건, 예지가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내 뜻을 받아 들어 나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 고비 고비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라도, 한 순간도 당신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여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털어 놓으니 제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저의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 안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한참을 지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모두 자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힘이 들어 자는 척 하는지는 몰라도 편히 눈을 감고 있어 보였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스런 가족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시127:1~2)

다음날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 차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엔 디럭디럭 하더니 시동은 켜지지 않았다. 계속 키를 움직이자 이제는 키의 키익하면서 더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키를 돌려도 아무 반응조차 없었다. 완전히 방전된 것이다. 예전에도 차가 방전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방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가까운 카센터에 가 봤지만 일요일이라 문을 연 곳이 없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 와서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차 시동이 켜지지 않게 하여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겁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 하는 수 없어 10시 30분부터 애들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11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가정 주일 예배 후 아내와 애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어제 내가 고백한 후 뭔가 막혀 있었던 어색한 분위기는 오간데 없고 뭔가 서로 통한다는 듯한, 소통이 된 듯한,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있다는 듯한 마음이 느껴져 왔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족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억이란 빛에 대한 충격은 오간데 없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분명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4~7)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고백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저들입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저의 고백으로 많이 어색하고 힘이 든 저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볼 때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을 벌이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기에 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한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우신 변화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시는지요?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많은 날 동안 주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입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

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섰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만져 주심을 내 눈 앞에서 확인시키시려고 하신 줄 압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게 보여 주시려고 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한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억이란 엄청난 빛 이야기를 듣고도 하룻밤 사이에 빠른 치유를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이렇게 망가진 인생, 물질로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질을 쫓아가던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주시는 물질이 몇 천 배 많다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이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저와 저의 가족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겔34:16)

## 중보 기도를 하다

2011.01.17.

오늘은 자살 예방 상담이 있는 날이다. 박진석 목사님이 오셔서 자살우려자 4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전국 교정 시설에서는 자살충동지수가 높은 수용자(살인, 강간, 사회 저명인사, 장기형 선고자 등)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살 예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상담을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신 것이다.

오늘 나온 4명의 수용자는 모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흉악 사범들이다. 살인, 성폭력, 강도 강간, 마약 등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 중 한명은 술로 인하여 살인을 저질렀고, 또 한명은 돈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끔찍한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고, 또 다른 두 명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폭력, 마약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어떤 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인 사람도 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모양과 반성 정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형태 등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이곳에 나온 수용자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다. 그 한 가지는 자살 충동 지수가 대단히 높아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왜 이런 악한 충동에 사로잡혀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identity,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지? 왜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시기, 살인, 교만, 무정, 무자비한 마음이 솟아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옛날의 나처럼 말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처럼 자살 예방 상담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다.

지금 내가 깨달아 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이들에게 복음의 진실을 알려주고 이들 모두가 죄에서 자유 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자신의 죄

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사57:17~18)

상담이 끝날 무렵에 박 목사님이 수형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나도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옆에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였다. 특별히 마약 사범으로 들어 온 정용상 수용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나도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박 목사님이 그 수용자에게 예수 영접 기도를 마치고 정용상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 주었다. 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수형자의 머리와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곁에서 중보 기도한 후 그 수용자를 보았을 때 그 흐르는 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이마와 머릿속에서 땀이 비 오 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목사님 안수기도가 끝난 후 그 수용자는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것이 자신을 감싸 안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도 기분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져 주셨음에 틀림없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2:38)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2:2~4)

그들에게 성경책 1권씩을 지급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 거실에 돌아가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 성경 속에는 왜 우리가 태어났으며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 간난 아기 때부터 시기, 질투, 남을 미워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다. 거실에 두고 무시(無時)로 읽기 바란다. 혹 읽다 모르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거나 기독교 집회 또는 기독교 교리 지도에 참석하여 목사님에게 묻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의 인도 하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자신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고 두려워하는지? 왜 자신이 죽고 싶다는 충동이 불일 듯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사동으로 올려 보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5~17)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 삶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들 모두는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1월의 나처럼 자살충동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중한 생명을 헌신짝 같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치



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나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린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낸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 11월의 나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쳐 주시고 그 빛을 좇아 따라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두려워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2011.1.18.

새벽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평소와 달리 오늘은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1월 이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앞마에서 바람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느니라.”(시147:18)

마치 머리 전체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머리 전체가 맑아지면서 시원해 졌다.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신도 또렷해 졌다.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막혀 있던 물이 뿜 뚫려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다. 마음속에 있는 묵은 찌꺼기 같은 것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이어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만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까지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 것도 볼 수 없어도, 아무 것도 행할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출근하였더니 총무과 계리팀 김 주임에게 전화가 왔다. ○○크레딧에서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는 판결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월급을 가압류해야 한다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인 회생 신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개인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져 사건 번호가 나왔다면 월급을 가압류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지금까지 개인 회생 사건 번호 없다면 월급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가압류가 되면 지금부터 내게 지급되는 모든 월급이 일단 보류된다는 것이다. 조금은 당황이 되었지만 금세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새벽에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만져 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오늘 월급 가압류 소송 서류가 회사로 날아 올 것을 아시고는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너무 놀

라지 말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나를 만져 주신 것 같았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사41:10~13)

김 주임에게 개인 회생 접수 서류를 갖다 주었다. 지난 1월 7일 개인 회생 사건이 접수가 되어 사건 번호가 나왔다. 만약 그날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만약 사건 번호가 나오기 하루 전에 이런 차압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주임에게 앞으로 이런 월급 차압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니 만약 오면 내게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빛 법률에 전화했다. 최○○ 사무장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랬더니 한빛 사무실로 가압류 서류를 팩스로 보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내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까지 해주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둬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13:19)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인 회생 관련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

시웁소서. 해결해 주시웁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웁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가오니 함께 해주웁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노정수 강도사님께 기도 받다

2011.1.18.

노정수 강도사님을 만나기 위해 퇴근 후 보안과 사무실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의 저자인 노 강도사님은 교도관의 신분으로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며칠 전에 신앙 상담과 기도 요청을 위해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다.

보안과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때마침 사무실에 계셨다. 지금 시간이 되시는지 물었더니 괜찮다면 지금 상담하자고 하셨다. 보안과 사무실 앞에 있는 상담실 도착하여 먼저 기도드린 후 내게 무슨 일인지 물으셨다.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련의 신앙 체험을 말씀드렸다. 교만하고 죄악 덩어리로 살아온 지난 과거와 지난 11월 일어났던 자살 시도 그리고 동건, 아버지, 예지, 아내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과 지금까지 말씀에 붙잡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다. 노 강도사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 돌아 올 것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께서도 많이 아파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가 죽음의 길로 가시자 이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는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라고 하신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렘4:4)

유용원 목사님과 비슷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은 말로 안 되면 쳐서라도, 쳐서 안 되면 목덜미를 잡아끌어서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기도하자고 한다. 반드시 일을 시작하셨으니 피할 길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10:13)

노 강도사님도 새벽마다 날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상담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강도사님과 나,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오는지 기도하는 내내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 강도사님께 찾아가 위로의 말씀과 중보 기도를 받았습니다.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못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보이게 하여 송구합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오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 순종하는 이 마음뿐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식 기도를 시작하다

2011.1.19.

내일 개인 회생 위원과 사전 면담을 하는 날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틀 금식하기로 했다. 성령님께 도와 달라고 이틀 금식 기도를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 회생 인가 결정(개인 회생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져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저녁 한 끼만 먹으며 금식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기로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고 기도해 보기로 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58:6~9)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개인 회생 위원 사전 면담이 있는 날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하루 한 끼만 먹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금식하며 아버지를 부를 때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기도한 즉 받은 줄 알라

2011.1.20.

오늘은 개회 회생 위원과 면담하는 날이다. 법원까지 걸어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카센터에 가서 배터리 충전해서 내 차를 타고 갈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반일 휴가를 내고 나왔다. 어차피 주일에 차를 사용하여야 하니까 차 배터리를 충전해서 갔다 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걸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선 어차피 배터리 충전해야 하는데 오늘 시동이 그냥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기도한 즉 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터라 믿고 기도해 보았던 것이다. 차가 세워진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 앉아 차 키를 돌려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말로 시동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다.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내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내 마음에서는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해 아내, 동건, 예지 모두 차에 탔는데 분명 차 시동이 안 켜졌었다. 처음엔 조금 디럭디럭 하더니 나중에는 반응조차 없었다. 분명 완전히 방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말 차의 시동이 켜

진 것이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3~2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께서 살려주신 배터리 힘으로 개인 회생 위원 면담하러 갑니다. 그곳  
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면담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  
다. 주차장을 출발하여 개인 회생 위원 면담을 위해 법원으로 출발했다. 차는  
전에 자주 다녔던 ○○추어탕 사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주차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면담 장소로 이동하기 편한 곳이다. 그  
곳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오늘은 정기  
휴일’이라는 뜻말이 붙어 있는 것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법원 주차장을 생  
각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차 시동부터 주차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해  
결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다.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서 법원 정문을  
통과하는데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 전쟁이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를 위로 해주고 있  
다는 믿음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났다. 오늘 회생 위원 면담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면서 기도했다. 면담할 때 뭐라 말할지는 성령님께 맡기오니  
알아서 해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했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10:19~20)

수원 지방법원 본관 107호가 면담 장소이다. 이곳 법원은 회사 일로 몇 번 와 봤지만 이런 일로 이곳에 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조금 마음이 묘해졌다. 107호에 갔더니 몇 명이 와 있었다. 옆에는 공익 요원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피곤한 모양이었다. 이곳에 온 사람들 얼굴을 둘러보니, 모두 얼굴빛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모두 걱정 어린 얼굴빛이다. 나처럼 모두 개인 회생 관련하여 온 사람인 것 같았다. 면담 장소 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 오늘 있을 면담자의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곳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김치진, 오후 2시 30분”

오후 2시 30분 시간대에 내 사건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음을 확인하고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생위원 면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곳 법원에 와 있습니다. 상담할 때 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때에 필요한 말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현재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 ○○크레디트에서 월급을 차압하는 결정문이 직장으로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이 저의 사정을 대충 알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알려져도 상관 없지만 그래도 맘은 편치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채권자로부터 계속 월급 차압 결정문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 면담 때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할 겁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맘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중지 명령, 금지 명령만 내려 주신다면 직장 생활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 위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개인 회생이 받아 들여져 새로운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왔다. 뭐가 그리 슬픈지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내렸다. 손수건으로 눈물, 콧물을 닦아도 계속 흘러 내렸다. 내 입에선 ‘존 뉴튼’ 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  
멘” (찬305장)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개인 회생 위원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앞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면담실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10여 분 대기하고 있으니 바로 앞에 들어간 사람이 나왔다. 면담실로 들어갔더니 두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주○ 위원의 명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갔다. 김주○ 위원, 법원 사무관, 나이는 내 또래 정도 돼 보였다. 옆 좌석에도 다른 팀이 면담을 하고 있었다. 위원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회생 위원은 서류를 뒤적이면서 내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구치소 다니는

지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는 곳이 아파트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였다. 세대수가 몇이나 되냐고 묻는다. 60세대라고 말했다. 먼저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어 최근 1년 동안에 대출 건수가 많다면 대출 용도와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한다고 한다. 원금 변상 계획이 60% 정도, 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0%인 260만 원 정도로 변제 금액을 올려야 할 것 같다면 다시 변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아내는 뭐하냐고 물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얼마 안 되고 아내 앞으로 대출이 더 있다고 했다. 아내와 관련해서 소득 증명서, 건강 보험료 납입 증명서, 대출 관련 금융 거래 확인서 등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A4용지 한 장에 보정 권고 명령을 적어 주면서 7일 이내에 서류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한빛 법률사무소에서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을 회생 위원에게 직접 내려 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 김주○ 회생 위원에게 회사로 월급 차압 결정문이 왔는데 중지 명령 좀 내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장 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금지 명령까지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김 위원은 그런 중지 명령, 금지 명령에 대해선 법률 사무소와 협의하라고만 했다. 그래서 재차 법률사무소에서 위원님께 중지 명령,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더니 옆에 있는 개인 회생 위원과 상의를 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다른 개인 회생 위원과 상의 한 후 다른 특별한 말은 하지 않고 7일 이내에 보정 권고 서류 제출하라고만 하고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알았다며 인사하고 나왔다. 밖으로 나오는데 맘이 편치 못했다. 중지 명령,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원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법원을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

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3)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차를 세워 놓은 ○○추어탕에 도착하여 차를 가지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집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박주현 주임이 테니스장 앞에 있는 것이다. 뭐하냐고 물었더니 운동하러 가는 길이라고 한다. 최근 테니스 교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연습하러 왔다는 것이다. 박 주임과 그 가정의 구원도 내 기도 제목 중의 하나이다. 마침 오늘 체험한 일에 대해 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배터리가 방전되었던 차가 시동이 켜진 이야기부터 오늘 법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많은 상급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해 주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박 주임도 어차피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했다. 얼마 전에 박 주임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평소 성격 좋기로 유명한 아내가 요즘 들어 가슴에 통증이 와 걱정이라는 것이다. 많이 아프면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심이 가득하였다. 이런 아내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5:13~20)

지금 아내의 병 낫기를 간구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나로서는 박 주임 아내의 병이 낫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갈 것을 권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 도착하여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법원에도 동행해 주시어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 주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개인 회생 면담 다녀왔습니다. 비록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더욱 큰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힘들겠습니까?

죽음의 밑바닥까지 갔다 온 저인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견딜 수 있겠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1.21.

보정 권고 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할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세무서, 은행, 동사무소 등에 들렀다. 나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인데 오늘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하지 않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오히려 얼굴에 미소까지 보이면서 날 위로해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안산 세무서로 차를 몰고 가는데 왜 이렇게 미안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옆에 앉은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앞만을 보면서 차를 몰아갔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은수를 제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지금까지 고생만 시키고 힘만 들게 한 저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 준 은수를 저의 아내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로, 여자로 힘들게 할 때도 소리 내어 울면서 제 곁에 있어 준 사랑하는 제 아내, 사랑하는 나의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 지치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은수, 동건, 예지만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난 후 아내 사무실로 향했다. 거의 3시간 동안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 다녔지만 한 마디 불평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사무실까지 아래를 내려다주고 나는 곧바로 수원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수첩을 열어 보니 2주 전에 5천원을 주고 샀던 복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산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들어가 번호를 맞추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5만 원짜리가 2개나 당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평소 같으면 기분이 좋아 당장 복권방에 가서 또 다른 복권으로 바꿨겠지만 오늘은 왠지 고민이 되었다. 이것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찢어 버릴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껏 허황된 꿈을 좇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 또 다시 허황된 꿈을 좇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령께 기도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복권을 찢어버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아깝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 찢어버리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복권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컴퓨터에서 수원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제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이 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들어 가 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중지 명령이 나와 있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개인 회생 위원 상담할 때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실은 조금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들어 주셨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3~24)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지 명령이 났습니다. 어제 그렇게도 마음 조렸는데 중지명령이 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한즉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즉 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으로 복권을 찢어 버렸습니다. 찢으면서 20억 원이란 돈을 찢어 버린다는 마음으로 찢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에 찢어 버렸습니다. 자살에서 나를 살려 주시고 처음으로 주신 말씀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권을 찢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신 건가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인가요?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을 내려 달라는 저의 기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서 능력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서 위로해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님께서서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2011.02.07.

오늘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명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 한사람은 술을 먹고 아버지와 다투다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여 이곳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살인한 사람은 평소 소주 2~3병씩 매일 먹었다고 한다. 술을 먹지 않으면 손발이 떨리고 술을 다시 먹으면 그 떨림 증세가 없어진다고 한다.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못사는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술이 술을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자기가 한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쿵하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뭔가가 차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 문을 열고 밖을 나가 보니 사람이 저 멀리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그 순간에도 왜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평소 술만 먹으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런 큰 사고를 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순간 겁이 나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顛末)을 말하는 그 수용자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 내렸다. 자신의 잘못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술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소 나도 술로 인하여 블랙아웃 현상이 자주 일어나곤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온 순간에는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컵을 먹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았다.

또 한사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경우도 술을 먹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에 착실히 나간 교인이었다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 불량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난 후 복수심에 불타 특공 무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 배운 특공 무술로 인하여 자신도 그들처럼 똑같은 일을 벌이면서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공 무술을 배울 당시에는 자신을 때린 친구들을 복수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불량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공 무술을 배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결과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그 배운 무술을 써 먹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보다 힘이 없는 학생들을 보면 괜히 건드리고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배운 술은 자신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평소 말수가 적고 자신감이 부족한 그도 술만 먹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말이 많아지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술만 먹으면 기억도 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더라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번 이곳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다. 모두 술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까지 살인하고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 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사28: 1~8)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술을 먹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유인하여 강간한 조모 수용자의 경우도 술에 취하여 일어난 사건이었고,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모 수용자도 술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김모 수용자는 당시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술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중생이 죽어 있더라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온 많은 수용자들이 술로 인하여 들어온다는 것이다. 술은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지만 도를 넘는 과음은 결국 화를 불러 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도 술이 주는 악한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 바란다. 그리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일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렸으면 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사5: 11~12)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로 인하여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술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은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마신 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게 해 주시고 술로 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갇혀 있는 이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만나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하여 사회에 복귀해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이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최 집사님 힘드시죠! 주님께 맡기세요!

2011.02.08.

최돈명 주임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주임님의 서신이 제게 힘이 됩니다. 요즘 출소자로 인해 제가 마음이 심히 번거로운데 주임님의 위로의 글이 제게 많은 힘이 되어 주네요. 사실 그 여자로 인해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고 마구 달려왔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선교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지조차 혼돈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주임님의 위로가 제게 많은 힘이 되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다. 출소한 여성으로부터 온 전화로 히스테리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 그로 인하여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문서 사역과 전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역경을 슬기롭게 잘 견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

겟다. 메일을 받고 바로 답장을 해주었다.

“최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최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힘이 들고 지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으면 합니다. 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몸서 힘이 든다고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시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30)

최 집사님! 작고 불쌍한 자에게 한 일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여성분에게 하고 계시는 일은 주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일 겁니다. 힘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최 집사님이 보내 주신 책을 통하여 저는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 집사님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감사해 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10:42)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는 나갔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혹시나 복 받지 않을까 하는 욕심으로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후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 살

아 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멀어 내 자신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재물(세상적인 것, 나의 욕구 충족)을 먼저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려드려야 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최 집사님! 주임님도 저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얼마

나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아 왔는지 알고 계시죠? 술 취하고 세상적인 향락과 유혹에 빠져 내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였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은 것은 망가진 몸과 마음밖에 없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저를 손짓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회개하고 울고 있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를 용서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노라면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3:16~18)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방황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탕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 드리면 우리 모두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집사님! 힘들고 지치겠지만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 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치진 올림”

2011.2.9.

다음 날 최 집사님이 답장을 보내왔다.

“주임님의 위로가 고맙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 힘에 겹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항의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정 선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회의까지 일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잘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리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제가 먼저 지쳐 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사람은 처음 상대해 봅니다. 도무지 예의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매달리고 저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힘과 지혜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정 사역이란 수용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안쓰럽기 그지 없다. 힘들어하시는 최 집사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렸다.

“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하나님께 항의까지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포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을 까요! 하지만 힘 내십시오! 지금 최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선 좋아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최 집사를 보시면 정말 흐뭇해하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최 집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



록 내려놓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지칠 때 당신에게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그분께 기댈 때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지금 최 집사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포장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 지쳐 쓰러지려고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에 겨워 포기하고 싶으니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최 집사님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 좀 해 달라고 말하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최 집사님!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 집사님을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 집사님에게 뭔가 큰 일을 펼치시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중보기도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치진 올림 “

## 소장님을 통해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2011.02.24.

오늘 날짜로 사회적 처우 업무(귀휴,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교화 상담 등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관련된 업무)에서 서신 업무로 명(命)이 났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사람

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사회적 처우 업무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할 수 있는 서신 업무를 담당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서신 업무로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소장님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느1:11)

과(課) 내에서의 업무 조정은 통상적으로 해당 과장에게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 조정은 소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소장이 한 부서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서신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이동이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장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서신 업무를 맡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권능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할 때 마다 빠른 시일 안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 좋은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갈급함을 아시고 만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화한 숨소리에 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사람과의 만남에 힘들어 할 때,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한 번 더 체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고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처음으로 내게 맡겨 주신 일

2011.3.10.

K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김주형이 친형 앞으로 보내는 특이 서신이 발견되었다. 서신 검열자로 지정되어 서신 검열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구속되기 전 수술했던 부위가 갑자기 염증이 생겨 의료과에 갔으나, 소독만 해주고 정신과 진료 등 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면 입실(入室)을 거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조사 수용하게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실을 거부한 김주형도 조사 수용되었다. 하지만 김주형은 자신이 받고 있는 조사 수용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형에게 보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니 소장실에 올라가 항의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일단 처우에 불만이 제기된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그 진위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김주형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으로 올라갔다. 혼거 수용되어 있는 주형이를 사동 담당실에 앉혀 놓고 상담을 실시하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입소 전에 성기에다 링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 수술한 부위에서 고름이 나고 너무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 통증으로 인하여 지금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폭의 행동 대원으로 자존심이 강한 김주형의 입장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수감되었기 때문에 혼거실에 함께 있는 것이 엄청 창피했던 것이다. 그래서

혼자 지내고 싶어 독거실 또는 병동 거실로 보내 달라고 담당 직원에게 요구했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입실 거부라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 행위의 정당성 유무를 따지기 전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의료과에 수술 부위에 대한 치료를 부탁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상담 결과를 조사실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조사 시 참조할 것을 부탁했다. 조사 담당 직원은 알았다면서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하였다.

김주형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으로 다시 올라가 의료과에서 수술 부위를 다시 치료해 주겠다는 것과 조사실에서도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말을 전해 주면서 위로해 주었다.

부모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친형과 살아오면서 부모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항상 외톨이었으며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범죄의 길로 발을 들여 놓게 되었고 결국 이곳까지 들어오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파 왔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 수용자처럼 어렵다고 모두가 다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불행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면 누구나 범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수용자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수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 자리에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8:7-9)

사회적 처우 업무에서 서신 팀으로 업무가 바뀌고 난 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게 부탁하신 일 같아 보였다. 내 손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갈 준비

가 되어 있다. 언제, 어디든 요청하면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요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신 팀으로 업무를 옮긴 후 첫 번째로 누군가를 만져 주었습니다.

삶이 고단하여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자이지만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며 사회에서 외면했던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만하고, 추악하고, 외식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버림받아 힘들어하는 저들을 애통해 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하여 잡혀 온 한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마한 잘못만을 들추어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이 수용자처럼 외로움과 가난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뜻대로 되지 못하여 지치고 넘어져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애통해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새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나다**

2011.03.11.

새벽에 일어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였다. 오늘이 법무부 감사받는 마지막 날이다. 아무 지적 없이 감사도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루 빨리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 월급의 거의 전부를 빚으로 5년 동안 갚아야 하지만 그래도 인가결정이 나서 이곳 직장에 다니면서 빚을 청산하고 싶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 무렵에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나의 사건 검색란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을 넣고 검색창을 눌렀다.

### “사건번호 2011개회925”

할렐루야! 2011.03.10. 어제 날짜로 개인 회생 개시결정 공고가 나 있지 않는가! 눈을 비비고 다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분명 어제 날짜로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공고’ 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란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각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각 처리하고 개인 회생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대출이 많아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개시 결정이 난 것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어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롬7:5~6)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파산 절차 또는 화의 절차는 중지되고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중지되거나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서 빚을 독촉하는 일체의 추심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개인 회생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매월 260만원씩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각될 가능성도 높았지만 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인가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살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보잘 것 없고 죄 많은 저지만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에 한 모퉁이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쓰여 지든지 간에 나머지 삶을 바치겠나이다.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인가 결정의 최종 관문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빚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염려하지 않으렵니다. 죽음에서 저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걱정, 염려로 힘들어하지 않으렵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기나긴 터널을 뚫고 저 넓고 새로운 세상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고 목마른 삶이 남아 있지만 건디게 해주시어 당신의 권능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90% 이상은 구제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인 인가결정이 나기까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면 안 될 것이다. 2011.01.07. 개인 회생 서류를 접수하고 2달 만에 개시 결정이 난 것이다. 이제 개인 회생 변제 계획 인가결정만 나면 100% 확정되는 것이다.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2011.03.15.

토요일, 작은 누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사랑하는 내 동생 진아! 너 요즘 너무 힘드나 보구나! 혼자 모든 걸 안고 있으면 너무 힘이 든단다. 혼자 담아 놓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각시랑 상의하려무나. 종이 한 장이라도 맞잡으면 가벼운 법이란다. 누나도 성영 아빠 사기 당했을 때 맨손으로 사채 갚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니? 22년 전 5천만 원은 너무나 큰돈이었단다. 뒤돌아 볼 사이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 오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해결되더구나. 우리 진이도 처음 시작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 바란다. 사랑하는 새끼들 동건, 예지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예쁜 각시도 옆에 있지 않니? 모든 일에 의연히 대처하기 바란다.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 헝클어진 실타래 풀듯이 한 올 한 올 풀기 바란다. 풀어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큰누나 만나서 얘기할 때 금전적이든 뭐든 하나도 남김없이 누나랑 상의해라. 그래야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야.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근본적 뿌리를 내놔야 한다. 서로 힘들지만 좋은 길을 찾아보자꾸나. 길지도 않은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보자꾸나. 열심히 살아보자꾸나. 살면서 힘들면 누나들이랑 상의도 하고 그래라. 능력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동생아 힘내라^^ 화이팅!”

많이 힘이 들 땐 누나와 상의하라고 한다. 힘이 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혼자 감내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하신다.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가족들에게 이 고통을 나눠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누나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가 나를 많이 위로해 주고 있었다. 어떻게 내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내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힘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시68:6)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도 한 줄기 빛이 내 앞에 비춰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위에 형제자매가 힘들어 할 때 내가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가 힘들어 할 때 외면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그들에게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살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대사로서 파견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달콤함에 속아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없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허황된 꿈을 좇아 살아온 저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새롭게 빚어 당신의 선하신 일에 합당하

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03.19.

오늘 큰누님에게 전화가 왔다. 아내와 함께 천동 어린이집으로 올라오라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대형 사고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은 모양이다. 아내와 함께 큰누님이 경영하고 있는 천호동에 위치한 천동 어린이집으로 출발하였다. 누님들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나는 혹시 아내가 말했나 싶어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누님들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님들에게 알렸다면 눈물을 흘린다. 나와 상의하지 않고 말해서 미안하다면서 우는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앞만을 바라보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못난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당했고, 또 현재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당해야 할 아내를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위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불쌍한 은수를 위로해 달라고, 저의 가족 지켜 달라고 기도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은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저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네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큰누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가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동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올라갔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직원들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로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큰누님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손을 잡아 주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잘 왔다면 의자에 앉으라고 하신다. 아내와 나, 그리고 누님이 의자에 앉아 기도하였다. 기도 후 많이 힘들어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 주며 누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대충은 얘기 들어서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듣고 싶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몸들 바를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지난 과거가 된 것이니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다.

누님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로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술, 주식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살, 회개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던 누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내를 먼저 위로해 주셨다.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면서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냐

고 하신다. 주식이 대박이 나서 돈방석에 앉았다면 지금 비록 돈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냐고 하신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아직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지금 이렇게 뼈저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자고 하신다. 이번 고난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가슴 아프겠지만 미래엔 우리 가정에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신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는데, 형제인 우리 가정을 돕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얼마가 필요한지 말하라고 하셨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능력껏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신다. 당장 필요한 돈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2:14~17)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내와 나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머리 숙였다. 큰누님, 작은 누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가난하게 살아 온 우리 5남매였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재산은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지만 남들을 사랑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에 함께 비빌 언덕을 주어 견디게 하기 위하여 가정과 이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 머리 아래 우리 모두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눈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되어 주고, 귀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귀가 되어 주고, 손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손이 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각 개인들에게 주신 축복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곤고함을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이후 새로운 삶을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살하려는 나를 동건이와 아버지를 통하여 일깨워 주셨고, 술과 주식으로 인하여 진 빛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Chapter 04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 김주형 수용자를 만져 주시는 성령님

2011.03.24.

김주형이 이번에는 삼촌 앞으로 서신을 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수용되기 전에 성기에 실리콘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생겨 염증과 고름이 나오고 보형물이 살을 뚫고 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온다는 것이다. 외부 병원으로 나가 재수술을 받고 싶은데 현재 치료할 영치금(領置金)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흘러내리는 고름을 휴지로 돌돌 말아서 그렇게 혼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안 먹고 안 입을 수는 있겠는데 몸이 아픈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삼촌에게 죄송하지만 수술 받을 수 있게 영치금 좀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삼촌에게 편지를 할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파 왔다. 그것도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니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돈이 없어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서신을 들고 의료과로 찾아 갔다. 의료 계장님을 만나서 김주형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의료 계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까지 심각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알았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외부 진료나 수술의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예산으로 진료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돈이 없어 치료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의료과 사무실을 나와 김주형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을 향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사동에 도착하여 담당 직원에게 김주형의 상태에 대해 물었더니 알고 있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지금 의료과에 전화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

각이였다면서 잘 왔다는 것이다. 서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연출을 요청하였다. 조금 후 사동 담당실로 김주형이 연출되어 왔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었더니 바지를 내리면서 수술한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수술한 부위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보형물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도 보였다. 통증이 몹시 심한지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당 직원에게 지금 당장 의료과에 가서 응급조치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직원이 의료과에 전화를 했다. 의료과에서 알았다면서 지금 연출할 직원을 보낸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료과에 먼저 들린 사실을 주형이에게 말해 주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요청해 났으니, 지금 응급조치 받고 조금 기다려 보자고 했다. 김주형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위로 해주었다. 조금 후 의료과 연출 직원이 연출증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이를 확인하고 등기 서신 배달 때문에 나는 사무실로 내려 왔다.

오후 등기 배달이 끝난 후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의료 계장에게 전화하였다. 주형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었다. 아까 의료과에 내려온 주형이 상태를 의사 선생님이 확인 해 본 결과, 외부 병원에 나가 치료해야 할 상황이란 소견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절차를 밟아 내일 오전에 외부 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냈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 일처럼 기뻐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성령님께서 주형이를 붙잡히 여기시어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 같았다. 주형이의 연약함을 아신 성령께서 그 아픔을 만져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롬8:26)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술할 돈이 없어 낙담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를 보살펴 줄 어머니도, 아버지가 없어 울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을 함께 하려고도, 관심조차도 갖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어 괴로워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송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2011.03.25.

내가 맡은 서신 업무는 서신 검열자로 지정된 사람들의 서신을 검열하는 업무 외에 외부에서 이곳으로 오는 등기 서신, 특급 우편물 등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사인을 받는 업무도 겸하고 있다. 오전에 우체국으로부터 들어 온 우편물 분류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수용자들에게 전달한다. 특수우편물의 특성상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도 등기를 가지고 사동에 올라갔다. 등기 서신 배달하면서 잠시 주형이 사동에도 들릴 생각이었다. 오전에 수술 받는다고 했는데 수술 결과도 알고 싶었다. 등기 서신 배달은 직접 수용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어 매일 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복도에 서 있고 그들은 창살 넘어 조그만 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용자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색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도 약간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물론 나도 한손에 우편물을 들고, 또 다른 한손에는 볼펜을 들고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거실 창문 앞에서 서서 그들에게 사인을 받는다는 것이 다소 어색했다. 하지만 한 달 가량 이 업무를 보다 보니 그 어색함은 없어진 것 같았다.

이처럼 매일 등기 서신 배달을 하면서 느낀 또 다른 점은 대부분의 수용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다. 냉담하고 적의에 찬 표정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우편물을 돌리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면 원지 모를 안타까움이 밀려오곤 했었다.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싸늘한 눈빛으로 변해 있는 저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다.

주형이 사동에 도착하여 담당 직원에게 지금 주형이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오전에 수술 받고 지금 방에 있다는 것이다. 거실 앞에 도착하여 시찰구로 들여다보니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자리에서 앉는다. 수술은 잘됐는지, 지금 통증은 없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먼저 감사하다고 말한다. 눈에서 눈물이 고인다. 나도 가슴이 찡해 움을 느꼈다. 수술 잘 됐다는 것이다. 통증은 조금 있는데 괜찮다는 것이다. 아침에 있었던 통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맙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다. 많이 힘들 땐 사람들에게 의지할 생각 말고 먼저 주님께 의지하라고 말해 주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니, 믿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배식구를 통해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사동을 빠져 나왔다.

집에 도착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입이 굳어 좀처럼 열리지 않는데 도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온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 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신 업무를 통하여 이곳에 갇힌 영혼들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평소에 느껴 보지 못한 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눈빛을 교환하고,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혼돈스럽고, 악의, 적의에 차 있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려는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서려고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그들과 내 사이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들과 나 사이에 싸여 있는 장벽을 허물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던 중 이런 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동 복도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찬송을 불러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3:6~7)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간에 그들에게 찬송가를 불러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03.28.

오늘 오후 등기 배달 때, 사동 복도를 지나가면서 찬송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지막이 불러 보기 시작하였다. 맨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렀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 준 그 찬송가를 불러 보기로 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  
멘” (찬305장)

이렇게 찬송을 나지막이 부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우편물을 들고 그들에게 처음 다가갔을 때 느꼈

던 어색함과 두려움은 온데간데없고 내 마음 속엔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담대한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변화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한 것이다. 그들을 변하게 할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내게 먼저 적용되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동을 걸어가면서 내가 부르는 찬송가를 알아듣는 수용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내 입가에선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다.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나의 웃는 모습을 그 수용자들이 보면 처음에는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지만 차츰 그들의 입가에도,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도 내 마음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영혼이 맑은 애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 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미움을 가지고 아기를 쳐다보면 애들은 울거나 도망간다.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면 애들은 반갑게 웃어주거나 곁으로 오게 된다.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개들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개는 한 집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금방 꼬리를 치면서 좋아한다. 하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금방 으르렁거린다. 개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비슷한 것 같다. 내가 그 동물을 진정으로 아끼면 그 동물도 내 마음을 읽고 반응하는 것 같다. 싫어하면 그 동물도 내가 싫어하고, 좋아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동물도 좋아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 실험한 것이다. 그릇에 동일한 밥을 넣어 놓고 한쪽에는 ‘사랑, 좋음, 기쁨, 행복’ 등

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하고, 또 다른 그릇에는 동일하나 밥을 넣고 ‘증오, 미움, 시기, 욕’ 등 아름답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비교를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준 밥그릇은 부패 정도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반면 아름답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준 밥그릇에는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여 악취가 날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실험은 여러 곳에서 시도해 봤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물과 파동 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에서 말이나 글씨에는 고유한 파동이 있다고 한다. 그 고유한 파동은 다른 물체에 전달되어 진다고 한다. 물 컵에 ‘사랑, 참 좋네, 아름다워’ 등 좋고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그 물을 순간적으로 얼려 그 결정체를 분석해 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 아름다운 정육각형의 모양이 나왔다고 한다. 반면에 물 컵에 ‘미움, 싫어, 추해 보여’ 등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일하게 물을 얼려 그 결정체를 확인해 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부정적인 말을 들려 준 물의 결정체는 찌그러지고 기형적으로 변형된 모양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말과 마음을 전달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긍정적이 되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물에 얼굴을 비치면 똑같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에게 비친다고 한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전달되어진다는 것이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잠 27:19)

지금 당장 주위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라. 정말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샌가 변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있는 진리일 뿐 아니라 내가 직접 수용자, 직원, 가족, 이웃들을 상대로 수없이 경험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남을 위한 일도 되지만 결국 70% 이상이 물인 자신을 위한 일일 것이다. 항상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한 사람은 자신의 세포가 아름다운 정육각형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정답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라!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지혜가 또 스치고 지나갔다. 등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실천해 보았다. 등기 서신을 주고 사인을 받은 후 먼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았다.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차츰 나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떤 수용자는 나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웃으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내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찬송가 부르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고백은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나보다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란 말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정말 짜릿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령께서 나와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좁은 창살 속에 있는 저들의 애통함을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사동을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늘한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 우울해 하는 그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할 일은 그들이 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준 일입니다. 이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변하지 않던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게 되자 시기, 다툼,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이곳에 갇힌 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만나를 주시다

2011.4.9.

개인 회생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한 달에 260만원을 개인 회생위원 통장으로 매달 입금하고 있다. 매월 260만원씩 5년간 불입하여야 완전히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달 봉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사용하여야 하는데 5년 동

안 무엇으로 생활해야 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0~33)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다. 믿고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하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만 한다. 지금 내게 남겨진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이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며 또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만이 지금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힘인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어느 때인가 내게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11:1~2)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보는 것이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보는 것이다. 빛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빛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 회생이라 제도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다. 나를 살려주신, 빛을 탕감 받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이신데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방

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 주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분이시란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드시 물질의 어려움을 헤치고 갈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품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죽은 목숨, 무엇이 아까우리까! 다시 한 번 더 인생에서의 삶을 연장시켜 준 것은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 회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인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날 것을 믿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부터 매월 260만원씩 5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제 월급 거의 모두를 불입해야 합니다. 한 달 저희 가족이 필요한 최소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작은 방에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무실에 서류를 놓고 왔다면서 안산에 있는 사무실까지 태워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아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 마켓에 올려놓은 상품과 트로피가 가격경쟁이 심해져서 다른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주문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내에게 말해 주었다. 가격을 더 내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더 낮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 기존 거래처에 전화하여 가격을 조정해 보라고 아내에게 조언해 주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며칠 전 모 업체에서 기획 상품으로 소개하는 카탈로그(catalogue)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기존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내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내에게서 기획 상품 카탈로그가 사무실에 와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 올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아내가 내게 그 카탈로그를 보여 주었다. 그것을 받아 보는 순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 주신 ‘만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그 ‘만나’ (출16:4)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 가정에 내려 준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일용할 양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매일 내려 주신 그 ‘만나!’ …… . 가격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프트마을 사업장에 보내 주신 것이 분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겪게 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업체의 상품이라면 기존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었다. 기존 거래처에서는 좀처럼 이런 가격으로 납품할 수도 없는 가격이었다. 제품의 품질도 기존 거래처보다 더욱 우수하였고 독특한 제품들이 많았다. 이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마7:7) 하신 주님의 말씀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도록 해 주셨다. 3월 20일, 개인 회생 비용으로 260만원을 첫 번째로 납입한 그 날 이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갈지 고민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내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16:35)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만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한 저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지요? 지난 세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탕자와도 같은 생활을 하였던 저를 이렇게 붙들

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받은 은혜를 저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동일하게 제가 받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탈로그를 보내 준 업체에 전화를 하였다. 기획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 보았다. 기존 상패, 트로피와는 조금 차별을 두어 특별히 기획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와 통화를 하고 난 후 기타 자세한 업무 협력은 아내에게 일임하였다. 곧바로 옥션, G마켓, 11번가에 기획 상품을 입점 시켰다. 기존 상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입점 시킨 상패와 트로피는 입점 시키자마자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박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만나’ 안에 틀림없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전 5:19)

## 김 목사 사건

2011.4.21.

옥션에서 상패 15개가 주문 접수되었다. 그런데 42만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6만원만 입금되어 있었다. 실장님에게 전화하여 주문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객님의게 전화하여 취소하시든지 주문하실 경우 더 입금하도록 안내해 주라고 말해 주었다. 며칠 후 아내에게 그 상패 주문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 상패를 주문하신 고객 때문에 너무 힘이 든

다는 것이다. 옥션에서 상패를 주문하신 고객은 상패 한 개에 4000원인 줄 알고 15개 주문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 그 분은 이제 와서 더 추가 입금을 하라는 것은 사기 행위라면서 추가 입금 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소도 못하겠고 15개 상패 모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아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당황도 되었지만 그래도 잘 말씀드리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더 설득해 보라고 위로해 주었다.

통상적으로 기프트마을에서 취급하는 인쇄, 판촉물, 답례품, 상패, 트로피 등은 사이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옥션 등의 오픈 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경우 한 카테고리에 많은 상품을 올리고 옥션에 있는 추가입금 코너를 이용하여 주문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상품의 판매가가 4만원이라면 초기 가격을 4천원으로 책정하고 추가 금액으로 3만 6천원을 결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15개 상패를 주문하신 분은 밑에 있는 상품 상세 설명을 읽어 보시지 않으시고 초기 책정 가격이 아래 있는 모든 상품의 판매가인 줄 알고 주문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신 고객님은 아내와 실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 가격으로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교도관인 나는 이곳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막무가내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득하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더 이해시켜 보라고 하였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조금 후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내가 있는 작은 방문을 열어 보더니 우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하였다. 무슨 일이 있냐면서 물었다. “왜?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묻자 속상하다는 것이다. 그 상패 주문하신 분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여 그런다는 것이다. 사실 그 주문하신 분이 다름 아닌 목사님이라는 것이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상패를 주려고 주문한 것인데 행사 때까지 발송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상패를 보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나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순간 나도 그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아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아내는 됐다고 안 알려 주는 것이다. 화 내지 않을 테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했다. 전화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시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따지고 싶었다. 그래서 알려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내도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던 터라 내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몇 차례에 걸쳐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우리 남편도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매일매일 눈물, 콧물 다 쏟아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지 않느냐면서 따졌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이 속상하다면서 흐느끼는 것이다. 울고 있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못한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으로부터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

왜 천사와 같은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요? 왜 나 한사람으로도 모자라서 목사라는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요?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내에게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아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화내지 않을 테니까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 목사님과 통화해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만 물어 볼 테니까 알려 달라고 하였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침내 아내가 내게 다짐을 받는 것이다. 절대로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더니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 번호대로 전화 버튼을 눌렀다. 어느 남자 분이 받으신다. 목사님인 것 같았다. 목사님이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다. 옥션에서 주문하신 그 상패 때문에 전화 드렸다고 말씀드리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전화기를 통하여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내가 말을 막 꺼내려는 순간에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사단의 장난이니 속지 말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목사님도 사단의 시험에 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목사님께 화를 내고 따지려 드는 그 순간, 내가 사단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내가 회심할 때 나를 만져 주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에 느껴졌다. 할렐루야!!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 평정이 찾아옴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 말이 없으신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들 때문에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해 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내에게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만져 주신 것과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는 혹시 상품 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자고 말하고 위로해 주었다. 이번 일은 목사님께 선교 헌금한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자고 하였다. 이런 내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아내도 며칠 전에 목사님에게 상패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 주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고개가 절로 숙여 졌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내와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2~13)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사자 같이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저희 가족에게 주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만나를 그 어떤 악한 영도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화 통화 사건이 있는 며칠 후에 아내가 내게 간증하는 것이다. 그 목사님이 통장으로 상품 대금을 입금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 푼도 깎지 않으시고 그대로 입금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나와 아내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사랑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

리라.” (수3:9~10)

## 나를 통하여 당신이 살아 계심을 알리소서!

2011.04.25.

저녁에 작은 방에 놓여 있던 노트북을 켜려는 순간 그 옆에 놓여 있는 한권의 책이 눈에 들어 왔다. 『육이 죽어 영이 산사람』(후쿠시게 다카시 著)! 말씀 공부를 하다 알게 되어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이었다. 그 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오늘 도착한 것을 애들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 책을 손에 집어 들고 읽기 시작하였다.

저자인 후쿠시게 다카시는 일본의 최고의 과학자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혼수상태에 빠진 21일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다카시는 바로 그 때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내용의 간증집이다.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어쩌면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후쿠시게 다카시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다. 술에 찌들어 살아 온 내 모습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지 않을까?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모습이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가운데서도 전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일 것이다.

또 다카시는 하나님께서 저 그릇을 써야겠다고 정하시면 맨 먼저 그릇을 닦아 내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릇을 닦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찌꺼기와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 낸 후에 음식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이 바로 선택되어 닦여진 그릇, 즉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에게 잡혀 사명을 받아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깨뜨려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2:20~21)

어느 시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개조하시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자살을 시도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시를 보내주셨고 이 시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 시를 통하여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내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숙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기 원하실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시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를 초라한 진흙덩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르짖을 뿐이며,  
그는 탄원의 손을 치켜들 뿐이다.

그 분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때  
구부리되 결코 부러뜨리진 않으신다.  
당신이 택한 자를 사용하시되,  
온갖 의도로 그를 녹이시며,  
온갖 행동으로 그를 권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

그렇다. 나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은 맨 먼저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을 닦아 내셨다. 나의 교만과 세상 지향적인 것(돈, 권력욕, 명예욕 등)들을 내 마음 속에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빈 마음에 새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즉,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 주셨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갈급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적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인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 인생을 송두리째 세상적인 것에 내 주고 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얼마나 통곡하였는지 모른다. 매일 퇴근 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면 눈물과 콧물로 뒤통이 되어 울고 또 울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길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 온 내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6개월 가까이 울면서 통곡하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셨다. 담대함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산산이 내 삶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이 때문에 또 울고 울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요1:12). 즉,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단의 꾀에 속아 타락하게 됨으로써 선택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온전하신 성품(갈5:22~23)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성품(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지게 된 악한 성품)은 점차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전2:14)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전3:1~3)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2~13)

급격하게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환경 등에 따라 그 변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결국 변하게 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비록 영접 후 다시 세상의 죄를 짓는다고 하더

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다만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우리 자신이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행한 대로 상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계20:1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8~39)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한 번에 쏟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방법이 최고이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거나 급격히 변하게 새사람이 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롬14:22)

동요하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남의 믿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신의 믿음과 견주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와 다를 때 비판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신이 믿음이 약해 보이는 자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남의 믿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과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주는 마음인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이다

(요8:44; 계12:9~10).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 인내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 들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또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내 잘못을 지적하여 줄 때는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성령께서 일깨워 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고 간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있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또 다시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 실족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자 두려워하게 된다. 그 때 물 위를 건너오는 예수를 보자 유령일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지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한다. 이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다. 예수가 오라고 명령하자 베드로는 그 말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게 되었다(마14:24-32). 즉,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간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은 것이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베드로와 같은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힘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의 힘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힘과 우리의 힘이 합쳐졌을 때에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즉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가능해진 것이다. 『예수의 명령과 능력 + 베드로의 순종 = 물 위를 걷는 기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손뼉

을 치기 위해서는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말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는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겁을 먹고 가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평생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좇아 살아 갈 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오다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처럼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상태(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참,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함, 건방짐, 교만, 자기 자랑, 악한 일을 꾸밈, 부모에게 불순종, 미련함, 신의를 저버림. 인정이 없고 자비가 없음 등의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특징이다)에 그대로 방치되어(롬1:28~32) 결국 최종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20:13~14)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갔으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밀려오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겁에 질린 베드로는 결국 물 위로 걸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위 상황(바람과 풍랑)을 바라 본 결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다가 의심하거나 또는 순종하다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의 변화는 지지 부진해지고 실족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배교(背敎)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벧후2:21~22)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만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등 하나님의 성품(갈5:22~23)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이외의 것은 성령 하나님 것이 아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영인 사단이 주는 것이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가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갈5:19~21) 등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있다. 만약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샘솟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거나 내 안에 육적인 찌꺼기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사람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했는지는 다른 사람들 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영접하기만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잃어 버렸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 내 욕심, 아집, 교만, 허영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야 한다. 즉,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하나님 아버지

제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주사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처럼 벼랑 끝에 가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 후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온전한 상태에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한 마음은 당신에게, 다른 한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무엇이 먼저 인지를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2011.05.11.

오늘이 개인 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이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공고가 난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집회기일이다. 판사, 채무자, 채권자가 모여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하여 논의하는 날이다. 이 집회 기일에 채권자들이 와서 개인 회생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날이다. 사채를 사용하고 있던 나로서는 조금 두려운 날이었다. 혹시 채권자들이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여 방해하면 어쩌나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채권 추심을 했던 사람이나 사채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곳 구치소에 가끔 들어왔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돈을 받아 낼 때는 인정사정없다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나 가족, 친척, 심지어 회사에 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알고 있던 터라 개인 회생 집회기일 때 채권자들이 찾아와 협박을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휴가를 내고 법원으로 향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걸어서 출발하였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 회생 집회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판사, 채권자들과 대면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기일 때 만나는 판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도록 불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가려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채권자들도 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불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애통함을 주시고 저의 죄를 가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법원에서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다녀오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2시, 수원지법 본관 제312-2호 조정실에서 집회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생위원과 면담하였던 본관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오늘 있을 집회기일 법정은 본관 뒤편에 위치해 있었다. 본관을 빠져 나와 뒤편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초조한 모습으로 서성대고 있었다. 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모두 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온 사람들 같았다. 법원 앞에 걸려 있는 대기표를 확인해 보았다. ‘본관 제312-2호 법정

14:00 김치진’ 이라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혹시 채권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여 두리번거려 보았다. 하지만 누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조금 후 법원 직원이 개인 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고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법원 조정실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한참 복도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법원 조정실로 들어갔다. 맨 앞에 개인 회생위원이 있었다. 판사는 보이지 않았다. 조금 후 순서대로 호명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겐 회생 변제금을 기일 내에 잘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결정이 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겐 채권자 중 한명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집회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채권자 중 어느 한명이라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송달되지 않은 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는 돌아가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환한 얼굴이지만 나만 우울한 얼굴이 되었다. 조금 실망스러워 법원에서 나와 한빛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다. 최 사무장이 전화를 받았다. 집회기일에 다녀왔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고 알려 주었다. 내 전화를 받은 사무장은 걱정하고 있는 내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송달이 되지 않는 채권자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회생 변제금 260만원만 매월 납입하면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무장과 통화를 하고 난 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행히 제일 걱정했던 채권자들은 오지 않은 것 같았다. 모두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가!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혹시나 채권자들이 와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개인 회생을 방해하지나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던가! 혹시 사채업자들이 와서 나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얼마나 겁을 먹었던가!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두려워하

고 있는 내 모습에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두려움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죄와 흠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한 하나님(마5:48)의 사랑을 소유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요일4:18)을 오늘 깨달은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함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창1:2).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 4:18)

## 박소원 씨를 만나게 하시다

2011. 5.12.

다음날 아침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하루였다. 성과급을 탄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통장에 넣어 두고 있었다. 400여만 원이나 되는 성과급으로 다시 주식에 투자할까? 아니면 아내에게 줄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아내를

통하여 보여 주셨다.

아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당장 급한 돈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나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아내에게 돈이 필요하게 만드신 것 같았다. 다시 나의 잘못을 회개하였다. 성과급 탄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자 내게 평강이 다시 찾아옴을 느낄 수 있었다.

2011.5.14.

오늘은 토요일이라 집에 있었다. 작은 방에 앉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사무실에 불일이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까지 데려달라는 것이다. 알았다고 말하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와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점심때라 시흥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가자는 것이다. 손으로 직접 만든 칼국수인데 옛날 어머니가 시골에서 해 주던 맛을 느낄 수 있어 가끔 가던 곳이다.

그곳에서 국수를 먹고 사무실로 가려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박소원 씨! 수원 구치소 전(前) 교정협의회장! 지금 캐나다로 이민 가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중 내게 보여준 그 사람이다. 그 때 당시, 왜 박소원 씨를 기도 중에 보이시는지 하나님께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만약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박소원 씨가 먼저 전화를 해 오든지 아니면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 준 동역자로 생각하겠다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박소원 씨가 저만치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의자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던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순간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에게 박소원 씨를 가리키면서 전에 내가 기

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아내도 놀라는 눈치였다. 예전에 아내에게 박소원 씨에 대해 말해 준적이 있었다. 기도하는데 박소원 씨를 계속해서 보여주길 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실 분이시면 그분이 먼저 내게 전화하든지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내도 놀라는 눈치였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던 중 내게 보여준 사람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의 한 명이 박소원 씨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그 세 명 중 나머지 두 사람은 큰누님과 유용원 목사였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왜 기도 중에 보여 주셨는지 알게 되었지만 박소원 씨만큼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왜 내게 박소원 씨를 보여 주시는지요?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지요? 만약 박소원 씨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 그 분이 먼저 내게 전화 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먼저 나를 찾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렘5:10)

박소원 씨와 인사를 나누고 아내도 소개시켜 주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보았다는 얘기는 박소원 씨에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냐고 묻자, 일 관계로 캐나다에서 입국했다는 것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기도해 보기로 생각하고 헤어졌다.

칼국수 집을 나와 아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유용원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

다. 박모 안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내게 먼저 전화한 것이라고 한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시장님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면서 좋아하시는 것이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인도를 통하여 뜨겁게 주님을 만난 시장님은 출소 후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고 했다. 그 분의 무죄 소식을 내게 알려 주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고 하신다. 힘들어 하고 있는 내게 힘을 보태 주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 것도 아닌 내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었다. 오늘따라 신기한 일이 두 번씩이나 생겼다. 약간은 떨리면서도 가슴 한 가운데서는 원지 모를 뜨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물 밀 듯이 밀려오고 있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일까? 궁금해지고 떨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기도하던 중 제게 보여주셨던 박소원 씨를 오늘 만났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박소원 씨와 무슨 일을 시키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제게 보여 주시는지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기쁨과 평안을 주어 감사합니다.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비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강하고 담대하라!

2011.05.16.

살인죄로 들어온 한 수용자가 있었다. 그 수용자는 자살 우려자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오늘 아침 누나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죽고 싶어 자살을 세 번씩이나 시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사동 담당직원과 보안과에 통보하고 영상 계호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취한 조치였다.

그리고 사동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지금 상담하러 올라갈 테니, 담당실에 연 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수용자가 있는 사동으로 올라갔다. 사동에 도착하여 담당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더니 조금 후 그 수용자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수용자 본인의 생명을 위하여 영상 계호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 수용자는 나 때문에 영상 거실에 수용되어 답답해 죽겠다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사실은 세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가족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면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수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영상 계호 거실에서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다른 마음먹지 말고 자숙하라고 말해 주었다. 그 순간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영상 계호 거실에 있게 되었으니까, 당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면서 저주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다. 순간 당황되었지만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내려 왔는데 마음이 편치 못했다. 아까 그 수용자가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내 마음이 그 수용자 때문에 편치 못하니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사야 35장 3절로 4절 말씀을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암송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끄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사35:3~4)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후에 그 수용자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 그 수용자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사동으로 올라갔다. 사동에 도착하니 벌써 그 수용자가 사동 담당실에 앉아 있는 것이다. 왜 불렀는지 물었더니 “왜 서신을 검열했냐? 무슨 근거로 서신을 검열했냐?”고 따지듯이 묻는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을 알려주었다.

“현재 당신은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중점관리대상자(자살우려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을 검열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서신 검열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영상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에 있게 되었다면서 계속 악담을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대꾸했다가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직원 담당실에서 나와서 사동 거실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왜 내려 가냐!”면서 또 다른 악담을 퍼붓는 것이다. 사무실에 내려왔지만 마음이 너무 편치 못했다. 그 수용자의 악담이 자꾸 생각나고 또 그 수용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지 못하고 내려온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 수용자도 또한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텐데 제가 그를 끌어안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올라가 그 수용자를 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05.17.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그 수용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 수용자를 볼 용기가 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그 수용자를 만져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34:4)

출근하여 서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용자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그 수용자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올라갈 마음이 나지 않아 이규익 주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사동에 올라가서 한번 만나 달라고 부탁하였다. 조금 후 이 주임님이 내려와서는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수용자가 어제 내게 한 악담에 대해 사과한다고 나에게 전해 달라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 오늘 나를 찾은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 달라고 전해주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내 대신 주님께서 그 수용자를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어 하는 한 영혼을 감싸 안지 못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 주지 못하였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떨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약하고 웅졸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의 손길로써 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했으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으면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의 입장과 눈에서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겁도 많습니다. 아직도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한 것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싸 안고 만져 주었어야 하는 그 수용자를 제 대신에 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외로움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함을 헤아리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 드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날 그 사동에 올라가서 그를 만났다. 어제의 그 사나운 눈초리는 어디로 간데없고 순한 양이 되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만 해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편안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그 사람을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나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하룻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그를 만져 주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 수용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내려

왔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 성령께서 간증을 시키시다

2011.05.19.

한 수용자가 수용처우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에 보내는 서신이 나왔다. 관계 규정에 의해 교도관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났다. 소장님에게 불허 결정과 관련하여 결재를 하고 난 후 2층 청사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경비교도 대원에게 사회복귀과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었다. 그 여자 분에게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사회복귀과를 찾으시는지 물었다. 자신이 김○○ 씨 아내인데 지금 남편과 면회를 하고 오는 길이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언론사에 나가는 서신이 불허됐다는데 왜 불허됐는지 남편이 따져 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내가 그 서신 담당자라고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여기 서서 말씀 드릴 수 없으니 정문 앞에 있는 대기실에 가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다며 대기실로 안내해 했다. 그 분을 정문 대기실 의자에 앉게 하고 난 후 왜 불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부인도 내 얘기를 듣고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금 내가 그 부인에게 나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인에게 지난 나의 부끄러운 일, 자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 내 입술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힘의 존재가 그 때 당시에는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그 부인은 현재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 분에게 지금 나의 간증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눈물, 콧물을 쏟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말이다. 이런 내 모습에 넋을 잃고 나를 바로보고 있는 그 부인도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말한다. 나를 청사 앞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 있는 현재까지도 뭔가에 이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것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 가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었다. 이곳으로 모시고 올 땐 나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전도하고 있다니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달리 어떤 것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의 입에서 처음 보는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는가! 이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돌아가시는 길에 성경책이라도 사서 읽어 보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부인에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흘렀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2:4~5)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겁 많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가 낯선 여인에게, 그것도 자신의 남편 서신을 왜 불허했는지 항의하러 온 그 여인에게 당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 당신을 증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당신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용자를 통해 전해 주신 책

2011.05.23.

오늘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소자에 대한 사전 면담이 있는 날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매월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사업 내역은 주로 출소자의 숙식 제공,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그리고 각종 멘토링과 재사회화교육 등이다.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와 정착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법무부 산하 단체이다.

오늘 오후에 사전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수용자를 연출하기 위해 사동으로 올라갔다. 담당 직원에게 연출 허가증을 주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사동 청소부가 나를 부르는 것이다. 무슨 일인지 묻자, 그 수형자는 내게 “무주(無主) 도서가 나왔는데 지금 가지고 가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 내가 사회복귀과에 근무하니 무주 도서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런 그에게 담당 주임님이 어제 야근하고 퇴근했으니 내일 내려 보내 달라고 말해 주었다.

시간이 있어 사동 복도에 있는 이동문고에 무슨 책이 있는지 보려고 앉아 있는데 그 사동청소부가 나를 부르면서 내게 한권의 책을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주임님! 혹시 이 책을 찾고 있지 않으세요?” 라면서 내게 책을 건네주는 것이다. 순간 깜짝 놀랐다. 전에 읽은 적이 있던 책, ‘원 형제’의 중국 전도행전 『하늘에 속한 사람』(폴 해터웨이 著)이란 책을 내게 건네는 것이 아닌가! 너

무 놀라서 그 수형자에게 이 책을 왜 내게 주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주임님께서 이 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난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동청소부를 통해서 내가 찾고 있는 책을 보내 주신 것이다.

이 책은 몇 달 전에 도서관 책장에서 눈에 띄어 읽었던 책이다. 읽고 난 후 도서관에 다시 꽂아 두었는데, 얼마 전에 이 책이 다시 읽고 싶어 도서관 책장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무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새 책을 구입해서 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동청소부가 내게 준 것이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다.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간절한 나의 마음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책임에 틀림없었다. 그 사동청소부에게 내가 읽고 싶어서, 찾고 있었던 책인데 당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고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동청소부도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이 얼굴에 역력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약5:17~18)

이 책 속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주인공인 원 형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이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구할 수 없게 되자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셨다. 그 방법은 어느 노(老) 전도사의 꿈을 통해서이다. 꿈에 숨겨 두었던 성경책을 어떤 곳에 위치한 청년의 집에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은 기독교 탄압이 심했다고 한다. 공산당 치하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감금되고 성경책은 모두 회수 되어 불살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노 전도사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 놓고 가끔 꺼내 읽곤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귀한 성경책을 꿈에 보여준 청년의 집에 보내라고 하니 속상했던 모양이다. 몇 번 거절하다가 할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원 형제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오늘 내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귀한 책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능력에 오늘도 머리 숙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힘에 더욱 더 낮아짐을 느낍니다. 저도 놀랐지만 그 책을 전해 주는 그 수형자는 더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수형자에게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사랑이 전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폴 해터웨이가 지은 현대판 사도행전, 중국의 전도행전인 ‘하늘에 속한 사람’의 내용 중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원 형제는 1958년 중구 허난성 난양 현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 1974년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후 ‘하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중국 복음화에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이다.

원 형제가 16세 때인 1974년 문화대혁명 당시 그의 아버지는 폐암으로 죽음을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지라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어머니는 꿈에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란 음성을 듣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통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헌신하기로 했다. 그녀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께 기도한 다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시다”고 말하고는 꿈에서 본 일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들은 원 형제는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밤이 새도록 같은 말로 기도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예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바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아버지의 몸은 눈에 댈 정도로 좋아졌으며 몇 달 후엔 식욕까지 돋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식욕이 돋기 시작한 날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완쾌되었고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5~16)

이런 기적 이후 그의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가족들의 삶이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곧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가 그의 집으로 와 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집을 찾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짐작했는지 문상 복장을 하고 온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확연히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완쾌되었다는 말에 모두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원 형제는 성경을 직접 읽고 싶은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구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시절에는 중국 어디에나 성경이 매우 드물었고 성경을 지니고 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성경은 불태워지고 소유자의 일가족은 마을 한가운데에서 심하게 얻어맞는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그 날 이후, 그는 성경책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작정 10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온 뒤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저녁에는 조그마한 공기밥 한 그릇만 먹었다. 이처럼 기도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던 어느 날 새벽 4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원 형제는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다.



자신이 무거운 수레를 밀며 가파른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의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어느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환상 속이지만 그는 계속된 금식으로 인해 몹시 굶주리고 쇠약해 있던 터라 힘겹게 수레를 밀고 있었다. 낡은 수레가 금방이라도 뒤로 굴러 그를 덮칠 것 같았다. 그 때 반대쪽에서 세 사람이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매우 긴 턱수염에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막 찢낸 떡을 가득 실은 큰 수레를 끌고, 양 옆으로 두 사람이 따르고 있었다. 그 노인은 그를 보더니 무척 가엾게 여겨 떡을 싼 붉은 봉지를 수레에서 집더니 곁에 서 있던 두 사람을 시켜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지금 바로 먹어야 한다.” 고 말했다. 봉지를 열어 보니 그 안에는 방금 찢낸 떡 한 덩이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떡을 입에 넣자마자 그것이 성경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즉시 그는 환상 속에서 성경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며 외쳤다. “주님, 주의 이름은 찬양 받기에 합당합니다.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군요. 주께서 드디어 제게 이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집안을 뒤지며 성경을 찾기 시작했으나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부모님이 무슨 일인가 그의 방으로 달려왔다. 와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는 오랜 금식 기도 끝에 결국 그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아들을 긍휼히 여기 주세요.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미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병을 앓아도 좋습니다. 아들에게 성경을 주시옵소서.” 라며 그는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다고 한다.

그 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원 형제를 부르는 아주 온화한 음성이 들렸다. 부리나케 달려간 그는 잠겨 있는 문 너머로 물었다. “혹시 떡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래, 자네에게 떡 잔치를 해 주려고 왔네.” 그는 환상 가운데 들었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서둘러 문을 열자, 환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인 두 사람이 원 형제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손에는 붉은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봉지를 열어 성경책을 꺼내 주고는 두 사람은

조용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훗날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사람은 왕 형제이고 다른 한사람은 쑹 형제였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이들은 어느 노 전도사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한다. 그 전도사는 문화대혁명 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한다. 그 노 전도사는 그가 성경을 받기 3개월 전쯤에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 청년을 보여 주시며, 숨겨 놓은 성경을 그 청년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환상 속에서 원 형제의 동네의 위치와 집을 보았다고 한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인도 언젠가는 다시 성경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자에 넣어 땅 속 깊이 묻어 뒀다고 한다. 그런 간절함이 있던 노인은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주님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도 두 사람에게 부탁해 성경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원 형제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노 전도사의 환상을 통해 정확히 원 형제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원 형제의 환상을 통해 성경책을 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난 믿는다. 지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나로서는 간절한 원 형제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것일 것이다.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히11: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실제로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비록 지금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11:1~2)

원 형제의 간절한 기도를 생면부지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2억 원이란 부채로 자살로 내 몰린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 눈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해결책을 주셨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만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시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의 책이 읽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어 속이 상했지만 저의 필요를 아시고 사동청소부의 손을 통하여 구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게 건너야 할 강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담대히 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인구 목사님을 품고 기도하다

2011.05.25.

이곳에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 사역이 내게 주신 사명

중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게 전해 줄 말씀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자 처해 있는 다양한 고민과 아픔을 말씀으로써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난 11월부터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였지만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위해선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가르친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 공부를 위해 예수님과 같은 스승, 엘리사에게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때부터, 성령님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인도해 줄 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수원영락교회 안인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과의 첫 만남은 지난 1월 초경에 누가복음 14장 25~35절 말씀,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물은 적이 있었다. 그 때가 그 분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낀 나는 안 목사님의 교리 지도 시간에 참석하여 말씀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함께 지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때가 아니었던지 목사님께선 오늘이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이다. 오늘을 끝으로 구치소 교정 사역을 그만 두고 우리들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양재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교회로 가신다는 것이다. 아쉽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해 보기로 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 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줄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애 3:25~28)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인구 목사님이 이곳 구치소 사역을 끝으로 우리들교회에 부임한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겠으니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교회로 부임하여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러 가시는 안 목사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문서 사역의 소명을 보여주시다

2011.05.27.

새벽에 기도하던 중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아름다운 우주 속에서 태아가 평화롭게 노닐고 있는 모습이다. 아름답고 화려한 우주가 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었다. 마치 하나님의 품속에 한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것 같았다. 평화롭고 광활한 우주로부터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전에 최돈명 주임님이 책을 가지고 오셨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컨사이스 바이블”이란 책이었다.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쉽게 요약해 놓은 책이었다. 6000원 정가인 이 책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번 읽어 보고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이곳 수용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겠냐는 것이다. 일단 읽어 보고 기도 해보자고 했다. 받아서 첫 번째 책장을 넘기는 순간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새벽 기도 중 보여준 환상과 비슷한 장면이 최 주임님이 가지고 온 책의 첫 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을 내게 주시려고 보여준 환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닮아 있었다. 아름다운 안드로메다 성운이다. 새벽에 태아를 감싸고 있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우주 모습이 안드로메다 성운이었던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니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1:16~17)

이처럼 책을 통하여 문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벽기도 중 그런 환상을 보여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게 붙여 준 사람, 최돈명 집사님. 문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최돈명 집사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문서 사역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책을 통하여 내가 위로와 쉼을 얻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쉼을 주기 원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을 통하여 제게 보내 주신 당신의 말씀이 담긴 책을 통하여 지치고 쓰러진 내 영혼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을 통하여 제게 보내 주신 당신의 말씀이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제게 붙여 넣어 주신 당신의 소명을 이제 조금씩 알아 가고 있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1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난 이후 내게 많은 책을 보내 주신 최돈명 집사님! 문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분을 통하여 나도 많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문서 사역이야 말로 이곳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일 것이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곳에 수용된 사람의 경우엔 좋은 목회자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

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다. 나도 최 주임님이 보내 주신 많은 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담긴 책을 읽으므로 해서 저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독교 분과에 문서 사역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현재 분과 위원장이신 유용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문서사역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자, 유 목사님이 흔쾌히 다음 분과 모임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2011.07.06.

오늘이 두 번째로 개인 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이 있는 날이다. 지지부진 하던 개인 회생 절차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 “수원지방법원 312-2호실

지난 5월 있었던 첫 번째 집회기일 때 미뤄졌던 일정이 오늘에서야 이뤄진 것이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법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담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기로 마음먹으니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흘렀다. 오늘은 왠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비록 한 곳의 채권자에게 변제계획 수정안이 송달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이것조차도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물질이 모자라고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화려한 집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지갑에 돈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감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요 일이라면 감사히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건디기 힘든 자리일지라도,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 비천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있는 채권자 집회기일입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법원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 감사 기도드렸다. 개인 회생이 인가되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마음먹고 감사기도 드리면서 법원으로 향했다. 개인 회생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 인가결정이 났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법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 대기석에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어딘가 모르게 수심과 걱정과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해 보였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새말씀 새부대 새노래』를 의자에 앉아 읽고 있었다. 얼마 후, 여자 직원이 개인 회생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면 조정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 후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대답을 하고 10여명과 함께 법원 조정실로 들어갔다.

5월 11일 첫 번째 채권자 집회일 때는 많이 떨리고 긴장하였으나 두 번째인 오늘은 마음의 안정되어 차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김주○ 개인 회생위원이 이름을 호명하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간단하게 끝났다. 첫 번째 집회 때,



채권자 한 명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하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아무 말 없었다. 이제 된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으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후하여 승인이 난다고 한다. ○○보증보험의 송달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였더니 ○○보증보험 한곳에만 다시 송달된 것으로 나왔다. 채권자 모두에게 다시 송달하지 않고 한곳만 재 송달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곳이라도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명령을 내려 다시 전체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다시 집회 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친 송달이 있었지만 꼭 한 두 군데에 송달이 되지 못하여 주소 보정하고 다시 전체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온 상태였다. 그래서 개인 회생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전체 송달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 한곳만 송달이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어제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유용원 목사님, 안인구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도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개인 회생에 매달리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개인 회생이 승인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뜻인데 내가 자꾸 인가 결정 쪽으로만 욕심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승인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승인돼도 감사, 안 되도 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 16~18)

## 여름휴가에서 생긴 일

2011.08.03.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지리산 뱀사골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몸도 마음도 힘이 들어 이번에는 여름 피서를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막내 예지가 이번 여름휴가 때 어디로 갈지를 묻는 것이다. 그런 예지에게 이번에는 아빠가 많이 힘들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는다. 풀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는 예지를 보니 마음이 아파왔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서조차도 갈 수 없는 예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다. 예지가 조금 후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것이다. 눈물 고인 내 눈을 보더니 “아빠, 피서 안가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울지 마세요. 아빠가 우는 것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라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예지가 말이다.

저녁에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아내가 피서 다녀오자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애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 피서 못 갈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으니 다녀오자는 것이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내가 예지에게 이번에 여름휴가 가기로 결정했으니 어디로 갈지 예지보고 정하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지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낮에 나를 위로하면서 의기소침했던 얼굴은 어느새 밝아져 있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저럴까 싶어 더더욱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지리산 뱀사골로 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피서지는 지리산 뱀사골로 정해졌다. 출발 하는 당일 날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났다. 무사 안전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닫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하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리이라” (렘33:3)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지리산 뱀사골로 여름휴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예지가 전부터 한번 가자고 했던 뱀사골로 갑니다. 사랑하는 예지가 가고 싶어 했던 휴가, 지금 떠납니다.

가고 오는 운전대 지켜 주시어 안전 운전하게 해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착해서도 당신의 살아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착한 그곳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들어 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일찍 일어나 출발하여 함양 근처에 다다를 무렵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잠깐 눈을 부치기 위해 함양 휴게소에 들어가 약 30분 정도 눈을 부쳤다. 잠이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차바퀴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차바퀴를 확인 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뒷바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운행했더라면 타이어 파열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소름이 순간적으로 돋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기 위해 나를 졸리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41:10)

은수, 동건, 예지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진정시켜 놓고 선 휴게소 내에 정비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정비소는 보이지 않았다. 주유소 직원에게 물었더니 1km정도 더 가면 함양IC가 나오는데 함양에 가면 정비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시간이 아침 8시 30분이라 문을 연 정비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갓길을 통해서 천천히 함양IC로 빠져 나왔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 함양IC를 빠져 나오자마자 바로 정비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았다. 그래서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 있었다. 혹시 정비소 직원인가 싶어 가 봤더니 사장이

었다. 펑크가 나서 왔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더니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왔냐고 묻는 것이다. 함양 휴게소에서 펑크가 난 것을 알고선 이곳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 정비소 사장이 큰일 날 뻔 했다는 것이다. 그 말에 다시 한 번 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펑크가 난 타이어를 떼우고 난 후 뱀사골을 향해서 차를 다시 몰았다.

지리산 뱀사골에 도착하여 보니 피서 온 사람들로 북적여 났다. ○○오토캠핑장은 만원이어서 다른 곳을 둘러봐야 했다. 다른 곳을 몇 군데 더 돌아봤지만 역시 만원이었다. 다시 ○○오토캠핑장으로 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하는 직원이 안에 들어가서 빈곳이 있으면 먼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를 세워두고 아들 동건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캠핑장 안으로 들어가 봤다. 정말 인산인해였다. 몇 번을 돌아봤는데 빈 곳은 없었다. 그런데 동건이가 나를 부르는 것이다. 산 밑 그늘진 곳에 빈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은 너무 좋은 자리라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가보지도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동건이가 그곳에 가서 빈자리를 발견한 것이다. 할렐루야!! 동건이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하고선 급히 차 있는 곳으로 가서 비용을 계산하고 동건이가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출23:20)

나와 동건이는 텐트를 치고 아내와 예지는 저녁 식사 준비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텐트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님이 우리 가족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차가 펑크 난 것을 알려 주시려고 졸리게 하신 것 같았다. 만약 졸리지 않았다면 계속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렸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펑크 난 타이어가 파열되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졸리게 함으로써 휴게소에 들러 타이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좋은 곳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주심에 감사하고 휴가 기간 동안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사골로 오는 도중 펑크가 나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으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졸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곳까지 고속으로 달려오게 하였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펑크가 난 타이어가 파열되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 뱀사골에 도착하였어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곳이라 비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곳으로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번 휴가기간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드디어 개인 회생 인가결정 나다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다. 뒷정리를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회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작은 방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 보았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이번 휴가 기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어제 8월 2일 날짜로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공고되어 있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인가 결정이 났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37:31~33)

길고 긴 개인 회생이 마무리된 것이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어 방황하던 9개월 동안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이제 마무리된 것이다. 지금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다.

사탄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갔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동건, 아버지를 통하여 알려 주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 내시고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다. 2억이란 빚을 해결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결국 개인 회생이란 길을 열어 주셨다. 그 길이 이제는 완성된 것이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난 것이다. 매월 260만원씩 5년간 불입해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개인 회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나날이었지만 이제 그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저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려고 못난 짓을 하던 나를 살려 내시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 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철이 단련되기 위해서는 녹이고 두드리고, 다시 녹이고 두드리는 작업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11월 이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움푹달싹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고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길ियो

당신의 나의 진리여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절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세상적인 마귀의 품에 있던 절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리를 몰라 방황할 때도 제 곁에서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먼 장님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슬에 얽매어 방황하던 저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질 세상적인 것, 부질없는 세상적인 것, 허무한 세상적인 것을 쫓아 방황하던 절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돈과 재물만 많이 가진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였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많

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입니다. 돈에 미혹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돈을 쫓아 살아온 결과, 믿음에서 떠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만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살아 있음을 느낄 때, 지금 이렇게 죄와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 함을 느낄 때,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남들처럼 명예롭지 못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달콤한 것을 내게 준들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난 45년 동안 진리를 모르고 살아오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오는 동안 느껴 보지 못한 이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뜻에 순종하여 당신께 영광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2억 원이란 빚에 숨이 막혀 죽으려고 했을 때 개인 회생이라는 한 줄기 빛을 주셨습니다. 그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드렸던 서원 기도를 이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서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미 해 버린 서원 기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곳 직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곳 교정 시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지로 생각하고 남은 인생 모두 주께 바치겠습니다.” 고 서원했던 그 기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곳 교정 사역이 제게 주신 당신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섭리로써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당신께 영광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예지의 깜짝 이벤트

2011.08.10.

어제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거실 불은 꺼진 채 거실 바닥에는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거실 베란다 창문에는 뭔가 종이에 써져 있었다. 무심결에 불을 켜더니 예지와 아내는 나보고 무드 없다면서 다시 불을 끄라는 것이다. 날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인데 불을 켜면 어떻게 하냐고 한다. 불을 끄고 거실 바닥에 장식된 풍선을 따라가서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았더니 작은 방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예지는 뭔가를 들고 내 앞에 서서 음악에 맞추어 내게 노래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열린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시라고 예지가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 주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거실 베란다 창문에는 “김치진 우리 아빠! 힘내세요! 아빠 곁에는 우리가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미안하고 죄송하여 이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내 곁에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宝物들이 내 곁에 있었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떠나 멀리 가 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파랑새가 울고 있더라는 이야기처럼 나도 그 파랑새를 다른 곳, 먼 곳에서 찾아 헤매 왔던 것이다. 바로 내 곁에 파랑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삶이지만 이렇게 예쁘고 심성이 착한 딸이 불러 주는 노랫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내게 불러 주는 노랫소리에 힘겨워하는 나 같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이 불러 주는 찬양과 찬송에 힘이 나고 기쁘시죠?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Chapter 05 인도하시는 하나님

###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내가 다음 달 추석 때 판매할 상품 구입 때문에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보고 큰누님에게 말해 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큰누님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큰누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문자를 보냈다. 퇴근 후 저녁 늦게 큰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유치원 공사 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니, 돈을 구하던 못 구하던 간에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내려놓자고 말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 보자고 했다. 아내도 알겠다는 것이다. 아내도 기도하면서 뜻을 구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사55:8)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른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맡겨 보기로 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맡겨 보기로 했다. 그 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순종하면서 가 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믿고 가 보기로 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3:5~6)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추석 때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사정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자금을 구해주실 작정이시라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상품 구입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구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08.11.

개인 회생 인가 결정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아직도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갈 길이 먼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 너무 현실이 힘들다는 것뿐이다.

주님은 내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다(빌4:6).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살전5:16~18).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답답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다(마11:28~30).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다(마6:25~34).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주는 현상에 눈을 돌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신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어 고민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려 하면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고 말씀하신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를 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

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주님께서 응답이라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로 놓고 의지하고자 고백한 직후에 큰 누님에게 문자가 왔다. 2천만 원,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사용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또 한 번 더 고개 숙여 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15:7)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확실히는 몰라도 지금 저를 붙들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기독교 업무를 맡기시다

2011.09.14.

오늘 드디어 교리 지도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다. 전부터 참여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참석하게 되었다. 수원영락교회 차영진 부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교리 지도 시간이었다. 몇 달 동안 기도한 끝에 마련된 자리인지라 더더욱 내게 큰 은혜가 된 것 같았다. 그토록 기다리던 개인 회생 인가 결정도 나게 됨에 따라나는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정 사역을 위해 매진하였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죄에서 자유 함을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 1:12~13)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뜻이라면 기독교 업무를 맡게 해 달라고 한 달 전부터 기도해 오고 있었다.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졌다. 누구에게 업무를 바꿔 달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독교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애3:37)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도 곁에 서서 저의 손을 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몸에 상처가 나서 아파할 때도, 깊은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죽어 가고 있을 때도 곁에 서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어 서신 업무로 가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소장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나고 내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소원했던 교정사역을 위해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어 제게 힘을 실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기독교 업무로 가게 해 주심도 모두 당신의 결재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 사람, 권력, 돈, 주위 환경을 의지했던 때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해결해 주심을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즉 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불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항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온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 사랑의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루어 오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 인도할 분을 보내 주시다

2011.09.19.

오늘 웬지 우리들교회로 가신 안인구 목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저번 주엔 날씨가 무척 더워 고생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다. 이곳 구치소도 가을 준비에 한창이다. 수용자들에게 긴팔 옷이 지급되었다. 직원들은 날씨가 쌀쌀하다고 소주 한 잔 생각난다면서 술집으로 향하고, 나는 오늘 방송근무라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집어 들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안인구 목사님 생각이 나서 안부 인사 겸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인터넷 검색 창에 안인구 목사님을 검색해 보았다. 수원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집회하시는 동영상이 있었다. 다른 것이 더 없나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 논문이 눈에 띄었다.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새 패러다임 모색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이었다. 프린터

로 출역하여 집에 가지고 와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읽고 있는데 10시 20분 경에 안인구 목사님으로부터 ‘잘 지내고 있느냐!’ 면서 내게 문자가 도착하였다. 순간 얼마나 기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목사님 석사 논문 읽고 있다고 하자 목사님은 많이 부족한데 창피하다면서 겸손해 하셨다.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부터 평신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등 쟁쟁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신 평신도 사역자였다.

이런저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길래, ‘제게 말씀을 인도해 주실 분을 보내 달라는’ 것이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화요일 또는 목요일 저녁에 한번 보자고 하시는 것이다. 화요일은 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학교 사역팀 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라 목요일 저녁에 한번 보자고 했다. 흔쾌히 수락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였다. 그 순간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것이다. 안 목사님이시다. 순간 당황했다. 전화까지 주실 줄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안인구 목사님께 제자 양육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터라 그 기도に対する 응답이 왠지 오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핸드폰을 들자 목사님은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내게 온 문자를 받으시고 사모님과 상의했다는 것이다. 평소 말씀에 갈급해 하고 있는 나를 목사님이 직접 제자양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떠냐고 사모님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들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시느라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자훈련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시69:13)

3년 정도의 과정을 압축하여 풀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지난 11월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나는 수용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부족을



느끼고 성령께 말씀을 지도해 주실 분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 소리가 시작된 이후 10개월, 안인구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한지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은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단비에 목말라하는 저에게 이런 귀중한 단비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인구 목사님께서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저의 간구가 오늘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고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때에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훈련 시키셨다는데 저는 얼마나 훈련받아야 하나요? 또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시려는지요? 인도하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게 주신 교정사역

2011.09.20.

조모(某) 수용자. 살인미수로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인 수용자이다.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러 미수에 그치고 이곳에 구속 수감된 사람이다. 지난 월요일 기독교 교리 지도 시간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늘 사동 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조모 수용자가 나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다. 바로 수용 사동으로 향했다. 사동 담당실에 조모 수용자를 불러 앉히

고 두 손을 잡고 먼저 기도하자고 했다. 지금 무슨 일로 가슴 아파하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을 보니 어둡고 힘들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였다.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때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면서 뭔가 눈에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갇혀서 그 때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다. 전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괴로워했다. 그 수용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순간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누나에게 보내 영상 계호실로 옮겨진 한 수용자가 떠올랐다. 상담 과정에서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그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 상담을 멈추고 내려와 마음이 아팠던 그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이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도 ‘내게 악담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이규익 주임님을 통해서 전해 준 그 때 일이 생각이 났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고 싶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의미이다. 그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지금 형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형제님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선 비록 원수 간이지만 그 영혼을 용서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주십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갇혀 있지만 전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주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해 주었다(히11:6). 또 믿고 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전해 주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며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기도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도 숨 막히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내 말을 듣고 난 후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내 말을 들으니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전처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전해 주시고 전처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간구하였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삼상1:17~18)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때의 분을 참지 못하고 크나큰 죄를 지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는 기도소리를 들어 주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 주사 그 아내에게 마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09.21.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수용자 18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8명의 이름이 적힌 기도노트를 꺼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가장 눈에 띄었다. 마약사범 정용상, 황산 투척 사건으로 연루되어 징역 15년들 받은 이향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이모(某) 형제들이 마음에 가장 많이 와 닿았다.

마약사범으로 얼마 전 출소하였는데 다시 들어온 그 사람, 출소 전에 박진석 목사님과 영접 기도를 하고 난 후 안수기도를 받을 때 머리와 이마에 땀방울로 범벅이 되었던 그 사람, 기도 후 마음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사람인 정용상 형제가 다시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다시 들어 온 것이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다시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 그 사람이 오늘 따라 많이 생각났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 정용상 형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던 그 형제가 이번에 또 구속되어 왔습니다.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이곳에 들어온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담대하게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는 마약에 대한 유혹을 성령의 힘을 빌어서 끊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직원에게 황산을 투척하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처음 만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알코올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하다 이곳에 들어온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어 그를 통하여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코올 치유 사역자로 세우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노트를 꺼내 보고 있는데 정용상 형제가 수용된 사동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용상 형제가 전에 준 필사성경 노트를 다 사용하였다고 새로 한 권을 더 달라는 전화였다. 마침 잘됐다 싶어, 필사 성경노트를 한권 들고 정용상 형제가 수용되어 있는 사동으로 올라갔다. 사동 담당실에 갔더니 벌써 그가 나와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우리는 밥 먹듯이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전해 주었다. 정용상 형제는 감사하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다고 한다. 기도 후 거실로 들여보냈다.

정용상 형제와 상담 후 병사에 수용된 이향수 형제 사동으로 갔다. 황산테러로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재심을 준비 중인 그 사람이다. 얼굴이 많이 평안해 보였다. 처음 만났을 때 주위 환경에 많이 동요되어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몇 주 사이에 많이 좋아 보였다.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문을 나섰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나동 2층 담당 근무자가 찾아 왔다. 수용 거실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성경책을 3권 달라는 수용자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책과 함께 한가한 시간에 그 거실에서 와서 기도 한번 해 달라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수용자가 기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최근에 문제수용자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들었는데 몇 사람이 말씀공부와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사동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 거실에는 사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진 사

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 집사님의 인도 하에 성경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 서부터 방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또 다른 거실로 그 분위기가 전파되어 수용 질서가 더욱 좋아졌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신앙의 힘으로 어수선하던 분위기의 수용질서가 한층 더 좋아졌다는 말에 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한번 들리겠다고 했다.

오후에 사동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잠시 그 사동에 들렀다. 담당 근무자의 허락을 받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5명의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모두 긴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집사님이 누구냐고 묻자 구석이 앉아 있는 40대 초반의 사람이 손을 들었다. 담당 직원에게 말씀 인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해 주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들에게 기도 한번 드리자고 했다. 거실 바닥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자 5명 모두는 약간은 당황해 하면서도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눈을 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곳 갇힌 곳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 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사연들이 있습니다. 각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이들을 보내 놓고 밤낮으로 마음 조리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내 놓고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는지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어 이들이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써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후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간증 거리를 전해 주었다. 교만, 주식투자, 2억의 빚, 자살 시도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유 함을 얻은 이야기,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나서 매달 260만원을 갚아 가고 있다는 이야기 등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마음이 풍족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나의 간증을 듣고 있는 그들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할렐루야!! 이어서 그들에게 축복의 비밀을 전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기도한다면 나처럼 죄에서 자유 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한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전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비록 이곳이 구치소이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해 주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천국이라는 비밀을 전해 주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도 전해 주었다(마18:19~20). 끝으로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공부에 매진할 것을 권면해주고 그 방을 나섰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 안인구 목사님과 만남

2011.09.22.

오늘은 안인구 목사님과 저녁 식사하기로 약속된 날이다. 저녁 6시 경에 수원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한정식당에서 안 목사님과 첫 만남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시절 선교단체 사역자 이건도 형제를 통하여 일대일 제자도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졸업 후에는 채규만 형제 부부로부터 지역 교회에서 제사 삼는 사역을 사사(師事)받고 수원영락교회에서 평신도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곳 구치소에 들어오셔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다.

안 목사님과 첫 만남은 2010년 11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후 어느 날 새벽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자가 되는 길을 묵상하는 중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목사님께 물은 것이 첫 만남이었다. 그 이후 수용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때 말씀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를 보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안 목사님을 보내 주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치고는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닌가? 누구든지 자신의 일로 바쁘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시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 목사님은 내게 어떤 것을 바라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심심풀이로 내게 제자양육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바쁜 와중에도 목사님이 쉬셔야 할 귀한 시간에 내게 제자양육을 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인가? 이것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일인가? 여러분 같으면 자신의 시간을 내서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헌신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 개인 과외를 시켜도 돈을 받고 가르쳐 준다. 이것이 세상 법칙이다. 하지만 하늘나라 법칙은 이와 다르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안인구 목사님은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런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지도 않은 것처럼(고전9:12~19) 안 목사님도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를 자랑하며 제자양육을 통한 한없는 기쁨을 보상으로 여기시는 분이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받을 권리(사역비; 마10:10; 눅10:7; 딤후5:18; 레7:6~9,34)를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9:16~19)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과 같은 귀하신 분을 저의 은사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안 목사님도 제가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했던 종도 일을 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개인 과외를 시키는 사람도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역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분이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에 얽매어 산다는 오해를 받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그 물질로 인하여 실

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받아도 될 사역비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안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물질적으로 곤고하여 제대로 섬기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다른 것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에 한 번씩 만나 내게 네비게이토 선교회 교제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다. 목사님도 우리들교회에 사역을 하시면서 김양재 목사님의 목회 방식에 순응하고 훈련을 받느라 눈코 뜰 새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의 삶일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결실이라면서 성령께서도 목사님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하여 말씀으로 거듭나서 땅 끝인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갇힌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고 싶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국제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선교기관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지상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기관이다.

네비게이토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 1906~1956)은 1930년대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원리를 널리 전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비전을 세우게 된다. 이에 주위 사람들과 주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비게이토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33년부터 해군을 대상으로 사역지를 더 넓힌 그는 그 때 만난 레스 스펜스라는 해군

에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스펜서의 삶을 목격한 해군 동료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자 스펜서는 자신이 받은 양육 훈련을 이야기 해주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말해 준다. 이 간증을 들은 그 동료는 자신도 그 양육 훈련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스펜스는 그를 도슨에게 데려가 도와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슨은 그에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내게서 배운 대로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양육하라”고 말해 주었다. 스펜스가 직접 그 동료를 도와주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네비게이트 사역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이에 스펜스는 그 동료를 자신이 배운 대로 직접 가르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펜서와 그 해군 동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이 타고 있던 미국 전함 웨스트버지니아 호에 있는 125명의 해군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은 각 사람과 함께 성경공부, 성경암송, 기도 등에 많은 시간을 드렸으며, 자기가 배운 대로 각각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그들은 각자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보여 주게 된다. 변화된 삶의 본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계속 배가되어 갔고, 선교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갔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영적 후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제자양육 훈련은 영적 스승에게 배운 내용대로 충성된 사람을 세워 그 충성된 사람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원리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세워 그를 양육하였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또 디모데에게 배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 디모데에게 배운 대로 양육하는 방식과 같은 원리이다

(딤후2:2). 이 일대일 제자훈련 양육 방식은 초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 등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후 홍콩의 셀처치 지도자 벤자민 왕 목사, 한국의 옥한흠 목사(前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국제 제자훈련원 원장), 김성곤 목사(부산 풍성한 교회 담임목사, D12 사역) 등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일대일 제자양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경건한 생활과 말씀으로 본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가정, 직장, 교회, 선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적원리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방법인 것이다.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은 마지막 죽음조차도 제자도의 원리를 실천하고 죽어갔다. 1956년, 배를 타고 가던 한 소녀가 물속에 빠진다. 이를 목격한 도슨은 그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 들어 그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물속에서 그녀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소녀는 구출되었지만 도슨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1956년 7월 2일자 타임지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림으로써 도슨의 거룩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떠난 사람”이라는 제목 하에 도슨의 죽음을 기리고 있었다. 그는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원리를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 목사님을 만나 일대일 제자양육을 허락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으로 간구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제가 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 목사님의 입술을 빌어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 교정 시설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구치소,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같은 사람들 보다 더 높은 담장을 쌓고 스스로 감옥 안에 갇힌 무지한 영혼들도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밝고 맑은 세상으로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을 갈급해 하는 수용자

2011.09.28.

홍○○ 수용자. 투자자문회사 운영하다 사기죄로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이다. 서신 업무할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제 기독교 집회 후 나에게 교리 지도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은 취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 지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도해 보자고 하고선 들여보냈다.

새벽에 홍○○를 놓고 기도하였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출근하여 취업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리 지도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상담실로 연출하여 다음 주부터 격주로 실시하는 기독교 교리 지도에 참석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말해 주고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한 후 이런 저런 말을 나누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믿음이 좋으시어 남가좌동에 있는 ○○교회 건물을 헌납하셨다고 한다. 주위 친구들 중엔 목사, 장로 등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은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여 세상적인 것만을 좇아 살아 왔다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와 후회한들 소용이 없겠지만 지난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도와 달라면서 눈가가 불그스레해지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

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55:6~7)

성령님께서 많이 만져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힘써 찾으라고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친히 살아 계심을 직접 체험케 해 주시는 분이시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직접 체험의 종교이다(히11:1).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분께 올인 한다면 그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당장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또 그에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와 욕심을 버리라고 일러 주었다. 세상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 하며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몇 천억을 주무른 사람이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자신도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 사실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목사님의 말씀 지도를 받으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

리라.”(수1:8)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우리가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선 우리를 위해서라도 들어 주지 않으신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지난 11월부터 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분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나의 간증 이야기를 사용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 후 사동을 올려 보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무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지금 그 어둠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함을 들어 주시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타나시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프린터 사건

2011.10.01.

오늘은 구치소 연무관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수원동부지부에서 주최하는 ‘수용자 아버지학교’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다. 수용자 42명을 선발하여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참석하시는 스텝 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 22명 모두가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분들이다.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에 감사하여 자원하신 분들이시다. 아버지

학교를 구치소에 개설하기 위해 여러 달에 걸쳐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켜 그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신 것이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결과는 대 만족이었다. 아버지학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참석하기 전엔 자신들의 가석방 등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참석한 수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학교가 시작되면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들을 보면서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져 왔다.

스텝들이 프린터로 출역할 것이 있다면서 내게 프린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다행히 전산에 관한한 구치소에서 제일 잘하시는 이규익 주임님께서 함께 참석하셨다. 그분께 프린트를 설치를 부탁하고 나는 외부 스텝들을 도와주면서 왔다 갔다 했다. 얼마 후 프린터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아직도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트북에 프린트를 연결하여 셋팅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리 해도 작동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주임님이 설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순간 컴퓨터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손길을 맡겨 보기로 했다.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클릭, 클릭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의 손길을 통하여 프린터가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프린터가 작동된다고 하자 이규익 주임님이 내가 앉아 있는 컴퓨터 쪽으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는 프린터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어찌하여 지금 작동되는지 의아해 하는 표정이었다. 전직(前職) 전산 실장이었던 이 주임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프린터가 작동되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간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김 주임님,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이 주임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믿고 기도하시면 인도하십니다.” 평소 나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그였기에 이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선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주임님이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시 77:1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동되지 않았던 프린터가 작동하였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4주간 아버지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 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인도하시는 성령님

2011.10.10.

오늘 미결 기독교 집회가 있는 날이다. 오후에 연무관에서 아카펠라 공연이 있어 오전에 예배 드리기로 결정되었다. 집회 참석을 신청한 수용자들을 검색하여 공범 관계를 파악하고, 연출증을 작성하고, 교회당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느라 아침에 눈코 뜰 새 없었다. 원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조급증이 와서 기도드렸

다. 이런 조급증을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이런 조급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큰일을 맡기시려고 이런 조급증을 주심을 압니다. 제게 원가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조급증을 주심을 압니다. 지금 주신 분주함과 조급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조급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조급증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분주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살아 계심을, 당신의 선하심을 알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게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일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였다. 오늘은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하는 집회가 있는 날이다.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 걱정하였는데 저번 주에 기결수 대상 기독교 집회를 이끌고 있는 김○○ 기독교 회장이 미결 집회 때도 찬양 인도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럴잖아도 미결 기독교 집회 때 찬양할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김○○이 자원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믿고 구한 즉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입증되는 순간이다.

문제는 위탁 공장에 출역하는 수용자라서 작업이 많을 때는 집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곤란하다. 오후에 집회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후 아카펠라 공연으로 인하여 오전으로 집회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 공장 담당 직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믿고 가 보기로 했다. 공장에 전화를 하였더니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위탁 공장으로 내려 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공장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닌가! 문이 열려 있는 세탁 공장에 가서 물었더니 오늘 오후 아카펠라 공연 때문에 출역을 하지 않아 지금 사동에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미결 집회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출역조차도 시키지 않게 하신 것 같았다. 너무 감사했다. 바쁜 공장일 때문에 예배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수용자를 빼오는 일 때문에 직원에게 사정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로 사동으로 올라가서 김○○ 형제를 연출하여 교회당으로 가서 찬양 인도 준비를 시키고 나는 박진석 목사님을 모시러 정문으로 향했다. 집회 참석 수용자들의 연출이 시작되었고 교회당에서는 김○○ 형제의 인도 하에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 곡의 찬양을 드리고 박 목사님을 교회당에 모셨다. 목사님도 평소에 안하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교회당에 와 보시고는 목사님 자신도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당 맨 뒤에 앉아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이곳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님의 살아 계심을 이들 수용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목사님의 인도 하에 예배가 진행되었고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앉아 있는 한 수용자가 처음에는 찬송을 하지도 않고 앉아 있는 것이다. 주님께 이곳에 모인 수용자들을 만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평소 보다 더 뜨겁게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그 수용자가 울지 않는가! 흐느낌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다. 조금 후 그 수용자도 찬송가를 따라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다.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형제였던 것 같았다. 성령님께서 그 수용자를 강하게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후 이곳저곳에서도 흐느끼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였다.

그 순간,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조금 당황이 되었다. 평소 뒷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을 휴대하고

다녔는데 어제 주일 예배 때 너무 많이 울어 손수건을 세탁하려고 내놓고 새로운 손수건을 챙기지 못하고 왔다. 할 수 없이 손으로 콧물을 훔쳤다. 그런데 찬양이 뜨거워지면 질수록 흘러내리는 눈물, 콧물이 감당이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로 콧물, 눈물을 씻고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곁에 있는 그 수용자는 흐느끼고 있었다. 흐느끼고 있는 그 수용자의 손을 잡아 주었다. 다스함이 나의 손을 통하여 전달되어져 왔다. 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진행될 동안 눈물을 훔치는 수용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지금 그들을 성령님께서 만져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오산, 평택, 안양 등 조폭들이 몇 명 나왔다. 김명수 형제가 평소 내가 준 성경책, 필사성경 노트로 다른 곳의 직원들을 전도하였다고 자랑하였다. 그 전도한 조폭들을 교회당에 데려 온 것이다. 이들을 데리고 교회당 앞쪽으로 가서 앉아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에 감사 고백을 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 내 옆에서 흐느끼며 울었던 그 형제를 상담실로 데려가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싶었다.

그 수용자는 성폭력으로 들어온 최○○ 형제였다. 지금 아내와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 모태 신앙이었으나 성적인 욕구를 주체할 수 없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정을 참으면 참을수록 더욱더 불 화산 같이 솟아오르더라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 불가능 상태까지 다다르자 이번에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더라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더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죽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책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드리지 못해 답답했었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더라는 것이다.

울고 있는 그에게 이곳에 들어오게 한 것에도 감사하라고 전해 주었다. 최○○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은 이곳, 이 자리를 통해서 최○○ 형제님을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고 말해 주었다. 비록 구치소 안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임을 말해 주었다. 나도 최○○ 형제님처럼 성적(性的)으로 많은 죄를 범해 왔다고 고백하였다. 비록 이곳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최○○ 형제님 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도와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다.

또 이 수용자에게 말을 이어 나갔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性)에 관한 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성적인 기쁨을 주셨다. 이 거룩한 성을 사탄이 왜곡하여 우리를 범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온갖 음란한 영상, 사진, 매춘 등으로 우리의 원초적인 생육 본능을 자극하여 유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성 본능을 이처럼 왜곡하여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즉,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며 성령에게 도와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욕망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 분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신다. 내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즉, 육적인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도와 달라고 외치면 성령께서 그 유혹을 물리쳐 준다. 이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성적인 충동이 불일 듯 할

때 이렇게 외쳐 보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지금 저 여인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불일  
듯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 보아라. 기도해 보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성적인 충동이 물러 갈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보호막 아래 우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도와 달라고 하면  
유혹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씻을  
수 있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6:8~11).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을 받았느니라.”(고전6:8~11)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요1:1).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말씀 그 자체는 살  
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며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까  
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히4:12). 즉,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도 일생 생활에서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  
실이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  
게 된다. 하지만 나쁜 말을 듣게 되면 좋았던 기분도 다운된다. 말 한마디에 사  
람을 죽음으로 가게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말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지난 11월 이후 계속하여 경험하는 것  
들이다. 힘들고 곤고할 때, 죽고 싶어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여 시인하고 믿고 기도하였던 결과 많은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도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다(요16:24).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결과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4)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뿐이다(엡6:17).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사단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였다. 그것은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난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의 능력 때문에 물러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속에 정욕이 일어 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물리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음욕이 일 때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보아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시119:36~37)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전7:26)고 하였습니다. 나를 죽이는 올무와 그물 같은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음행과 간음하려는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 불 같이 일던 정욕이 일순간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어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대적하면 외치는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따라서 성적인 죄가 나를 엄습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말씀)을 주실 것이다(롬8:1~2,10~11,13). 그 힘(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유혹을 대적하면 유혹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저지르는 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육적인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롬8: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8:13)

거실로 돌아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권유해 주었다. 매주 박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리 공부 시간에 연출할 테니까 참석하여 은혜 받으라고 말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사동으로 돌려보냈다.

## 처음으로 회중 앞에서 간증하다

2011.10.17.

오늘 박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리 지도가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주제로 교리지도가 시작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1~2)

그곳에는 살인죄, 강도 강간, 폭력 조직 두목급, 절도, 사기 등 다양한 사람 15



명이 참석하였다. 교리 공부 전에 목사님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시면서 인도하셨다. 수용자 모두 생소한 찬송가인지는 몰라도 모두 웅얼거리면서 입만 병긋하는 것 같았다. 목사님 찬송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무엇인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순간 감돌기 시작하였다. 뭔가 어수선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들어야 하는데 아직 이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성령님께 기도했다. 도와 달라고 이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 찬송가가 끝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을 빛이신 성령님께서서 우리들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간에 앉은 한 수용자가 자꾸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고 방해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지 물으면서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 때 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김명수 형제가 “주임님, 저 사람 뭐하는 사람 이에요?”라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순간 나는 웃으면서 명수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참으라는 무언의 말로 다독거리 주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눈짓하였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났는데 그곳에 있던 수용자들의 마음에 뭔가가 응어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목사님을 배웅하고 다시 교회당으로 돌아왔다.

다음 주부터 교리 지도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할 예정이니 모두 그

시간에 준비하라고 광고하였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 답답한 표정이 역력했다. 순간 찬송가 "주 하나님 지은 신 모든 세계"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찬송가 아는 분 손들라고 하자 한명만 들고 나머지는 모두 모른다고 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주 하나님 지은 신 모든 세계"를 내가 먼저 부르기 시작하였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찬79장)

1절을 부르고 2절을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성령님의 만지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4절을 모두 마치자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모두 뭔가에 한대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아마도 직원인 내가 앞에서 찬송가를 인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았다. 아까 목사님 말씀 도중에 말씀을 방해했던 그 수용자를 보니 얼굴이 짙은 검붉은 색을 띠고 악에 받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또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내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이다. 순간 에스겔 33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떠올랐다. 사울, 다윗, 솔로몬 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알려 달라고 목사님께 물었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모두에게 에스겔 3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펴라고 말했다. 다들 성경책을 찾아 가면서 에스겔서를 찾는다. 내가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옹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겔33:11~16)

에스겔 33장 11절로 16절을 봉독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입술을 맡기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와 흠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하고(마5:48; 뱀전1:15~16; 갈5:22~23) 선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는 죄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선한 상태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함께 놀이도 하고, 함께 먹을 것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던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항상 기뻐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기를 잘하는 인내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와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으며, 마음이 부드럽고 자신의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의 꾀에 속아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에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품에서 쫓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죄로 얼룩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악한 짓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롬1:28~32; 갈5:19~21).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까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면서 물은 적이 있었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경우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들 또한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도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태어난 인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들이 밖으로 불거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상실한 상태, 곧 죄로 얼룩진 상태로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사악한 마음인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부모 거역, 우매, 배약(背約), 무정(無情), 무자비(無慈悲)한 마음 상태가 드러남으로써 삶 자체가 바로 지옥과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듯이 거울과도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자신이 죄인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 온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그대로 복귀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1:28~32)

교리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끝냈던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의인에게 살려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살아오면서 행한 공의(봉사, 선행, 헌금 등)를 믿고 죄를 짓는다면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령 악인에게 죽는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도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악을 행하여 죽는다고 말하였어도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살려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신 에스겔 말씀을 그들에게 봉독하고 말씀을 풀기 시작하자 15명의 눈이 모두 나의 입술을 향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다.

“저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비록 이곳에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술, 도박, 섹스 등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곳 구치소 직원이 4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술꾼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테이프가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먹고 테이프가 끊긴 상태에서 조직폭력배 5명과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끊긴 상태에서 그들과 시비가 붙었고 얼마 후 술이 깨서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과 다투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순간 머리가 꾸뻑하게 서더군요. 그들 5명은 나를 둘러싸고 죽일 듯한 기세였습니다. 순간, ○○파 두목 송○○이 생각나더군요.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송○○ 이름을 팔아먹어야겠다는 약삭빠른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송○○ 아느냐?’고 하자 ‘형님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내가 교도관인데 내 친구가 그 송○○의 불알친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그 ○○파 애들을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 주었습니다. 몇 분 통화를 하고 내게 다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잘 말해 났으니까 관창을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 조직 애들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술을 이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마시오. 당신이 교도관 아니었고 그 친구 분과 통화하지 않았다면 소리 소문 없이 물어 버리려고 했소!’라고 손으로 목을 껏는 시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처럼 술, 도박, 여자 등으로 온갖 세상이 주는 죄악에 빠져 45년 동안 살아왔음을 그들에게 고백하였다. 그리고 작년 11월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고 고백하자 모두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었다. 작년 11월 이후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박 목사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었던 그 수용자가 또 질문하는 것이다. ‘지금 말

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나의 말은 계속되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족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된다.”고 말해 주었다.

순간 성령님께서 그 수용자를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악에 받쳐 있던 그 수용자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평온해지는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였다.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내 눈이 의심스러웠다. 악으로 가득 찬 얼굴빛이 광채가 날 정도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평온한 상태의 얼굴로 변한 것이다. 그 수용자를 보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며 전율이 흘렀다.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변하게 한다는 말씀을 확정하는 순간이었다(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내 간증과 말씀을 듣고 난 이들 수용자들은 원가에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얼굴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들의 얼굴 표정은 값진 보물을 찾은 듯한 흥분과 기쁨이 교차된 모습이었다. 교리 공부를 위해 교회당으로 들어올 때와는 아주 다른 표정들로 나가는 수용자들을 볼 때 내 마음도 기뻐다.

김명수 형제가 전도하여 오늘 처음 나온 어느 수용자는 내게 이런 말을 하고 간다. 김명수가 아니었으면 인천에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명수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살인죄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 때 당

시에는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고 죽고 싶더라는 것이다. 그 때 한 방에 있었던 명수가 자신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힘을 내시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성경책을 전해 주더라는 것이다. 그가 전해 준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명수가 이곳 구치소로 오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곳에서 명수를 다시 볼 수 있었어 너무 좋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오늘 내 간증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용자는 여주 교도소에 있을 때 기독교 거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다음 교리 시간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것이다. 그럴잖아도 찬양 인도해 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어 그렇게 하자고 했다.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나의 간증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살아 계신 성령님을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아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들 수용자들을 만지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찬양을 불러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간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 줄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 사용하실지 떨립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하면 몸과 마음에 전율이 감돕니다.

인도하소서.



저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2011.10.21.

오늘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간증 수기 마무리에 혼 힘을 다하고 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뭔가의 힘에 이끌려 써 내려가고 있었다. 평소 간단한 메모조차도 쓰기 싫어하던 내가 이렇게 방대한 양의 간증 수기를 10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생각해도 불가사의 한 일이다. 내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내게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잠재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아니 기존에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능력인 것 같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 같아 보였다. 아니 보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없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며 쉬고 일어나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밟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139:1~6)

미완성 간증집을 한 부 출력하여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오늘따라 누군가의 손에 들려 쥐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책상 위에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때마침 유용원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오셨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신 것이다. 마치 유용원 목사님에게 전해 주라는 것 같았다. “지금 쓰고 있는 간증

집인데 오늘 한 부 출력하여 사무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 저도 궁금하던 차에 목사님이 오셨네요. 아마도 성령께서 목사님께 드리라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받아 보시더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김 주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쓰고 있으신 간증집 혹시 책으로 출판하고 싶으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책으로 출판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누가 막는다고 해서 출판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시면 내가 아무리 출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를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만 할뿐입니다. 목사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죽음에서 살려 주신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씀드렸다. 볼 일을 보시고 간증 수기를 가지고 가셨다.

오후 늦게 유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주임님, 책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더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유용원 목사.”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4:5~6)

심고 물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지금까지 1여 년 동안 제게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아려 온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상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린다. 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지금까지 1여 년 동안 일어난 일을 쓰게 하셨지만 이제 이 글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해 본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내가 해야

할 몫은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간증집이 출판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출판되었을 때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다. 문서 사역과 교정 사역의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소명을 믿고 붙들고 사용되어 질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다. 그 사역이 언제 시작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6~8)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여 년 동안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살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내 손에서 떠나갈 간증 수기가 세상으로 나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 주는 손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간증 수기를 오픈하게 하시다

2011.10.24.

사무실에 출근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간증집 일부분, Chapter 01과 Chapter 02를 출력하여 누구를 줄까 생각하고 있었다. 교정 시설 내에서의 선교사 역할을 담당할 김명수 형제에게 줄지 아니면 다른 수용자에게 사용할지를 놓고 기도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해 보았다. 누구의 손에 먼저 들어갈지는 성령만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오후 퇴근 무렵 기독교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통의 전화가 왔다. 나동 2층 근무를 하고 있는 김범수 집사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자기 사동에 있는 정용상이라는 마약 사범이 나에게 기도 받고 싶다는 전화였다. 마약 사범 정용상!! 마약 사범으로 출소했다가 얼마 전 다시 들어온 그 사람, 출소 전에 박진석 목사님과 상담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머리와 이마가 땀방울로 범벅이 되었던 그 사람, 출소 후 다시 마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다시 들어 온 그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 수감되면서부터는 전에 복역할 때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수용 거실에서 독거 생활을 하면서 필사 성경 노트에 성경을 필사하는 기쁨에 폭 빠져 있다. 그 사람이 내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프린트한 간증 수기를 들고 정용상 수용자를 만나러 사동으로 올라갔다. 그 수용자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사동 담당직원이 사회복귀과 김 주임이 상담하러 왔다고 하니 운동을 멈추고 나오는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수건으로 땀을 닦고 의자에 앉는다. 먼저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 후 정용상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마음의 부담 때문에 내게 기도 받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금은 걱정이 되

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아무 일 없다는 것이다. 그냥 나에게 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경에 쓰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1~14)

감사한 일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다. 정용상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대화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정말 그런지 묻는다. 그렇다고 말해 주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함께 들고 간 간증 수기를 건네주면서 읽고 은혜 받으라고 말하고 기도 후 그 사동을 나와 김명수 형제가 수용된 사동으로 이동하였다. 안인구 목사님께서 주신 우리들교회 큐티집 ‘이슬비’와 ‘빛과 소금’ 등 기독교 관련 서적 몇 권을 들고 김명수가 수용된 사동 거실에 도착하였다. 명수가 수용된 거실 앞에 도착

하여 시찰구로 들어다보니 혼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갑자기 찾아와서인지 놀라는 표정이다.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 것이다. 보고 싶어 왔다고 하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가지고 온 몇 권의 책을 주면서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배식구에 손을 넣고 명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다. 생활 잘하라고 말하고 가려는데 옆방에 있는 몇몇 수용자들에게 전도하였다고 기뻐하는 것이다. 가시는 길에 옆방에 들러 자신이 전도한 그들에게 기도라도 해 달라고 한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주님께서도 김명수의 전도하심에 기뻐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여 주었다. 주님은 김명수 형제를 이곳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만지시는 것 같았다. 열심히 생활하라고 말하고는 옆방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는 김명수가 전도하여 기독교 교리 지도 시간에 나오는 동두천 조직 유용해가 있었다. 명수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가라고 말해서 왔다니까 그들도 웃는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기도하자고 하니 모두 숙연해지면서 서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앉는 것이다. 창살을 붙잡고 주님께 이들의 애통함을 만져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로 세워 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권면하고 사무실로 내려 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1:1~6)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을 찾아 가는 우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용상 형제를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김명수 형제를 볼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도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10.27.

어제 간증 수기 1부를 출력하여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은종국 집사님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 왔다. 사무실에 커피 한잔하러 가도 되냐고 하길 래, 시간 있으니 오시라고 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함께 왔다.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여 사기를 당하고 물질로 힘들어하시는 김 기사님을 모시고 온 것이다. 전에 최돈명 집사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분이 함께 오신 것이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공허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 평소에도 만날 때마다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말했던 그 분이시다. 어제 내가 간증 수기 1부를 출력하여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임자를 찾은 것 같았다. 할렐루야!!

커피를 마시면서 상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마음고생으로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풀이 죽어 있는 김 기사님께 위로의 말을 전해 주고 싶었다. 교회 다니시는지 물었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시는 것이다. 교회에 나간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냥 몸만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라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다녔는지는 몰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옛날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살아 온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예전에 어떻게 생활했던지 간에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지금 영접 기도를 하자고 말하고 김 기사님의 손을 붙들고 내 기도를 따라 하라고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드렸다.

지난 11월, 자살하려고 하던 때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온통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죽는 것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때가 생각이 났다. 아마 지금 내 앞에 앉아 머리 숙이고 있는 김 기사님 마음의 상태가 그 때 그 마음이 아닐까 싶었다. 잘 오셨다면서 격려해 주고 지난 1여 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간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었다고 전해 주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때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할 때 이뤄진다는 축복의 비밀을 알려 주었다.

2억이란 빚을 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 회생이란 응답을 주셨고 그 결과 현재 불가능해 보였던 개인 회생도 인가 결정이 나, 2억이란 빚을 해결해 주셨다. 지금 많이 힘이 드시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드렸다. 반드시 지금의 이 곤궁함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심어 주었다.

간증 수기를 손에 들려주면서 집에서 읽으시고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갔는지를 참고하시어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다. 덧붙여 내 책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길잡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김 기사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께 매달려 해답을 달라고 간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다.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주님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곤고함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



렸다. 은종국 집사님과 김 기사님 모두 감사하다면서 문을 나선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3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을 제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압니다. 지금 얼마나 곤궁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압니다. 이리보고 저리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만이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보여주신 빛을 김 기사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비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김 기사님도 저와 같이 주님을 증거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 드리는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그 일로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되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10.29.

오늘은 토요일이다. 방송근무가 있어 사무실에 출근하여 앉아 있었다. 조금 후 이병춘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들려도 되겠냐는 것이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 오라고 하였다. 이병춘 집사는 직장 동기(同期)다. 믿음의 사람이다.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현재 구치소 직원 선교회 선교부장을 맡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매주 토요일 나와서

각 사동을 걸어 다니면서 나눠 주는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 갇힌 수용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 매주 신문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조금 후 이병춘 집사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커피를 한잔 타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둘이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명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것 같은데 아직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지금 온누리교회 신문을 매주 돌리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하여 A4용지에 4쪽으로 나누어 말씀을 프린터 하여 문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 마약사범 정용상 사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가 준 간증 수기를 읽은 그가 많은 변화를 보여 놀랐다는 것이다. 진실된 마음이 녹아 있는 글이 이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자신도 문서 사역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이번이 그 기회인 것 같아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자신과 함께 문서 사역을 해보자는 것이다. 갑작스런 제안에 선뜻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만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보자고 말해 주었다. 이 집사의 아이디어는 참으로 좋다고 칭찬해 주고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해 주고 기도하고 응답받자고 하였다.

당장 시원스런 답변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내가 지금껏 지켜 온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기도로써 묻는 내 믿음의 원칙은 지키고 싶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 1여 년 동안 내게 가르쳐 준 주님의 믿음과 기도 원칙이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

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18:20~22)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62:5~8)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주께 헌신(獻身)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의 유무를 떠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집사에게 좋은 제안해 주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이 집사님의 뜻을 주님께서 분명 높이 세워 주시리라고 믿는다면서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내 간증 수기를 건네주며 은혜 받으시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후8:5)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사람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치소 직원 선교회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병춘 집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나와 함께 문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의 고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서 사역을 통하여 이곳에 갇힌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10.31.

오늘은 박진석 목사님이 하는 자살 예방 상담에 입회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동거녀와 함께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하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박○○ 수용자에게 간증 수기를 전해 주었다. 그 때 당시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구하고 있었다. 죽은 아내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성령님께서 먼저 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30여년 세월을 이곳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이 수용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 왔다. 성령님의 위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곳 교정 시설 안에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반드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으로 믿는다. 수용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간증 수기를 손에 들려 보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읽어 내기를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에 또 동참할 사람을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곳이 담으로 둘러싸인 곳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비록 이곳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 아닙니까?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선한 일이 이곳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회심 후 살인 사건을 자수하게 하시다

2011.11.07.

오늘은 미결수 기독교 교리 지도가 있었다. 저번 주보다 많은 수용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한결 나아 보였다. 그들 중 김명수를 비롯한 조직폭력수용자들도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다. 주님 쪽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삶을 전환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내 가슴도 벅차 왔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실 것이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더니 지난 주 내가 사용한 약재료

(나의 간증)를 통하여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자신이 오늘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고 말한 오○○ 형제였다. 그 수용자의 찬양 인도에 따라 찬송가를 부르는 수용자들을 보는 내 마음도 매우 흐뭇해졌다. 아마 주님도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는다. 잠시 후 박 목사님을 모시러 정문으로 갔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1:23~25)

박 목사님의 교리 지도가 끝나고 난 후 마약 사범으로 수용되어 있는 유용해 수용자가 내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다른 수용자들을 모두 수용 사동으로 올려 보내고 그를 상담실로 데리고 왔다. 김명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난 이후 오히려 김명수 보다 더 믿음이 깊어진 동두천 조직폭력 출신 형제였다. 그 형제가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감돌고 있었다. 상담실에 앉히고 커피를 타서 그에게 내밀었더니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인다. 마치 조폭들이 형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90° 인사를 하는 것이다.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유용해가 동두천 조직이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곧, 그가 조직이라는 사실이 기억이 나서 속으로 웃었다. 커피를 한 잔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다. 순간, 커피 잔을 놓칠 뻔하였다. 내 귀를 의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15년 전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검찰에 자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나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15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 자수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검찰에 자수하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수로 인하여 자신 뿐 아니라 박모씨 등 공범들에게 피해가 갈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자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수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손길에 맡기기로 하고 자수를 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지금까지 마음에 부담감으로 자리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자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이다. 이 이후에 받게 될 처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내일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기도 부탁한다면서 우는 것이다. 울고 있는 그의 손을 만져 주면서 격려해 주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 났으니 주님께서 이제부터 일해 주실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자고 말해 주었다. 지난 11월 이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나이기에 감히 말할 수 있었다. 동두천 조직 출신인 그가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인 사건을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만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결심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반대편 소파에서 울고 있는 그의 곁에 다가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도 내내 울고 있었고 그의 손을 통해서 전해 오는 떨림도 느낄 수 있었다. 기도 후 그를 수용 사동으로 올려 보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사35:3~4)

한 사람의 회심이 이토록 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 15년 전의 일이면 지금 미제 사건으로 남아 경찰서 캐비닛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져가고 있을 사건이었다. 자수하지 않는다고 그에 대한 형을 선고 받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모르기 때문이다. 경찰들도 증거 부족으로 진실을 파헤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죄책감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들어난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

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의 작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저녁에 유용원 목사님, 안인구 목사님께 유용해 수용자의 자수 사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유용해 수용자를 크게 쓰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지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5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살인 사건을 회심으로 인하여 토해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생각이 나서 잠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지금 자수하였다고 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엄청난 일을 자수한 유용해가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는지요? 그 일을 생각했을 때 죄책감으로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한다고 하니 주님께서 이 사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유용해 수용자가 보낸 편지

유용해와 상담을 하고 2주 후에 있었던 미결수 기독교 교리 지도 시간에 유용해가 참석하였다. 교리 지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내게 한통의 편지를 전해 주었다.

"김치진 주임님께 올립니다. 어쩌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 위해 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가 되었나 봅니다. 이제 저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번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던 지난날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 응

어리진 것을 푼 것 같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걷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할 일과 앞으로의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주임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한 기회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 여깁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늘 업무가 많으셔서 바쁘시고 힘드신 상황에서 도움 주시고 인도하심이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임님, 앞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훗날에는 제가 큰 도움이 되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신 주임님을 평생 잊지 않고 더욱더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며 이젠 저도 누군가에게 그 큰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가정과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졸필 이만 줄이겠습니다. 유용해 올립니다. "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사건이 자신에게 큰 정죄감으로 다가와 잠을 이룰 수 없어 검찰에 자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내려놓으니 정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다. 김명수 형제의 전도를 통하여 처음 교리 지도 시간에 나올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어 보였다. 성령님의 만져 주심이 있음에 틀림없어 보였다. 김명수 형제의 전도와 나의 간증을 통하여 그리고 박진석 목사님의 영접 기도 등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있을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것 같았다. 온갖 세상적인 죄로 얼룩진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그 유용해 형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의 만저 주심을 통하여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게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을 동일하게 이곳에 수용된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나와 동일한 의과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의 말처럼 저들도 또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갈 때 가족, 주위 사람 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계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지만 이곳에서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동두천 살인 사건과 나비 효과

유용해가 편지를 주고 간 일주일 후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였다. 지금도 주님께 유용해 형제를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유용원 목사님, 안인구 목사님께도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살아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건너편에 앉아 있는 유용해 형제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살인 사건 폭로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그의 얼굴에선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광채가 나는 듯하였다. 할렐루야!! 분명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마

치 내가 자살의 두려움을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형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사35:10)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유용해 형제의 얼굴을 두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하였다.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유용해 형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회심하고 마음의 가책으로 자수하기로 한 이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다. 선배인 박모씨도 주님께서 만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생기자 마음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이다.

그 후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안 되더라는 것이다. 오히려 차분해지고 지금까지 짓눌려 왔던 것이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얼마의 형량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유용해 형제와 관련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몇 달 전에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치소로 돌아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만약 자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무거운 정죄감이 자신을 따라 다녔을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자고 결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그 말을 하는 유용해 형제의 얼굴엔 기쁨과 평안함이 흘러 나왔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내게 고백하는 것이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이곳에서 출소하든 못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 기쁨과 평강이 내게 전해져 왔다.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사동으로 올려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살아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의탁하면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해 형제가 회심 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마자 일을 시작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용해 형제를 통하여 얼마나 큰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유용해 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일을 보여 주시려는지요?

앞으로 유용해 형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요?

유용해 형제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용해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후 그로 인하여 그가 수용된 거실 뿐 아니라 사동 전체에 많은 수용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은 모두 마약 관련 사범만

을 수용하는 곳이다. 이들 향 사범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하여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힘이 든다. 하지만 유용해의 회심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수용된 사람들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직원들도 그 거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사범을 수용하는 거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그들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변화된 유용해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그가 있는 거실에 들어오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나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볼 때 내 마음도 흐뭇해졌다. 매주 월요일 있는 미결 집회, 교리 지도 시간에 참석하여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곤 했었다.

2012년 6월 25일, 기독교 잡지와 간증집을 몇 권 들고 김명수와 유용해가 수용된 사동으로 올라갔다. 그곳에 상담할 일이 있어 올라가는 길에 책을 줄 생각으로 들고 간 것이다. 사동에 올라갔더니 마침 김명수가 운동하는 시간이라 복도에 나와 있었다. 나를 보더니 내게로 오는 것이다. 손을 잡아 주면서 성경 열심히 보며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면서 놀라운 말을 내게 하는 것이다.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작년에 유용해가 자수한 살인 사건이 저번 주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 유용해가 자수한 동두천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후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각되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는 것이다. 요즘 신문 볼 틈이 없어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사무실에 내려가서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 보겠다고 하였더니, “지금 용해 형님이 많이 힘들어할지도 모르니까 기도 한번 해주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알았다고 말하고 바로 유용해가 수용된 거실로 향했다. 거실 앞에 도착하여 유용해를 불렀더니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다. 명수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신문에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가 났다고 하던데 괜찮은지 물었다. 그랬더니 의외로 담담해 하는 것이다. 걱정하고 있던 내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내려왔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인터넷 신문 검색을 해 보았다. 『동두천, 보험, 살인』을 검색 창에 넣고는 엔터를 쳤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는가?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 한 수형자를 회심(回心)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 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에 도배하다시피 보도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보험 사기와 관련된 희대(稀代)의 연쇄 살인 사건이었다.

“가족을 보험 재테크로 삼은 연쇄 살인마”

“조폭 출신 40대, 보험금 20억 타려고 아내·동생·처남 살인”

“공범과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 술집 운영 자금 탕진”

“폭력배 후배 제보로 '10년 범행'덜미 잡혀”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996년 10월 경 동두천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씨가 조직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폭력배 후배인 유용해 형제와 전씨를 불러 살해를 지시했으나 유용해 형제는 “형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서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씨는 박모씨의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사망 합의금과 의료비 명목으로 1억 2,420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살인 행각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9월 친동생에게 약을 먹인 뒤 의식을 잃게 하고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여 보험금 6억 원을 타냈다고 한다. 동생을 죽이고 타낸 돈으로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던 그가 이번에는 2006년 1월경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게 된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재혼한 아내의 친 남동생이었다는 것이. 2006년 4월, 처남을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에 태워 교각을 들이 받아 죽여 살해하고 보험금 12억 1,867만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박모씨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차량 사고가 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박모씨 사건에 대해 조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덮어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유용해 형제의 회심으로 인하여 연쇄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수사 전담팀이 꾸려지고 연쇄 살인사건의 증거들을 하나 둘씩 모아 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모씨의 범행 일체가 들어 나게 된 것이다. 작년 11월 회심하여 살인 사건을 자수한 후 8개월 만에 사건의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사무실에서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 친동생, 처남까지 살해하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죄악이 어디까지 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파 왔다. 자신과 함께 몸을 맞대고 살아온 아내를,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나온 친동생을, 자신의 아내의 처남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했을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성경 말씀에 이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다(롬1:28~32).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성으로 인하여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하는 형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자신이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악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 마음은 피폐해지고 자신이 왜 이런 악을 행하는지 그 원인도 모른 채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벌인 것이다. 인간이 가진 죄를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행실이 가증스럽게 된다는 것이다(시14:1~6).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

님 품으로 돌아오길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들 용의자들도 동일하게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45년 동안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다가 모든 물질을 잃게 함으로써 징계를 하셨다. 이것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자 아들 동건과 아버지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마찬가지로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은 특별 사면장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창2:17; 계20:14). 만약 사면장을 받지 못한다면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그 뜨거운 불과 유황 못에서 괴로워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계20:10). 뜨거운 것에 살점이 조금이라도 데게 되면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가? 하지만 사형 선고에 대한 사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영벌인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형벌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는가? 그것도 잠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하고 영원히 받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최후 심판 때 사형이 집행될 운명에 처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진노의 잔을 쏟지 못하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죽음에서 벗어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형 집행에 대한 특별 사면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도 사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장일 것이다.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동일한 사면장을 주셨다. 그 사면장은 그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의심하며 콧방귀를 끼고 있다. 자신이 진짜 죽어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동두천 살인 사건을 저지른 박모씨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면장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섭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이 살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일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사랑의 징계인 것이다. 죽음의 낭떠러지로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어 징계함으로써 죄악을 멈추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지도 모른다.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 함을 얻기 바란다.

유용원 목사님과 안인구 목사님에게 이 사건을 저지른 박모씨를 비롯한 모든 용의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 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였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들 마음속은 얼마나 힘이 들까? 진정으로 힘이 들고 괴로워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 자신인지도 모른다. 이들도 자신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로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는 힘들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죄성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니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요8:3~11; 마7:1~5)

이렇게 죄악을 방치를 해 둘 때 그 죄의 씨앗으로 인하여 많은 악행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들 마음속에 온갖 부정한 것과 추악한 것, 욕심, 시기, 살인, 다툼, 사기,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건방지고 악한 일을 꾸며 내는 것이다.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인정 없고 무자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동두



천 사건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는 내 마음도 조금해지는 것 같았다. 한 사람이라도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 죄의 늪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도 조금해졌다.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조금해졌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죄에서 자유 함을 얻기를 바란다. 나도 이들의 회개와 주님 영접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하여 이들이 변하고 변한 이들을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변하길 기도하겠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도 엄청날 것이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살해되고, 자신의 친동생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얼마나 아픔이 클지를 알지 못한다. 이들 모두가 하루 빨리 상처에서 치유되고 진정으로 용의자들을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해 본다. 용서를 통하여 마음의 부담과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들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해 본다. 유 목사님과 안 목사님께도 이들 가족의 치유를 위해 또한 기도를 부탁하였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한 형제를 회심시킴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15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살인 사건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까지 해결하게 해 주신 것이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전3:17~18)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것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믿고 확신할 수 있다. 이 형제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어 간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 주신 것을 믿는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하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어 하신 것이다.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유전인자에 가지고 있던 죄성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마치 균이 자라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 듯이 우리 마음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부패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한 형제를 회심하게 만들어 이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어떤 경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죄의 심판은 임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동두천 살인 사건처럼 한 사람의 회심으로 진실이 밝혀져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악을 저지른 사람 스스로 갖게 되는 죄의식 때문에 그가 고뇌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쫓겨 살게 됨으로써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심판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뿐일 것이다. 그 외 사람들은 그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동두천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전7:26)

이런 현상은 과학계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다.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 낸 ‘나비 효과’를 이후 1972년 미국 과학 부흥 협회에서 『예측 가능성 -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

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란 제목의 강연에서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으나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매우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 내재된 일정 규칙이나 법칙을 밝혀내는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나비 효과는 공간적인 영역에서 뿐 아니라 시간적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의 어떤 일이 미래에 엄청난 일에 영향을 끼쳐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용해의 회심으로 인한 작은 믿음의 고백이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동두천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나비 효과는 성경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한 실천(유용해의 회심과 자수)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미제로 남아 있던 동두천 연쇄살인사건 해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를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도 서 말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은 작은 것이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은 복음이 밀가루 서 말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변한 내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변한 가정과 직장이 사회를, 그 변한 사회가 국가를, 그 변한 국가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만을 목격하면 된다. 나는 믿는다. 작은 믿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

는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어질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이다. 할렐루야!! 이번 동두천 사건의 전모를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5:4)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60:21~22)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가 이처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동두천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유용해 형제를 회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할 유용해에게 자유 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모씨를 비롯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들 공범자들 모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 함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비록 엄청난 큰일을 저지른 그들이지만 동일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들 때문에 상처 입게 된 가족들도 동일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자식을 잃은 부

모들, 동생을 잃은 아내가 입게 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을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김양재 목사님을 처음 만나다

2011.11.15.

수원영락교회에서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초빙하여 재직자 세미나 겸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존경하던 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사를 제쳐 두고 가기로 했다. 목사님이 저술한 책을 통하여 알고 있던 목사님을 직접 뵈 수 있는 절호의 기호가 온 것이다.

퇴근 후 바로 주차장을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몸을 움츠리고 있다. 하지만 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추운 줄도 몰랐다. 차를 타고 영락교회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총 목사님을 안지는 10년 가까이 되는데 영락교회는 처음으로 찾아온 것 같다. 구치소 종교위원으로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다. 처음 오는 곳이라 본당을 찾기 힘들었다. 주차장에서 나와 정문처럼 보이는 물을 열고 사람들을 따라 올라가 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도 있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계단을 택했다. 걸어서 가는데 긴 복도가 나왔다. 중간쯤엔 목양실이란 뜻말이 붙어 있었다.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겠구나 생각하면서 통과하려는데 목양실에 계시던 이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다. 김양재 목사님, 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사무실에 앉아 계셨다. 예배 전이라 부담이 될 것 같아 조용히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고 만 것이다. 할 수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다. 뜻밖의 방문이라 놀란 눈치였다.

오늘 김양재 목사님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여,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순간 김양재 목사님이 내게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자 내가 먼저 인사를 드렸다.

“김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더니 웃으신다.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다. 오늘 김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신다고 하기에 잠시 들러 은혜 받고자 하여 왔다고 하였더니 고맙다고 인사하신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와 3층 본당으로 올라갔다. 찬양 팀들의 찬양 연습이 한창이었다. 본당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기도 후 찬양을 따라 부르며 은혜를 나누었다. 조금 후 우리들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안인구 목사님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이 목사님, 김 목사님이 본당으로 들어오셨다. 세미나가 시작될 모양이다. 이 목사님의 김양재 목사님 소개로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다. 책에서 읽었던 간증 말씀이 중간 중간 양념처럼 들어간 설교 말씀이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리신 흔적이 고스란히 내게로 전해져 왔다. 애통함과 사랑이 전해져 왔다. 정말 무지한 영혼들을 놓고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왔다.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써 간구하는 마음이 전해져 왔다. 지난 11월 이후 눈물로써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주님께 사죄를 구한 나는 김 목사님의 애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얼마나 간절하신지 알고 있다. 그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내게로 전달되어져 왔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다. 목사님이 힘들어하던 시절 에스겔 말씀을 전해 받았다고 한다. 나도 에스겔 말씀을 받았는데 김 목사님도 에스겔서를 부분을 언급하시자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 머리를 스

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33:11)

예배가 끝나고 안인구 목사님, 이우정 목사님, 차영진 목사님 그리고 교정 사역을 위해 들어오시는 몇몇 집사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인지 몰라도 더 반가워하셨다. 김 목사님은 현관 입구에 마련된 곳에서 일일이 저서에 사인을 해주고 계셨다.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조금은 안쓰럽다는 연민의 정이 들긴 했지만 주님이 손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진 않았다. 저렇게 가녀린 여인의 몸에서 어떻게 저런 열정이 쏟아 나는지 인간의 눈을 보면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없는 것, 작은 것, 가녀린 것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역 방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현관 입구에서 성도들을 일일이 배웅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 목사님께 목요일 기독교 분과회의에서 뵙자고 말씀드리고 교회 문을 나섰다.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슴이 떨려 왔다.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통함과 사랑이 배어 있는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위해 간절함이 있을 때 애통함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누군가를 놓고 애통해 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뵈었을 때 많은 것이 내게로 전해져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죄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한 형식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진실한 죄 사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서 돌아오면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요? 왜 그들은 죄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애통함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애통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김양재 목사님을 통하여 책을 주신 하나님

2012.1.9.

교도소에 갇힌 수형자들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교정 시설에 갇힌 이들에게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싶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선교팀들이 전해 주는 말씀과 제한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리 지도뿐이다. 자신들이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다고 시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에 비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편인가!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이다.

이처럼 제한된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책을 통한 문서 선교이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선배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한다. 들음이란 귀로 듣는 음성 전달 방법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성령이 주는 음성을 듣고 믿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구치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형자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책을 통한 구원의 전달이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많은 은혜의 책을 보내 주신 최돈명 집사님의 경우, 수용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까지 문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를 통하여 힘들고 지친 나의 마음은 쉼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최 주임님이 내게 전해 주었던 책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최 주임님이 보내 준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오늘은 안인구 목사님에게 제자 양육 받는 날이다. 집에 오시는 길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저술한 책과 Q.T집을 가지고 오셨다. 어느 교인이 구치소 사역을 위해 김양재 목사님에게 100만원을 헌금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귀한 것을 특별히 이곳 구치소 교정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라고 하시면서 책을 사서 보내 주신 것이다. 이곳 교정 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책이라는 사

실을 아시기라도 한 듯이 귀한 책을 보내 주신 것이다.

김양재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감사의 메일을 보내 드렸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김양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수원 구치소 기독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치진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수원영락교회 이은총 목사님 사무실에서 잠시 인사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는지요? 김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였더니 웃으셨는데 기억하시는지요?

평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말씀에 대해 사모하던 차에 수원영락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던 것입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직접 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귀하신 말씀까지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안인구 목사님으로부터 귀하신 책을 전달 받았습니다. 평소 교정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 목사님으로부터 김 목사님의 귀하신 뜻을 전달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소 문서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저로서도 김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시다만 이곳 수용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성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귀하신 말씀이 녹아 있는 책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작년 1년 동안 다른 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책을 통하

여 많은 은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치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접 귀하신 책까지 보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수용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보내 주신 책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주님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간을 할애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빼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내 주신 책과 구치소에 수용된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구치소 기독교담당 김치진 올림.”

김양재 목사님과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메일을 직접 읽어 보시고 친히 답장까지 보내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신지 기억합니다.

타교인 한분이 구치소에 책을 보내 달라고 현금하셔서 현금만큼 전달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복복 8복!!! 많이 받으세요. 김양재 드림.”

##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 주시다

2012.03.13.

오늘 기독교 집회 후 경제 사범으로 들어온 수형자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 이

번 달에 출소하는 수형자였다. 집회에 나오는 수형자 중에 그 달에 출소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들에게 내 간증과 기도를 해 주고 있다. 그들에게 출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 이곳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곳에서처럼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수시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도록 권면한다. 아울러 이곳에서 다시 만난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가족이, 이웃이, 사회가, 국가가, 더 나아가 세상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라고 권면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17~21)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수형자를 상담실에 불러 내 간증과 이런 저런 권면의 말을 전해 주고 있는데 내게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수형자는 어렸을 때 정말 집이 가난하여 친구들에게 멸시 당하고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비정상적으로 심했다는 것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어머니가 싸 주시는 도시락을 점심시간 때 먹지도 않고 그냥 운동장에 있는 수돗물을 마시면서 허기를 채웠다는 것이다. 가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저랬을까 싶어 마음이 아파 왔다. 순간 그에게 “어머니가 싸 주신 도시락을 왜 안 드셨냐?” 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정은 너무 가난하여 반찬이 오직 김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일 먹는 것이 김치라는 것이

다. 아침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그리고 점심 도시락도 유리병에 담은 김치였다는 것이다. 가끔 버스를 타고 가다 김치 국물이라도 가방에 흘리는 날이면 창피해서 버스에서 내려 학교까지 걸어갔다는 것이다. 집에서 먹는 김치는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런대로 먹었지만 학교 점심시간에 매일 김치만 싸고 오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김치만 싸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그 마음을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점심시간이면 자리를 피해 운동장으로 갔다는 것이다. 점심으로 싸 간 도시락은 집에 와서 엄마 몰래 먹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신의 집이 부끄러워 친구들은 집에 데려올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 때부터 마음의 문을 잠그고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쌓으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들에게 가난한 집에 사는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 집에 없는 금송아지도 만들 정도로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더라는 것이다. 거짓말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더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진짜 누군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변해 가더라는 것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잠19:1~5)

지금 생각하면 가난은 살아가는데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왜 그때는 그런 비뚤어진 생각으로 살았는지 자신이 불쌍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의 돈을 받아 주는 심부름센터까지 해보았다는 것이다. 남의 뒷조사를 해주고, 남의 돈을 받아 낼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짓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사업도 본궤도에 들어서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들 보기에 창피한 일은 손을 떼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에 손을 댔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골에서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자신이 어느 정도 돈

이 모이자 시골에 가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불리어지게 되었고 그럴 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가더라는 것이다. 돈이 주는 권세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돈도 생기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리가 잡힘에 따라 결혼이 하고 싶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의 중매를 봤으나 눈에 차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 나온 아가씨는 한눈에 반할 정도로 자신의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다. 자신과 결혼하자고 하자 교회에 나가는지 묻는 것이다. 자신은 교회에 나간 적이 없고 신은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는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결혼은 안 될 것 같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더라는 것이다. 헤어지고 났는데도 며칠 동안 머리에서 맴돌아 중매쟁이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결혼 조건으로 반드시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아내를 처음 본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할 테니까 결혼하자고 청혼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혼 전, 연애 기간 동안 착실히 교회에 나가면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다녔다는 것이다. 오로지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 일념에서 말이다. 하지만 목사님이 무슨 소리하는지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참고 교회에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설교만 들으면 하품이 나고 졸음이 몰려왔다고 한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하고 싶어 꼭 참았다는 것이다.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에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에 사로잡혀 교회 가는 것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게 되었고 결국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잠12:19~21)

교회에 나가는 부담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매일 밤이면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유부녀와 눈이 맞아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날에는 상갓집 간다고, 또 어떤 날은 사업 상 지방 출장 간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그녀와 밤을 새우는 날도 늘어만 갔다고 한다.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집안에는 무관심해지고 아내가 “왜 이렇게 요즘 늦게 들어 오냐?”, “왜 집에 안 들어 오냐?” 물으면 오히려 “남자 하는 일에 왜 이렇게 간섭 하나?” 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욕박지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유부녀인 자신의 내연녀와는 만나는 횟수가 더 늘어났고 결국 그녀가 집에서 가출하여 자신과 떠날림을 차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그녀와의 살림살이도 싫증이 나서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욕에 맛을 들인 그는 얼마 후 또 다른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였고, 이렇게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 때 당시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듯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가정생활도 피폐해지고,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맛을 본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더라는 것이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쏫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6:25~29)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것이 화가 되어 돌아 왔다는 것이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 여자의 미모에 빠져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그 여자의 집까지 가서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이 닥치더라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만났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 온 것이다. 죽도록 맞고 만신창이가 되었고 협박에 못 이겨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곳에 구속되어 생각해 보니 그 여자가 바로 신문에서 보

도되는 그 꽃뱀이 아닌가 싶더라는 것이다. 사업도 힘든 상태였는데 이 돈까지 지불하게 되자 급속도로 자금난에 빠져 결국 부도 처리되고 구속까지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구속되어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은 것 같더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부터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지금의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6:7~10)

마지막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돈까지 잃게 되자 그 때서야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다. 술과 노름과 여자 등 온갖 쾌락만을 추구할 동안에 아내와 자식들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더라는 것이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벌레 보듯 하였지만 그 때도 아내는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새벽 늦게 집에 들어 왔는데 작은 방에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술로, 여자로, 도박으로 자신의 마음고생을 시켰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뼈를 갈아 씹어 먹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제발 돌아와만 다오! 주님 제발 남편을 가정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만 해 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문 밖에서 듣는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못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에 자신의 죄악 됨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빌었다고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열심히 가고, 이제는 당신만을 위해, 가정만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빌었다고 한다. 그렇게 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아내는 울음 반, 웃음 반으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를 껴안아 주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이다. 비록 물질은 다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면서 우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5:15~16)

간증 내내 우는 그를 보고 나도 흐르는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울고 있는 그 형제의 손을 잡아 주면서 위로해 주었다. 이제 출소하시면 지금 만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지난 날 가족들에게 못해 준 사랑을 많이 베푸시라고 말씀드리고 기도 후 작업장으로 돌려보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에 복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만져 주시어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수형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이 두 사람 있었다. 하나는 나의 아내요 다른 하나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다. 방탕했던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 어거스틴(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년 ~ 430년)은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였다. 로마제국 말기 청년시절에는 정욕에 이끌려 쾌락을 추구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한다. 도둑질을 한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한 불의의 욕망과 감정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 온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혹시 아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녀와 죄를 짓지나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영혼은 점점 더 병이 들어갔고 육체의 쾌락 추구는 정도를 더해 갔다고 한다. 결국 그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변태적인 불량배들과 휩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여 구원은 요원해 보였다. 이를 지켜 본 어머니는 당시 주교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지만 주교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단 사설에 빠져 교만해져 있는 그를 아무리 자신이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돌아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얼마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스스로 마니교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간청하자, 주교는 “자! 이제 가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흘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 위로해 주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시22:24)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 그의 나이 32세 때 자신이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위선자임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다. 수년 전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결과 어머니 소원대로 어거스틴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30:11)

그 이후 388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395년에는 히포 주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 울부짖으며 간구한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는 순간이었다(약5:15~26).

이 수형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또 다른 한명은 바로 내 아내였다. 내가 허랑방탕한 생활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이 수형자의 아내처럼 내 아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과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7)

## 방언으로 통성기도 하다

2012.06, 16,

오늘은 법교선(법무부 교정 선교회) 산하 대전지방교정청 교정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합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다.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김기훈 장로님이 회장 직분을 맡고 계신다. 김 장로님은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주관하는 연합 예배와 기도회 때 두 번 뵈는 적이 있어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 집이 공주이라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기에 역전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다. 차 안에서 교정 사역에 대해 이런 저런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렸다. 차를 태워 주어 감사하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곳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의 회심과 특별히 구치소 교정 선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다. 차를 길가에 세우자, 김 장로님이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 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3:6)

정말 인상에 많이 남았던 분이시다. 그 분이 회장으로 인도하는 대전지방교정청 연합회 기도회가 6월 16일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월요 기도회 때 광고를 하는 것이다.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 미력하나마 나도 기도로써 힘을 보태 줄 수 있게 꼭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다행히 그 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서울지방교정청 연합회 회장이신 노정수 강도사님과 구치소 직원 선교회 선교부장인 이병춘 집사와 함께 내 차로 대전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토요일이라 야외로 가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았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였는데 신갈부터 천안까지 계속해서 정체가 되는 것이다. 기도 모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도회 장소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교도소 직원 기독선교회 회장님이 대표기도를 하고 있었다. 맨 앞자리가 비어 있어 조용히 자리에 앉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다.

前 법교선 연합회 회장이지자 ○○교도소 소장님이신 신경우 집사님도 중앙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눈에 익은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목사님의 말씀 인도, 임춘애 집사님과 남편의 간증에 이어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에 기도회 장소가 뜨겁게 달궈져 가고 있었다. 끝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특별히 목사님은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욕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나도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나오던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뱃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내 목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리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방언기도가 기도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멈추려고 했지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나오는 대로 기도하였다. 거의 한 시간 동안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한 것 같았다.

“랄랄랄랄랄~~~” , “다다다다다~~~” , “랄랄라알다다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전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고전14:4~5)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전14:14~15)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14:37~39)

## 신학에의 꿈을 꾸게 하시다

2012.6.20.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 두 분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나보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다. 특히 영어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라고 하신다.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평소에 신학을 전공하여 목회자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평신도로 남아 평신도 사역을 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터라 내게 신학교를 가라는 교수님들에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학을 해야 한다면 야간 신학대만

다닐 수 있는데 교수님 학교에 야간 학부가 있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야간 학부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후에 어느 여인이 나타나 교수님들에게 엄청 큰 로열 젤리와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큰 벌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마치 옛날 신라 시대 왕관 옆에 나와 있는 무늬 형상의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받은 교수님이 이것을 다시 내게 건네주는 것이다. 나보고 먹으라는 것이다. 그 귀하게 보이는 것을 받아 한 입 물었더니 맛이 기가 막혔다. 지금까지 먹어 보지 못한 맛이였다. 그 여성분이 내가 먹는 것을 보더니 몸에 엄청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여성분이 아주 좋은 하얀 밍크 코드 같은 걸옷을 내게 직접 주시는 것이다. 내게 잠깐 맡아 두라고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입으라고 주시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주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 받은 옷을 가지고 교수님이 말한 신학교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옷 안에 아주 귀하게 생긴 가방이 하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 옷과 가방을 어떻게 돌려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꿈에서 깨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단1:17)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교수님에 제게 신학교를 가라고 하십니다. 제게 신학교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평신도 사역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확실한 확증을 원하나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나이다. 제가 신학을 하여 목회의 길로 들어서길 원하시면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꾸 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교도관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교정 시설로 재 파송하라!”

이 세상의 땅 끝인 이곳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교정 시설 내에 파송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곳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각각에 맡는 달란트를 개발하여 각자 사회로 돌아가게 하여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수용자를 말씀으로 재무장시켜 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버림 받은 사람들이 변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변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도관으로 불러 주신 소명 같았다. 교만하여 내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살아온 나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지금 나를 이곳에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비록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가진 것 없지만 내 마음은 천국이다. 내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싶다.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길 소원해 본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당신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에 이끌려 당신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으사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어떤 그릇으로 빚으실 지는 당신의 뜻입니다.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 지도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되어 지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도 당신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의 세상으로 나왔사오니 저를 통하여 당신의 밝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이 삭막한 세상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 주셔서 당신의 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길 소원합니다.

####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죄악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았사오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당신에게 돌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저 영혼들을 위해 저를 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따르겠나이다.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 나가는 말

지난 11월 죽음의 끝자락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온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손짓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살이란 극한 방법을 택하려 하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일깨워 주셨다. 아들 동건과 아버지를 통하여 무지한 나를 일깨워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이후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보내왔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보았고 그 빛만을 쫓아 왔지만 여전히 주위는 어두웠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가 어둡고, 아무리 주위에서 광풍이 불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은 느낄 수는 있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여 년 동안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살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각자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알고 있더라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 그 나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는 그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

가지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파견된 임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징계는 우리를 정말로 싫어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는 것이다. 지난 45년 세월 동안 내 멋대로 살아온 나를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 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에 고통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됨으로 우리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 구치소,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사형수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미결신분이다. 이들에게 사형이 집행됐을 때에야 비로소 형이 확정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 집행되기 전에 이들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사형 집행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최후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 신분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내려 집행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특별사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보고 깨달아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

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형상을 되찾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수군수군, 서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함,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를 불순종함,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였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거듭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의롭게 되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천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기쁘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 나가서도 그 거룩함과 기쁨과 평강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오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의롭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 때는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가를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거듭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위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만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가식적인 믿음 생활로 인하여 지치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하였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가식적으로 믿음 있는 채 기도하고 행동하여도 천국에는 갈 수 없다. 평생 이렇게 노력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불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서 나를 통하여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육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나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쉽게 지치고 앓고 편안하며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의 거짓에 현혹되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고후13:5-6)

나는 지금까지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내게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물질이 없고, 지위가 높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해도 나는 지금이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아픔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해 주심에 감사할 뿐이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속지 말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다. 진리를 가려 거짓의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그것에 속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리를 쫓아 영생을 얻기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말씀에 바로 서서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짓에 넘어가 실족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단의 거짓에 대적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 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첫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아 놓은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사망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사형을 집행 받게 될 사형수의 몸인 것이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은 신 예수님은 믿는 자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단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노예 문서를 불살라 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여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즉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특별사면을 받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 즉 모든 죄에 대한 죄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셨다고 한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

하고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은 이 진리를 감추어 인간이 못 보게 만들고 여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말씀으로 거짓아버지인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사망에서 영생으로의 구원인 것이다(엡2:8).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선행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다. 이 감격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아는 것이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재점검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기 직전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은 진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온갖 죄악이 자라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온갖 죄악을 가려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려진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전의 죄악된 상태는 지나가고 새롭게 의로운 상태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고후5:17).

거듭남이 없어도 성령의 열매 비슷한 것을 흉내 낼 수는 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억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신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요8:44). 태어나면서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죄악이 자라서 그 죄로 인하여 악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5:11~13)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을 공짜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다. 요한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거짓아버리의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다.

2년 전에 2억 원이란 빚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 내게 2억 원이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주시겠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이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주시겠다고 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주시겠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의 욕심대로 응답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욕대로 구한 것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약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만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신다고

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보여 주시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단의 유혹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움직여 시험에 드는 경우(약1:2,12~14)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마5:4,10; 뱀전4:12~14).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신다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신다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더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도록 하신다.

또한 이 고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위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형성된 인내심을 통하여 단련되어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롬5:4).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곧 소망을 이루게 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잠시 동안 근심과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뱀1:6~7)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심에 감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최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마6:9,13), 말씀으로 무장하고(시119:9,11),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요일5:4~5),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히4:16)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것이다(약4:7).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할 확신은 **【사죄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사단의 속임에 현혹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렇게 진실 되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경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된다. 이처럼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와 올바르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자백하기 때문이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실된 죄의 자백이 없게 될 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와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할 확신은 바로 **【인도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를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일에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

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남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도 주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렸다. 이런 죄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지금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 마음을 전해 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엡3:8)고 고백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 왔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싶다. 그리하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울고 웃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 마라나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4:1~2)